일자리
찾 아
세계로

해외
취업
완전
정복

호주

일자리 찾아 세계로

해외취업 완전정복

호주

고용노동부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호주 취업 한눈에 보기

01 구직초기단계

호주 국가정보 탐색

1. 국가 일반 및 경제·노동현황 p.12
2. 정착 및 생활정보 p.166
3. 고용관련제도 p.38

호주 취업을 위한 준비상태 점검

1. 적성 및 역량 등과 관련한 자기분석 p.104
2. 호주 취업의 성공·실패사례를 참고한 나의 강점 및 약점 p.66
3. 호주 취업의 성공·실패사례를 참고한 나의 강점 및 약점 파악 p.135

02 본격적인 구직준비단계

호주 취업정보 탐색

1.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Kotra와 같은 공공기관 활용 p.119
2. 해외취업 민간알선업체 활용 p.131
3. 호주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활용 p.116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용

공공기관,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취업알선업체를 이용하여 구직준비 p.122

취업유망분야 및 취업절차 파악

호주의 취업유망분야 및 채용 프로세스를 파악하여 호주 취업에 요구되는 역량 및 자질 향상 p.66

03 구직 및 면접 진행단계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주 취업에 필요한 영어구사능력 및 영문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등 취업 역량 강화 p.88

입사 지원

1. Linkedin, 전문 구직 웹사이트, 기타 취업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입사지원 p.120
2. 민간취업알선업체를 활용하여 취업처 확보 및 입사지원 대행 p.122

면접 진행

1. 입사 지원 후 지원한 회사에 대한 조사와 예상 질문을 철저히 준비 p.105
2. 회사 인사담당자와 인터뷰 진행 p.101

비자발급 및 신체검사

채용 결정 과정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 협상 p.152

04 성공적인 호주 정착 및 생활

호주 정착 및 생활정보

1. 집 구하기 p.166
2. 은행 및 통장개설 p.178
3. 각종 유틸리티 개설 p.181
4. 비즈니스 및 생활 에티켓 p.188

호주 취업 SUMMARY

왜 호주인가?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였다. 전 세계의 국경이 닫히면서 관광 서비스 산업이 1차 폭격을 맞았으며, 이후 전 산업 영역으로 피해가 확산되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호주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사람뿐 아니라 물류 전반의 이동이 어려워졌다. 관광산업과 자원 수출이 주요 먹거리였던 호주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그러나 모든 위기는 기회를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의 호주는 해외 취업의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 국경의 차단과 서비스업의 부진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축소로 호주의 외국인 취업자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산업 성장을 위한 외국인 인력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꿈꾸는 젊은이라면 호주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해외 취업의 장점과 기회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호주는 면적대비 인구가 매우 적고 연중 쾌적한 기후가 특징인 국가이다. 호주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80배 정도로 넓지만 인구는 2,400만 명에 불과하다. 호주 내 우리나라 교민은 약 18만 명으로 추정된다. 호주는 한국과의 교역이 8번째로 많은 국가이고, 석탄 및 철광석과 같은 우리나라의 많은 천연자원을 호주에 의존하고 있다.

호주하면 워킹홀리데이, 소위 워홀을 떠올릴 수 있다. 일하면서 언어도 배우고 글로벌 교우관계도 맺을 수 있는 장점으로 코로나 이전까지 매년 4만 명 이상의 워홀러들이 호주로 유입되고 있다. 그만큼 호주는 전 세계 청년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호주는 현지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비교적 손쉽게 이민까지 가능하며 고용조건도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호주의 최저임금은 2021년 7월 기준 시간당 20.33 호주달러(주급 기준 772.60호주달러)로 이는 한국의 최저임금(2022년 9,160원)에 비해 약 두배를 넘는 수준이다. 영어 사용권이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해외취업을 꿈꾸는 준비생이라면 호주 취업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호주는 넓은 국토와 큰 경제규모, 그리고 경제규모 대비 적은 인구규모로 인해 인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호주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 및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최근 비자제도가 다소 까다로워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기술전문직종 전공 및 경력자의 진출이 유망하며, 대표적으로 요리사, 건설 및 토목 기술기능공, IT전문가 및 엔지니어, 회계사, 간호사, 사회복지 종사자 등을 꼽을 수 있다.

호주의 취업비자는 크게 TSS, ENS, RSMS의 3가지로 구분되며 호주 내 스폰서(고용주) / IELTS 6.0 / 경력 3 년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외에도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하므로 본서를 통하여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본 <해외취업 완전정복 : 호주> 편을 통하여 해외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효과적인 취업전략을 수립하여 해외취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호주 취업의 특징

- 호주는 풀타임, 파트타임, 일용직 및 임시직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유연한 인력운용에 장점이 있는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보다 오히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음. 2021년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0.33호주달러로 한국(9,160원)의 2배에 달하며, 타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임.
- 호주는 인력부족직업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해외인력을 채용해 왔으나, 실업률 악화로 반(反)이민 정서가 확대됨에 따라 자국민 채용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 또한, 코로나 셧다운으로 인해 서비스 산업 전반의 침체가 이어지고, 이에 현지 취업 중이었던 외국인 취업 인력들도 상당수 본국으로 귀국한 상황
- 그러나 호주 정부가 해외인력의 영입을 전면 중단한 것은 아니며, 한국인이 취업 가능한 요리 및 호텔 경영, 간호 및 의료보건, IT 및 엔지니어링, 건축, 기계 및 자동차 정비 등 인력에 대한 취업수요가 여전히 많음
- 변경된 비자제도 및 기타 채용 관련 요구사항들을 고려하여 취업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해외취업 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취업역량 및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일이 필요.

유망직종

- **간호사**: 호주 내에서 간호사는 직업으로서의 사회적 인지도와 연봉 수준이 상당히 높은 직군이며, 외국인 간호사에 대한 영주권 및 이민 기회가 가장 넓게 보장되고 있는 직종임. 2021년 기준 이민 직종 1순위 직종(3,670명). 기본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직종이었으며, 코로나 팬더믹 이후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영어가 능숙한 한국인 구직자라면 자격증 취득 또는 관련 학위 등을 고려하여 도전해볼 만한 분야임
- **요리사**: 관광 서비스 산업은 호주의 주력 산업군으로 호텔 및 레스토랑이 핵심임. 특히 요리사(Chef)의 경우 호주에서 가장 부족한 직군으로 손꼽히며, 2021년 기준 단기 취업 비자(TSS) 소지자 상위 1위(3,220명)에 해당할 정도로 해외인력의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직종임. 타 서비스 직무에 비해 언어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고, 손기술과 미적 감각이 뛰어난 우리나라 취업 준비생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영역임. 특히, 우리나라의 요리사 직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경쟁력 수준이 강점.
- **자동차 관련 정비사**: 자동차 관련 정비사는 종류에 따라 차량, 모터사이클, 디젤엔진 및 소형엔진 정비사로 총 4개 직종이 대표적이며 현지에서 지속적인 구인 수요가 존재하는 유망 직종임. 호주의 인력 부족 직군으로 손꼽히며 단기 취업 비자(TSS) 소지자 상위 5위권(1,360명)에 해당되는 직종임. 한국에서의 직장 경력이 있거나, 호주에서 Cert 3/4 수준의 학력만 보유하여도 충분히 구직에 성공할 수 있는 유망 직종임. 한국인의 손기술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며, 타 직종에 비해 언어에 대한 제약이 크지 않은 장점도 매력적.
- **IT 전문가 및 엔지니어**: IT전문가는 글로벌 어디에서나 부족한 직종. 호주에서도 인력 부족직군으로 손꼽히며, 단기 취업 비자(TSS) 발급 순위에서도 상위 1위(소프트웨어 엔지니어, 1,570명). 3위(프로그램 개발자, 990명), 6위(IT경영분석가, 590명), 14위(ICT 시스템 테스트 엔지니어, 340명)에 해당되는 등 활발한 취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꾸준한 인력 수요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이 보장되며, 영주권 및 이민 신청에서도 유리한 직종(이민 순위 2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3,121명). 전세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의 공통 사항이 많기에 국내의 관련 학력을 소지한 경우 현지에서도 충분히 학력을 인정받으며, 일정 수준의 영어실력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유망 직종.
- **사회복지종사자 :** 호주는 세계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을 만큼 사회보장제도가 전반적으로 잘 갖추어진 국가임. 이민자 관리 및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구인 수요가 많으며, 높은 급여 수준과 함께 영주권 취득이 비교적 용이한 직종임.

취업준비방법

준비단계

- 해외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뚜렷한 의지를 갖추고 있는 우선 점검 필요
- 해외 생활의 특징과 본인 적성의 적합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 해외 취업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의 검토를 통한 사전 점검
- 희망하는 직종의 호주 현지 구인/구직 현황에 대한 사전 정보 탐색→ 인력부족직군 여부 확인 (TSS 비자 내, 단기부족직군 및 중기부족직군 여부)→ 기존 단기취업비자 및 영주권 취득 현황 검토
- 희망 직종의 요구 학력, 기술 및 경력 요건 확인
- 부족 역량 확보 방안 구체화→ 어학 : TSS비자 조건 아이엘츠 5.0 확보 및 지속 학습→ 전문역량 : 국내 학위 및 경력 요건 최대한 확보, 필요 시 현지 학원, TAFE, K-Move스쿨 및 2년제 대학 수학 등 구체적 계획 수립
- 준비에 소요되는 필요 기간 및 비용 규모 도출,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 수립

구직단계

- 이력서 작성 : 최대한 간결, 명료하며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과거의 업무경력 및 경험을 강조하여 자신의 특장점과 업무와의 연계성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 추천인이 있으면 구직에 도움이 되며 추천인(Referee)의 이름과 연락처, 추천서(Reference Letter)를 첨부하는 것이 좋음.
- 자기소개서 작성 : 자기소개서에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하고자 하는 포지션, 해당 포지션과 본인의 기술·지식 및 경험이 일치하는지 여부, 면접을 보고 싶다는 본인의 의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 면접 : 지원한 회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예상질문을 준비하여 연습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고용주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면접 시에는 단정한 복장과 공손한 자세 유지가 중요하며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 질문을 받거나, 답변할 때 실수를 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좋음.

호주 취업의 특징

- 호주 취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단기취업비자 등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비자제도가 존재한다는 점. 사전에 해당되는 비자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함
- 단기 및 중기 인력부족 직군이 수시로 변동됨(주로 매년 7월에 대규모 변동)
- 단기 취업 비자의 경우 360시간의 관련 업무경험과 2년의 경력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기에, 경력 요건에 대해 꼼꼼히 따지고 필요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적극적으로 활용
- 영어권 국가이기에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준의 어학 실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이력서 작성, 면접 및 실기 테스트 등은 대부분의 영미권 국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
-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경우 비자 및 영주권 기준이 완화되지만, 생활여건의 불편함 등을 감안해야 함

호주 취업을 위한 자기분석 체크리스트

사전준비 단계

	항목	YES	NO
1	해외 취업을 위한 영어 및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2	취업 희망 직종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 및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ex.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CAD/CAM/CATIA, 각종 컴퓨터 활용능력, 문서처리능력)		
3	호주 기업에서 구직하는 다양한 취업 채널/경로를 알고 있는가? (ex. Job Portal, Linkedin, Search firm(헤드헌팅사))		

구직단계

	항목	YES	NO
1	호주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 직종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2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건강상태 등에 결격사유는 없는가?		
3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동기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4	취업 희망 직종에서의 취업가능성과 직장의 질을 결정하는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5	이직에 필요한 경력개발을 위하여 취업 초기에 열악한 근무조건 (청소,서빙,서비스업 등)을 감내할 수 있는가?		
6	학력 및 스펙보다는 과거의 업무경력, 경험을 중시하는 호주의 채용문화에 대해 알고 있는가?		
7	인성 및 태도를 중시하는 채용방식과 자기분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8	면접 과정의 형식과 내용 및 주의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가?		

CONTENTS

PART 01 노동시장 동향 및 고용제도

01 국가정보 — 012
02 노동시장 동향 — 032
03 고용관련 제도 — 038
04 임금제도 — 046
05 사회보장제도 — 052
06 개인소득세 — 060

PART 02 산업 및 업종별 취업전략

01 취업 유망직종 및 현황 — 066
02 직종별 채용 트랜드 및 취업역량 — 080
03 산업 및 직무별 효과적인 취업방법 — 096
04 취업전략 및 로드맵 — 104
05 주요 로컬기업 및 우리나라 진출기업 현황 — 108

PART 03 해외취업 성공 포인트

01 해외취업 정보찾기 — 116
02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 활용하기 — 122
03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132

PART 04 해외취업 사례

01 성공사례 - 떠나지 않는 이에게 세상은 보여줄 게 없다 — 136
02 성공사례 - 꿈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마 — 140
03 실패사례 - 농장생활은 블랙홀이다 — 146
04 실패사례 - 자신의 목표가 뭔지 정하고 가라 — 148

PART 05

취업비자

01 취업비자 종류 및 발급현황 152
02 취업비자 신청 및 취득 158
03 비자 전환 162

PART 06

정착 및 생활정보

01 정착 166
02 생활 178
03 에티켓 및 주요 용어 188

PART 07

해외 취업 Q&A

01 비자 196
02 유망직종 196
03 현지 언어 실력 197
04 갖추어야할 스펙 197
05 면접 시 유의사항 198
06 졸업 경과 후 취업가능성 198
07 근로계약 시 유의사항 199
08 급여수준 200
09 외국인 복리후생 제도 200
10 현지생활 시 주의사항 201

PART

01

노동시장 동향 및 고용제도

01
국가정보
-
02
노동시장 동향
-
03
고용관련 제도
-
04
임금제도
-
05
사회보장제도
-
06
개인소득세

01. 일반사항

국가 일반사항

국명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위치	오세아니아,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 (동경 113~153도, 남위 10~43도)
면적	약 769만 ㎢ (한반도의 약 35배, 대한민국의 약 80배)
기후	남부(온대), 북부 및 서부(열대), 내륙(대륙성)
수도	캔버라
인구	25,925,667 명 (자료원 : 호주통계청, 2021.6 기준)
환율	1AUD = 850.98 KRW (2021.11. 기준)
민족	영국계(36.1%), 호주계(33.5%), 중국계(5.6%), 인도계(4.6%) 등
언어	영어
종교	천주교(22.6%), 영국성공회(13.3%), 기타 기독교(16.1%), 이슬람교(2.6%), 불교(2.4%) 등
건국일	1901년 1월 26일
정부형태	영연방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양원제)
국가원수 (실권자)	군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Queen Elizabeth II) 총독: 데이빗 헐리(David Hurley) 총리: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2018.8. 30대 총리로 당선(자유당)

자료 : 호주 통계청, 통상산업부, 인력부, 통화청 ,국세청, IE australia, WTA, IMF 최신자료 기준

02. 한국-호주 관계

한-호 관계주요 사항

체결협정

체결일	체결내용
1965.09.21	무역협정
1975.06.17	무역 및 경제발전 협정
1979.05.02	원자력 협정
1984.01.01	이중과세 방지협정
1983.11.23	시장개방에 관한 각서 교환
1983.11.23	어업협정
1988.08.09	세관지원 양해각서
1988.11.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교환
1992.02.26	항공협정
1992.08.25	형사사법공조 조약
1992.08.31	상용복수사증발급각서 교환
1993.12.17	경제공동위 설립 약정
1995.03	표준 및 인증 기술협력 양정 체결
1996.02.15	한-호 환경협력각서 교환
1996.11.14	산업 및 기술협력 약정
1999.09.17	민사사법공조조약, 과학기술협력협정, 자원협력 양해각서 체결
2005.10	에너지·자원협력협정
2008.08	한-호 FTA 협상개시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에 합의
2009.01	국제 이산화탄소포집저장연구소(GCCSI)설립 참가 MOU
2009.03	양국 정상 회담 개최 및 FTA 협상개시 발표
2009.08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011.08	한-호 기후변화-녹색성장 고위급 대화
2012.06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GGGI) 설립 협정 참가
2012.08	한-호주 기후변화-녹색성장 고위급대화 개최
2013.05	한-호주 역외탈세정보 공유 협정 체결
2013.12	한-호주 FTA 협상 타결 발표
2014.12	한-호주 FTA 발효
2019.9	한국-호주 국제금융국장 회의
2019.10	한국-호주 재무장관 회의(워싱턴)

교역규모

- 대 호주 수출: 112억 5천 백만 호주달러(2020년) / - 대 호주 수입: 276억 천 7백만 호주달러(2020년)

교역 현황

연도	전체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0년	27,098	35.5%	6,642	26.7	20,456	38.6	-13,814
2011년	34,480	27.2%	8,164	22.9	26,316	28.6	-18,152
2012년	32,238	- 6.5%	9,250	13.3	22,988	-12.6	-13,738
2013년	30,348	-5.9%	9,563	3.4	20,785	-9.6	-11,222
2014년	30,696	1.1%	10,283	7.5	20,413	-1.8	-10,130
2015년	27,269	-11.2%	10,831	5.3	16,438	-19.5	-5,607
2016년	22,677	-16.8%	7,501	- 30.7	15,176	- 7.7	-7,675
2017년	39,022	72.1%	19,862	164.8	19,160	26.3	702
2018년	30,329	- 22.3%	9,610	- 51.6	20,719	8.1	-11,109
2019년	28,499	- 6.0%	7,891	- 17.9	20,608	-0.5	- 12,717

교민

12만 3,017명(2016년 12월 기준)

자료 : 호주 통계청, 통상산업부, 인력부, 통화청 ,국세청, IE australia, WTA, IMF 최신자료 기준

☑ 호주와 관련된 10가지 재미있는 사실들

1. 호주에 있는 해수욕장을 하루 1개씩 방문한다면 모두 몇 년이 걸릴까?
정답 : 27년 (호주에는 10,000개가 넘는 해변이 존재)

2. 호주 수도는 왜 캔버라일까?
정답 : 1901년 호주 6개 주에서 수도를 정하는 협의 과정에서 시드니와 멜번이 대립
⇨ 시드니에서 160km떨어진 곳으로 합의
당시 수도 선정 책임자 오말리(O'Malley)는 추운 날씨를 선호해서 캔버라를 선정

3. 호주 멜번은 그리스의 제3도시이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와 제2도시 테살로니키 다음으로 그리스인이 많은 도시가 호주 멜번이다. (17만 명의 그리스인 거주)

4. 브리즈번에는 매년 바퀴벌레 경주가 열린다.
1982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장난으로 시작. 지름6미터 원형 경기장에서 매년 개최

5. 호주는 눈의 왕국 스위스보다 1년 평균 강설량이 많다.

6. 호주는 전세계 대륙 중 유일하게 활화산이 없는 대륙이다.

7. 호주는 세계 2번째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나라이다.
1895년 남호주에서 최초로 부여. 1921년 여성 최초 정치인도 탄생함

8. 호주는 세계에서 도박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성인 1인당 1년 평균 1,200불을 도박에 소비하고 있음
(Pokies라는 슬롯머신이 약 200,000여대 존재. 전세계 슬롯머신의 18% 규모)

9. 호주에 있는 동물 양은 호주 인구보다 3배 많다.
호주는 세계 최대 양털 생산국가. 전세계 20% 담당. 2020년 기준 약 6,370만 마리

10. 호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울타리가 있다.
- 1885년에 만들어진 딩고 펜스(Dingo Fence), 길이가 5,614km
- 딩고는 호주 들개로,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짐
- 둘째로 긴 토끼 펜스(Rabbit-proof fence, 1907년)는 3,253km
- (호주에는 약 2억 마리의 토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출처: MKL Sydney(Youtube Cha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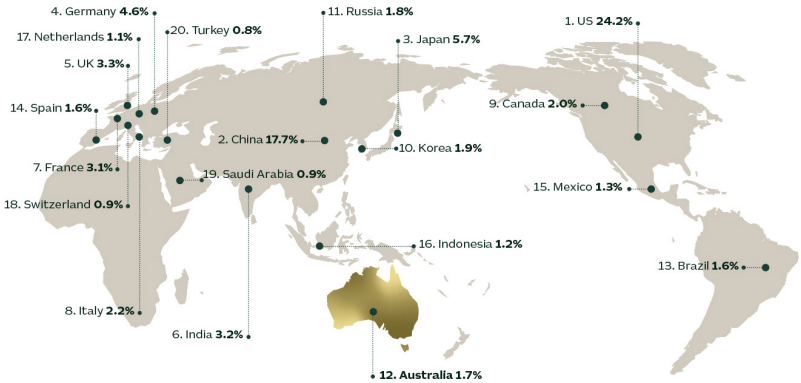
03. 경제지표

호주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 구	백만 명	23.5	23.9	24.3	24.6	24.9	25.2	25.6	25.8
명목 GDP	십억 달러	1,455.0	1,234.4	1,266.8	1,386.9	1,420.6	1,397.6	1,342.5	1,462.3
1인당 명목GDP	달러	61,652	51,494	51,979	55,974	56,420	53,825	52,952	54,587
실질성장률	%	2.6	2.3	2.8	2.4	2.8	1.8	-4.5	1.6
실업률	%	6.1	6.1	5.7	5.6	5.3	5.1	6.9	7.0
소비자 물가상승률	%	1.7	1.7	1.5	1.9	1.7	1.8	0.1	1.8
재정수지 (GDP대비)	%	-2.1	-1.2	-1.7	-0.8	0.0	0.2	-7.6	-5.6
총수출	백만 달러	239,992	187,680	192,504	231,130	257,097	270,982	251,100	266,700
(대한(對韓) 수출)	〃	17,890	13,293	12,860	15,576	17,692	17,574	N/A	N/A
총수입	〃	228,079	200,519	189,306	221,368	227,011	213,750	204,300	220,800
(대한(對韓) 수입)	〃	11,118	11,367	8,097	16,099	9,870	8,371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11,912	-12,839	3,198	9,762	30,086	57,231	46,800	45,900
경상수지	〃	-41,786	-57,000	-41,000	-35,800	-29,100	7,700	17,700	10,100
환율(연평균)	A$/US$	1.22	1.37	1.38	1.28	1.42	1.46	1.39	1.37
해외직접투자	억 A$	28,308	30,749	32,432	33,525	35,656	38,445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US$	585.1	295.8	482.9	453.0	680.5	361.6	N/A	N/A

주: 2020년은 추정치, 2021년은 전망치
자료: EIU(2020년 9월), IMF, OECD(명목GDP), 호주통계청(ABS 5352.0), Global Trade Atlas, UNCTAD Stat

글로벌 기준 G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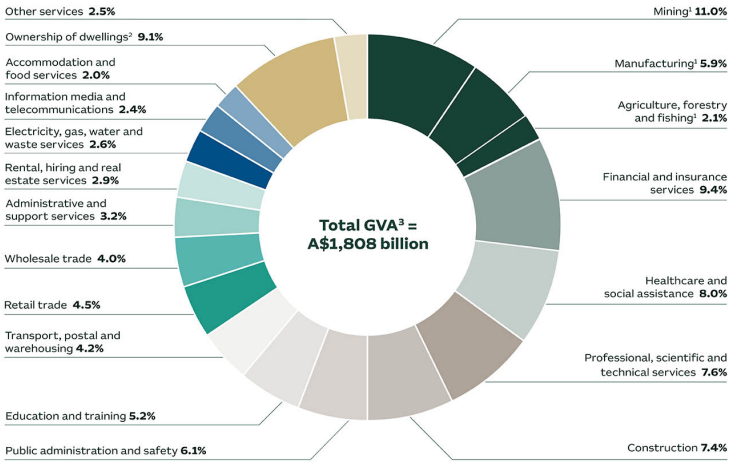
출처 : Australia Benchmark Report (2021)

04. 경제동향

개요

호주는 남한의 약 80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의 토지와 방대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우수한 자연 환경을 활용한 농업, 광업, 서비스업(관광, 교육 등)이 발달한 국가이다. 2021년 기준 호주의 총부가가치생산 기준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광업(11.0%), 금융 및 보험(9.4%), 건강 및 사회지원(8.0%), 전문기술 및 과학분야(7.6%), 건설(7.4%), 교육훈련(5.2%)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GDP중 서비스산업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호주 산업별 총부가가치생산량 (Gross Values Added)



출처 : Australia Benchmark Report (2021)

호주의 제조업 기반은 취약한 반면 풍부한 자원을 보유해 농축산업, 광업 등 1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서비스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코로나19 전까지 29년 연속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왔다.

농업 및 축산업 분야에서 호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쇠고기, 양모, 밀, 면화 등이며 생산량의 70%가 수출되고 있다. 이는 넓은 국가면적 대비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최근 호주에서 발생하였던 심각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2018-19년 농축산업의 가치는 전년 대비 3% 증가해 600억 호주 달러 규모를 나타내었다. 주요 작물의 경우, 밀, 과일 및 견과류, 야채류, 보리의 생산량은 증가했으며 면화, 카놀라, 쌀 생산량은 소폭 감소세이다.

호주의 주요 수출산업인 광업 영역에서는 철광석, 우라늄, 금, 납, 아연 등 주요 광물자원의 세계 최대 보유국이며 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로 광물을 수출하고 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주요수출 광물인 철광석이 중국시장의 수요로 국제 가격이 상승하고 안전자산 선호로 금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액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도 전세계 경제회복에 따라 철광석, 석탄, 구리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배터리 원료인 리튬의 수요도 상승할 전망이며, 리튬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향후 광업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는 높은 인건비 및 물류비용의 영향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호주 정부는 4차 산업 신기술을 적용한 첨단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선진국과의 격차가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는 전망되지 않는다.

건설업의 경우 2021년 중반까지 이민자 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전반적으로 건설시장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정부의경기부양책을 통해 주택건설 및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 침체 구조하에서 호주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GDP 부양을 도모하고 있다.

코로나19 초반 강력한 국경 봉쇄 조치로 관광, 교육, 요식업, 전문서비스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가장 타격을 심하게 입었다. 호주 최대 서비스 산업으로 금융 및 보험 서비스가 호주 총 GDP의 9.3%를 차지하며 의료,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공공행정 서비스, 교육업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호주 노동인구의 약 90%가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의 주요서비스업 GDP비중

산업	GDP비중	산업	GDP비중
금융 및 보험서비스	9.3%	의료 및 사회지원	8.0%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7.5%	공공행정 및 안전	5.6%
교육 및 트레이닝	5.1%	운송, 우편 및 창고	4.8%

출처: Austrade, Australia Benchmark Report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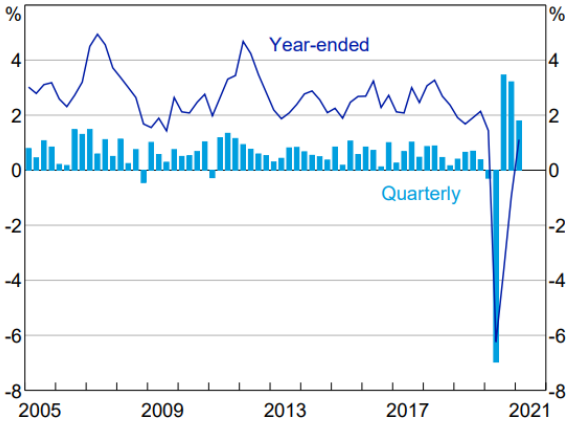
호주는 글로벌 남반구를 대표하는 관광서비스 대국이며, 풍부한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매년 수천만명의 관광객을 통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이전까지는 호텔업 및 음식점업은 경제 침체 기간에도 큰 변동 없이 시장 규모를 유지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요리사의 직군은 가장 대표적인 호주의 부족직무 직군으로 꼽혀 왔다. 호주의 서비스 산업은 여전히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경제기반이며, 이에 서비스 관련 다양한 직무군이 여전히 부족 직무군으로 지정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성장률

글로벌 모든 국가가 경험한 코로나 팬더믹으로 2020년도 호주의 GDP는 전년대비 -6%를 넘는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었다. 호주의 산불과 역사적인 가뭄으로 전년대비 40% 이상 감소한 농작물 생산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

호주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경기부양책으로 중소규모 사업 및 고용 유지 지원, 저금리 정책, 양적 완화 등을 포함해 총 2,990억 호주달러를 지원했으며, 2020~2021년 연방 예산에 980억 호주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발표하였다. 이에 더하여 2021년 농수축산물의 생산이 개선되고, 코로나 팬더믹의 극복으로 GDP 성장률이 다시 급격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호주 GDP 변동 추이



출처 : A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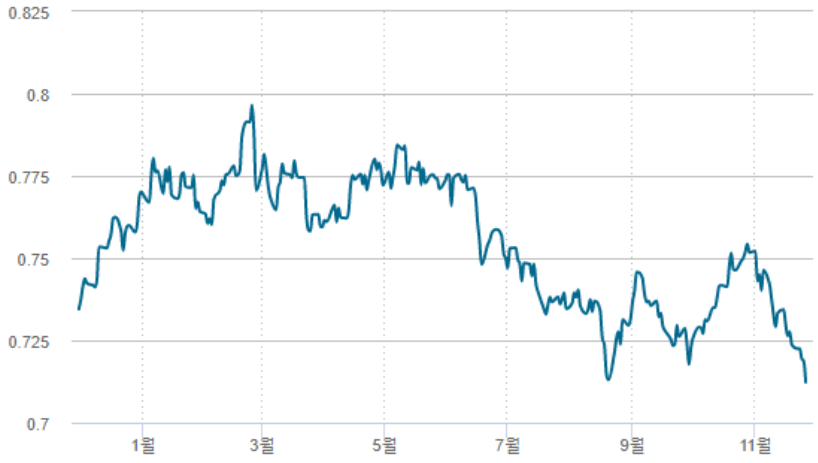
환율

호주의 외환관리기구는 중앙은행인 준비은행(RBA: The Reserve Bank of Australia)으로 중앙은행이 통화 발행 및 금융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외환 정책도 수립, 집행하고 있다. 1959년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외환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경제 성장 및 금융 시스템의 발달로 금융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면서 1959년 연방준비은행법(The Reserve Bank Act 1959)을 제정하여 준비은행이 외환도 관리하게 됐다.

호주는 1983년 12월부터 외환 관리를 종전 통제 위주에서 점차 완화하여 환율 문제뿐만 아니라 신용장 개설, 해외 투자 및 송금 등 전 분야에 걸쳐 외환 관리를 대폭 자유화했으며, 현재는 외국 정부 및 외국 기관과 외국 은행의 대호 투자와 호주 통화의 해외 반출 및 세무 목적 이외에는 외환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국제 수지 방어를 위해 1983년까지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 정부가 환율 결정 및 외환 수급 조절 등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했으나, 1983년 12월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환율이 시장 수급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되고 있는데, 호주 중앙은행이 1992년부터 지금까지 환율 시장에 개입한 사례는 총 13회에 그치고 있다.

환율 변동 추이(2021년 기준)



자료원 : Valuta FX

호주는 경제의 회복 전망에도 환율의 급격한 조정을 시도하지 않는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며 최근 5년간 평균 미국 달러 대비 0.75수준의 저환율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저환율 기조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호주 경제의 입장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며,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관리에 따라 저환율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금리

호주는 2019년 코로나 팬더믹 이후 긴급 금융정책으로 기존 1.5% 수준의 기준금리를 급격히 하락 조정하여 2021년 0.1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호주 금리 변화

2021년 11월, 호주 중앙은행인 호주연방중앙은행(RBA)이 경제가 코로나 팬더믹에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예정보다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전의 발표에서 RBA는 2024년이 되어야 물가상승률이 금리 인상을 위한 목표치인 2%에서 3% 사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2021년 11월, RBA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단기간 2.25%를 유지하고, 2024년에는 2.5%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목표수준인 2%를 2024년 이전에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 만큼 금리 인상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팬더믹 이후 호주의 금리정책은 목표 인플레이션 수준의 달성을 위한 점진적 인상이 예상되며, 이는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테이퍼링 등 정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 실행 지수

비즈니스 실행 지수(ease-of-doing business)는 해당 국가에서 비즈니스 창업 및 수행이 얼마나 원활하며, 정부 정책이 이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수이다. 뉴질랜드와 싱가포르가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5위권의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호주는 해당 지수에서 평균 14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글로벌 수준에서도 비즈니스 실행 지수의 경쟁력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Ease-of-doing Business 인덱스 수준

	Ease of doing business	Getting credit			Enforcing contracts			Starting a business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Economy	Overall ranking out of 190 economies	Rank	Strength of legal rights index (0–12)	Depth of credit information index (0–8)	Rank	Time (days)	Quality of judicial processes index (0–18)	Rank	Procedures (number)	Time (days)	Rank	Procedures (number)	Time (days)
New Zealand	1	1	12	8	23	216	9.5	1	1	0.5	7	11	93
Singapore	2	37	8	7	1	164	15.5	4	2	1.5	5	9	36
Hong Kong SAR	3	37	8	7	31	385	10.0	5	2	1.5	1	8	69
Denmark	4	48	8	6	14	485	14.0	45	5	3.5	4	7	64
Korea	5	67	5	8	2	290	14.5	33	3	8	12	10	28
US	6	4	11	8	17	444	14.6	55	6	4	24	16	81
UK	8	37	7	8	34	437	15.0	18	4	4.5	23	9	86
Malaysia	12	37	7	8	35	425	13.0	126	8	17	2	9	41
Australia	**14**	**4**	**11**	**8**	**6**	**402**	**15.5**	**7**	**3**	**2**	**11**	**11**	**121**
Taiwan	15	104	2	8	11	510	14.0	21	3	10	6	10	82
UAE	16	48	6	8	9	445	14.0	17	2	3.5	3	11	48
Thailand	21	48	7	7	37	420	8.5	47	5	6	34	14	113
Germany	22	48	6	8	13	499	12.5	125	9	8	30	9	126
Canada	23	15	9	8	100	910	11.0	3	2	1.5	64	12	249
Japan	29	94	5	6	50	360	7.5	106	8	11	18	12	108
China	31	80	4	8	5	496	16.5	27	4	9	33	18	111
France	32	104	4	6	16	447	12.0	37	5	4	52	9	213
Italy	58	119	2	7	122	1,120	13.0	98	7	11	97	14	190
India	63	25	9	7	163	1,445	10.5	136	10	17.5	27	15	106
Vietnam	70	25	8	8	68	400	7.5	115	8	16	25	10	166
Indonesia	73	48	6	8	139	403	8.9	140	11	13	110	18	200
South Africa	84	80	5	7	102	600	8.5	139	7	40	98	20	155
Philippines	95	132	1	7	152	962	7.5	171	13	33	85	22	120

출처: World Bank 2020, Doing Business 2020

05. 수출입 동향

주요 교역국가

호주의 수출입 교역 중 약 30%는 중국과의 교역이 차지한다. 연간 교역량은 총 2,500억 호주달러에 달할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간 388억 호주달러 정도로 전체 교역량의 4.5%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한-호 무역관계는 양국의 경제에서 무시하기 힘든 규모이다.

호주 교역국가 상위 10개국 (2020년 기준)

교역 국가	총 교역량 대비 비중	교역 금액 (백만 호주달러)
중국	28.8%	251,231
미국	9.3%	80,787
일본	9.1%	79,131
대한민국	4.5%	38,868
영국	4.2%	36,676
싱가포르	3.6%	31,143
뉴질랜드	3.6%	28,689
인도	3.0%	26,245
독일	2.5%	21,763
말레이시아	2.5%	21,649

주요 수출입 품목

호주의 수출 품목 중 21.6%는 철광석이며, 11.4%는 석탄으로 글로벌 자원수출의 주요 거점이기도 하다. 철광석과 석탄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며, 최근 호주-중국 무역 분쟁으로 인해 수출입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외 교육 수출액이 7.9%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호주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교육과 여행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 품목은 천연자원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나타낸다.

호주 주요 수출품목 (2020년 기준)

수출품목	총 수출액 대비 비중	수출 금액 (백만 호주달러)
철광석	21.6%	102,653
석탄	11.4%	54,112
천연가스	10.0%	47,525
교육	7.9%	37,549
금	5.1%	24,394
여행	3.4%	16,343
쇠고기	2.4%	11,258
알루미늄 광석	1.9%	8,875
원유 석유	1.8%	8,572
동광	1.4%	6,681

호주의 주요 수입 품목은 여행(8.4%)이 차지하고 있고, 호주 내부에 인프라가 부족한 정유시설과 자동차 제조업체 등의 생산품이 주요 수입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수출 품목의 대부분이 천연자원인데 반해, 수입 품목의 대부분은 제조업 제품이라는 측면에서 호주가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호주 주요 수입품목 (2020년 기준)

수입품목	총 수입액 대비 비중	수입 금액 (백만 호주달러)
여행	8.4%	33,267
정제석유	5.4%	21,671
승용차	4.8%	19,093
통신장비	3.8%	15,230
컴퓨터	2.6%	10,398
화물서비스	2.6%	10,378
원유석유	2.4%	9,455
금	2.2%	8,812
전문서비스	2.1%	8,554
약	2.0%	8,124

06. 산업동향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은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호주의 대표적인 제조산업이었으나 2017년 10월부로 완성차 제조사인 포드, 도요타, GM홀덴 3사가 현지에서 완전 철수한 이후,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없이 수입차 위주의 완전경쟁 시장으로 탈바꿈되었다.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들에게 북미, 유럽과 비교하여 적은 인구 규모 탓에 현저히 규모가 작은 호주의 우핸들 자동차 시장은 큰 매력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트럭 제조사들은 호주에 여전히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IBISWorld에 따르면, 2018년-2019년 회계연도 기준 301개 기업이 차량 제조 및 관련 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4,400여명이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0%가 트럭과 버스를, 나머지 30%가 ATV(All-Terrain Vehicles), 군용 특수차량, 커스텀 제작차량 등을 제조하고 있다.

호주 주요 트럭 제조 회사

순위	회사명	브랜드명	시장점유율 (%)	공장위치	직원수	연간생산능력
1	Volvo Group Australia	MACK	24.7	Brisbane	650	3,000
2	PACCAR	KENWORTH	14.5	Melbourne	800	2,500 (추정)
3	CNH Industrial	IVECO	7.2	Melbourne	510	1,200

출처 : IBISWorld

호주에서 트럭 제조 산업이 발전한 데에는 호주의 넓은 국토가 큰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약 80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를 가지고 있는 호주의 남북 간 거리는 3,685km, 동서 간 거리는 4,030km에 이른다. 이마저 대부분의 도시가 해안가에 집중되어 있어 주요 도시별 이동 거리가 상당하다. 또한, 호주는 세계적인 자원 부국으로 광산업이 크게 발달해 있으며 호주 제조업의 높은 해외생산 의존도로 인해 내륙 물류 운송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호주 물류 협회에 따르면, 호주의 운송 및 물류산업은 총 GDP의 약 8.6%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트럭을 이용한 내륙 물류 비중이 전체 물류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 나름 큰 시장이라 할 수 있겠다.

농축수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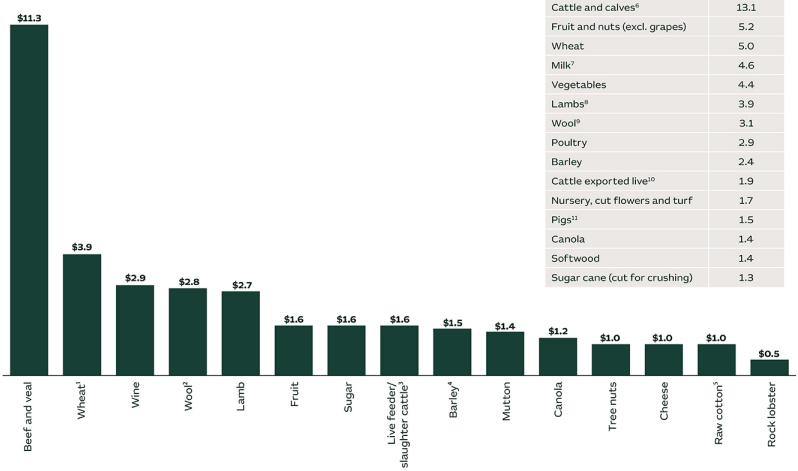
호주는 광산업과 더불어 농축수산업이 발달했으며 유제품, 육류 및 가공육류 등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중동의 쇠고기 및 양고기 소비국들에게 생축(Live stock)을 수출하기도 하며 이웃나라인 뉴질랜드가 동물복지 논란으로 생축 수출을 금지하면서 호주가 최대의 생축 수출국가로 성장, 호주산 생우가 한국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호주 축산공사(Meat &Livestock Australia)는 2014년 FTA 체결로 호주 쇠고기산업의 매출이 향후 15년간 12억 5000만 호주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미 호주산 수입 쇠고기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선택되며 확고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주요 쇠고기 수입업체들에 의하면 주요 명절인 설, 추석, 연말에 호주산

갈비 등의 수요가 매우 높아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어 호주산 쇠고기의 주요 소비시장으로 한국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웃 국가인 일본, 중국 등과도 FTA가 발효되는 등 호주의 축산업은 해외 시장 확대로 인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호주 농수축산물 수출 (2019-2020)



Farm, fisheries and forestry production = A$66.2 billion	
Commodity	A$ billion
Cattle and calves[6]	13.1
Fruit and nuts (excl. grapes)	5.2
Wheat	5.0
Milk[7]	4.6
Vegetables	4.4
Lambs[8]	3.9
Wool[9]	3.1
Poultry	2.9
Barley	2.4
Cattle exported live[10]	1.9
Nursery, cut flowers and turf	1.7
Pigs[11]	1.5
Canola	1.4
Softwood	1.4
Sugar cane (cut for crushing)	1.3

출처 : Australia Benchmark Report (2021)

낙농업

호주는 뉴질랜드와 EU 다음 3대 세계 주요 낙농제품 수출국 중 하나이다. 전체 생산량의 약 45% 정도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거대 인구 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있는 호주의 낙농업은 그 미래가 밝아보이나 사실 낙농업 농가는 많은 물을 소비하는 산업으로 건조한 사막지대가 많고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호주에서 낙농업은 물과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타즈매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관개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낙농업 목장들은 강수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산업 기반이 기후에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호주의 낙농업체들은 이웃나라인 뉴질랜드와도 힘겹게 경쟁하고 있으며 내수 시장의 경우 유통업체들의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

전망이 밝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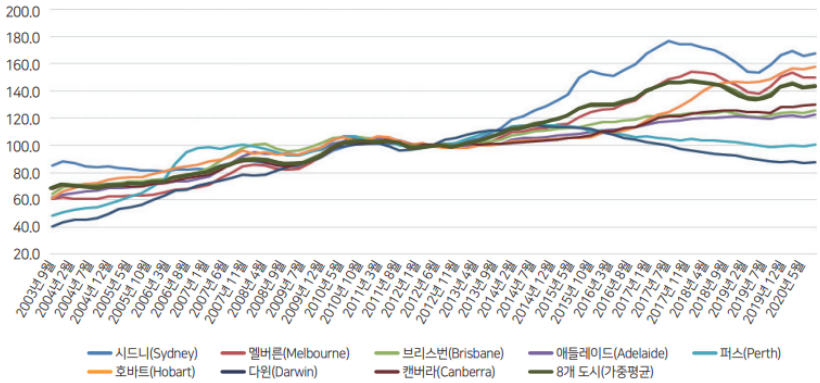
이러한 위험 요인으로 호주의 낙농업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급격한 내수시장 확대를 경험하고 있는 중국의 낙농업체들은 안정적인 공급처로 호주의 낙농업체에 대한 투자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낙농업체는 필연적으로 토지에 대한 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정서에 반하고 있으며 중국 투자자들은 대규모 농장에 대한 투자를 선호해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개시설 투자 확대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 자본으로 인해 낙농업체의 대형화·효율화가 실현된다면 호주 1차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 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주택건설시장

호주는 주도(州都)를 중심으로 만성적인 주택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넓은 국토에 적은인구가 거주하다보니 도로, 통신, 관개시설 등의 인프라가 한정적인 편이다. 특히 최근 들어 대도시에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높은 주택가격이 형성돼 개발이익을 노린 주택건설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 기인한 주택건설 시장 호황은 역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힘입어 광산붐 이후 호주 경제를 이끌어갈 주요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호주 주택가격은 지난 20년간 상승세였다가 2018년에 하락, 2019~2020년 들어 다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0년 이후 상승세의 원인은 0.1%에 달하는 저금리와 유동성 증대, 상대적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경제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심과 가까운 교외지역, 단독주택에서 가격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코로나 팬더믹의 사태 추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주요도시 주택가격지수 추이



출처: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Price indexes and inflation.

호주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금융규제 및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를 시행한 점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투자목적 대출 억제, 외국인 기존주택 매입 제한, 사전신고제도 등을 시행했고, 금융기관은 투자목적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높여서 적용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해 취·등록세 할증, 양도소득세 혜택 폐지와 원천징수, 빈집수수료 부가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중국인 자본가들이 주택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빈집으로 방치하는 상황이 확대되는 데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또한, 호주의 거점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주(New South Wales)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과감한 주택정책 전략을 수립 및 추진에 있다. 이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① 적시적소(適時適所) 주택공급, ② 다양한 주택, ③ 부담가능한 주택, ④ 회복력 높은 주택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2041년까지 약 100만 호 주택공급의 수요를 책정하고, 적절한 기반 시설과 서비스 확충으로 '30분 도시(30-minute city)'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지원, 임차후구매(Rent to Buy), 다량임대주택건설지원(Build to Rent) 등 공급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연재해에 강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 주택시장은 '위대한 호주인의 꿈'(Great Australian Dream)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묘사되기도 하는데, 이는 교외 지역에 있는 정원이 달린 단독주택(Detached House)을 자가로 소유하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이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시드니의

경우 2020년 12월 기준 단독주택의 중위가격이 약 121만 호주달러, 멜번의 경우 약 94만 호주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각 6.7%, 3.9% 가격이 상승한 것이며 브리즈번(5.6%), 애들레이드(6.1%), 퍼스(6.3%) 등 다른 호주 내 주요 도시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택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영미권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다.

호주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단독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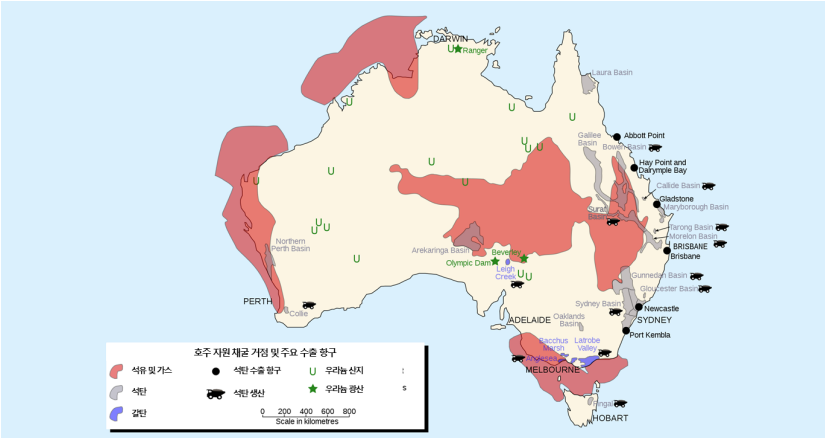
구 분	2019년 12월 (AUD)	2020년 9월 (AUD)	2020년 12월		
			(AUD)	전기 대비	동월 대비
시드니(Sydney)	113만 5,482	115만 6,090	121만 1,488	4.8%	6.7%
멜번(Melbourne)	90만 940	88만 8,985	93만 6,073	5.3%	3.9%
브리스번(Brisbane)	58만 3,477	61만 1,606	61만 6,387	0.8%	5.6%
애들레이드(Adelaide)	54만 1,022	56만 2,656	57만 4,264	2.1%	6.1%
캔버라(Canberra)	78만 4,459	80만 4,120	85만 5,530	6.4%	9.1%
퍼스(Perth)	52만 9,783	54만 6,560	56만 3,214	3.0%	6.3%
호바트(Hobart)	50만 1,699	53만 1,594	56만 4,091	6.1%	12.4%
다윈(Darwin)	51만 5,213	52만 1,712	53만 3,845	2.3%	3.6%
전체(National)	80만 6,360	81만 9,112	85만 2,940	4.1%	5.8%

출처: DomainGroup. Domain House Price Report (2021)

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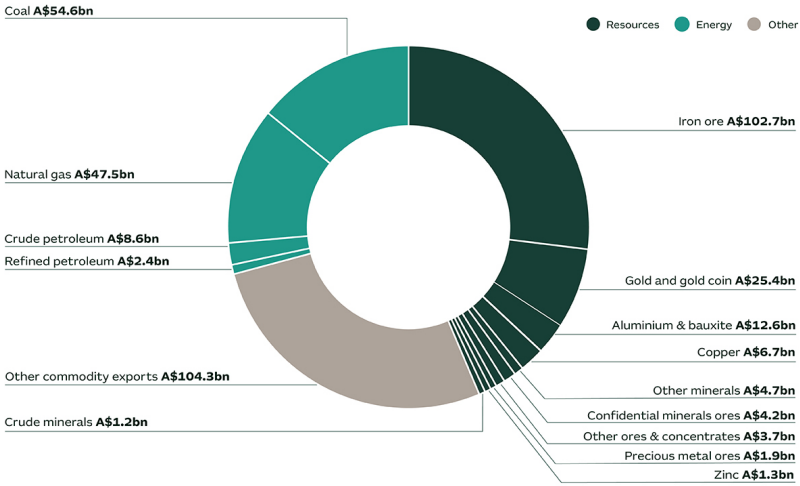
국토 총 면적이 한반도의 약 35배(7,686,850 평방km)에 이르는 호주는 주요 광산물 수출 국으로 OECD 국가 중 수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석탄 및 철광석 수출국이다. 호주는 세계적인 지하자원 매장국으로 석탄과 철광석 외에도 보크사이트, 동, 주석, 은, 우라늄(세계 EDR의 27% 차지, 세계 1위), 니켈, 텅스텐, 중사, 연, 아연, 다이아몬드등 대부분의 주요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국가이다.

호주 주요 자원 생산 및 수출 거점



석탄, 갈탄 및 우라늄 등 대부분의 천연 자원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 물류에 있어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호주 동부해안은 글로벌 석탄생산 및 제조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호주 자원 및 에너지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은 철광석이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과 천연가스가 뒤를 잇고 있다.

호주 자원 및 에너지 수출 (2019-2020)



출처 : Australia Benchmark Report (2021)

소매업

코로나 팬더믹의 충격으로 가계 소비지출이 둔화되며 소매업을 1차적으로 강타했다. 코로나 타격에 대한 회복기에 접어든 2021년에도 전년대비 1.6% 시장규모가 축소되며 소매업 전체의 회복에는 다소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시대 이-커머스(e-commerce)의 확산으로 지역의 소규모 소매업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역조건의 완화와 소규모 영세업체의 퇴출 등으로 소매업 전체의 이익률은 높아진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매업 주요 분야별 매출액 및 고용규모 추이

Industry	Total Revenue 2020 ($bn)	Annual Revenue Growth	Business Growth 2015-20	Employment Growth 2015-20
Consumer Goods Retailing	$150.0	-3.8%	-3.4%	-2.4%
Supermarkets and Grocery Stores	$121.6	2.4%	0.9%	1.7%
Motor Vehicle Dealers	$53.3	-5.6%	-4.2%	-4.1%
Fuel Retailing	$36.0	-0.8%	-1.3%	-0.8%
Hardware and Building Supplies Retailing	$23.0	-0.5%	-0.9%	-0.7%
Pharmacies	$22.1	2.8%	0.9%	1.7%
Department Stores	$18.6	-2.8%	-2.6%	-1.5%
Clothing Retailing	$18.4	1.0%	0.6%	0.8%
Liquor Retailing	$15.5	4.5%	1.1%	3.0%
Domestic Appliance Retailing	$14.7	-0.6%	-1.1%	-0.7%
Tobacco and Other Store-Based Retailing	$11.8	0.1%	-0.2%	-0.1%
Furniture Retailing	$7.5	-2.7%	-2.5%	-1.5%

출처 : IBISWorld (2021)

금융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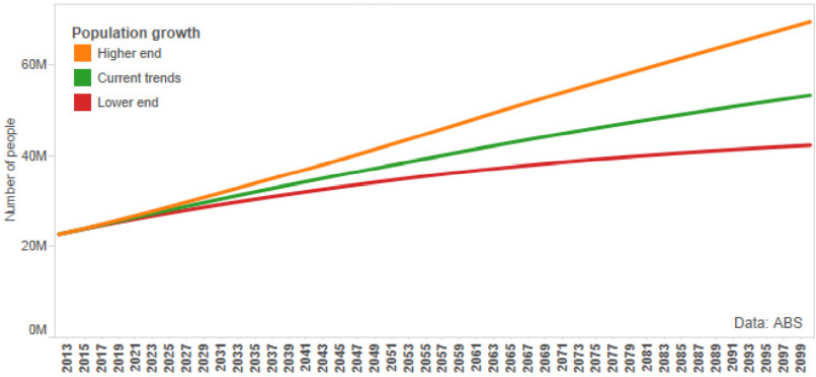
단일 산업규모로는 호주 최대 규모의 산업이며, 호주가 법으로 규정한 연금적립(Superannuation)시스템 덕에 세계에서 4번째로 큰 2조억 호주달러 규모의 펀드를 자랑한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기금과 높은 수준의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호주의 주요 은행들 덕분에 호주의 금융산업은 매우 발달할 수 있었다. 호주의 금융기업들은 호주 전체 시가총액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강력한 규제

없이도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며 성공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위험관리에 있어서 높은 수준으로 대비하고 있어 전체 호주 전체 산업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들어 주택시장의 호황으로 주택담보(Mortgage) 증권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우려되고는 있으나 타국과는 달리 부실채권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호주의 감독기관뿐만 아니라 은행 자체적으로 매우 엄격한 대출심사과정을 도입해 외부 충격에도 상당히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01. 인구구조

호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0년 후인 2075년 호주 인구는 현재 2,300만 명에서 4,600만 명으로 두 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인 멜버른은 해마다 9만 명의 거주자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교육도시이자 산업도시인 멜버른에 해마다 많은 해외 이민자 및 학생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호주 인구가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면서 평균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오는 2040년에는 65세 이상의 고연령 인구가 현재의 2배인 68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인구 추이 (2012 - 2100)



출처: 호주 통계청, ABC News

호주 정부는 역사적으로 부족한 노동인력 확보 및 세수기반 확보를 위해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로 인한 인구증가는 호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자국민 고용문제와 고령화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외국인 숙련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 취업비자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체비자를 내 놓는 등, 호주 국민과 그 일자리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맥도날드와 KFC 등 외국인 노동력을 선호하던 업체를 대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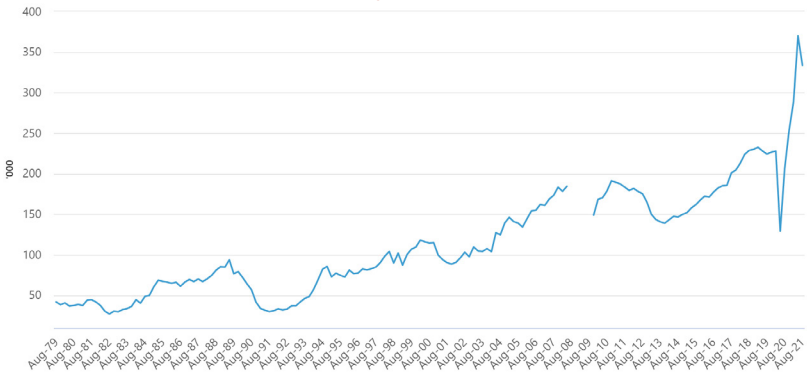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정책 등을 이어가면서 호주 내 외국인 정식취업은 전반적으로 점차 어려워질 분위기이다.
호주 정부는 자국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 준비 서비스 및 노동시장 훈련을 강화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실업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일반 청년을 위한 정책의 투 트랙 전략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장기실업자, 저학력자 등의 고용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3억 3천만 호주달러를 투입하는 청년고용전략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일자리 3단계 계획은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훈련 기회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에는 청년 고용 보너스를 제공하여 청년 고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창업 워크숍 실시와 온·오프라인 창업 정보 제공 확대, 창업 장려정책 확대, 창업 조력 특별지역 운영 등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청년 계층의 일자리 문제는 국가 여하를 막론하고 정책에서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자국민 청년 일자리 확보가 1순위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호주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가 전반의 높은 의존성으로 인해, 많은 인력 투입이 요구되는 서비스 분야의 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부족직무군에 대한 취업관련 비자의 문턱을 조금씩 낮춰가는 모습 또한 관찰할 수 있다.

02. 노동정책

호주는 넓은 국가면적 대비 극히 부족한 인구규모를 특징으로 한다. 자연스럽게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려 온 바 있다. 호주 정부는 부족한 노동인력 확보 및 세수기반 확보를 위해 이민과 해외인력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로 인한 인구증가는 호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자국민 고용 문제와 고령화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임시취업비자(TSS)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호주 국민과 그 일자리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맥도날드와 KFC 등 외국인 노동력을 선호하던 업체를 대상으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정책 등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2019년 전세계는 코로나 팬더믹을 맞이하게 되고, 실업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특별 실업보조금 제도(Job Seeker), 특별 고용보조금 제도(Job Keeper) 등을 통해 취업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전반의 침체는 소규모 업체들의 휴직 및 폐업으로 이어지고, 임시취업비자 인력의 대거 이탈로 인한 구인 공백(job vacancy)가 높아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구인 공백(job Vacancy)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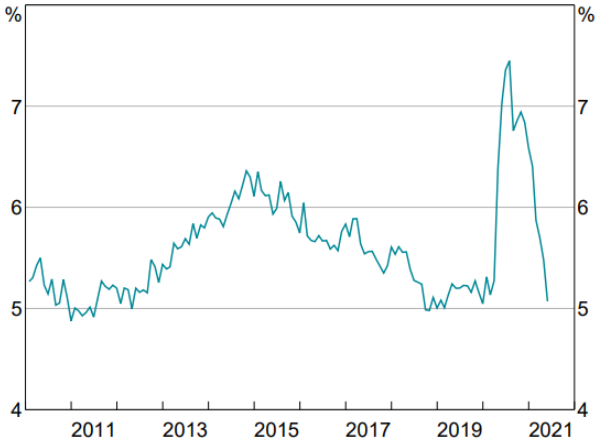


출처 : AB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1

03. 노동시장 동향

호주는 2019년까지 평균 6%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는 국가였으며, 2017년 이후 강력한 취업 장려정책을 통해 자국민의 실업률을 5% 수준까지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2020년 실업률이 7.5% 수준까지 치솟으며 특별 고용보조금 등의 고용지원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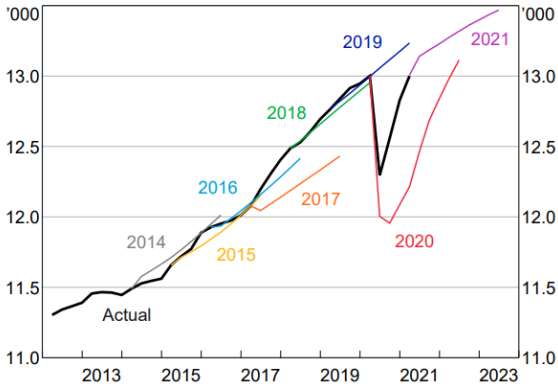
호주 실업율 및 시나리오 전망 (2021년 기준)



출처 : 호주중앙은행 (RBA), 계절성 효과 제거 후 월별 자료

2021년 이후 노동시장의 회복세는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다. 2020년 대비 2021년의 자국민 고용 규모가 250,000명 이상 증가하였고 2019년초의 실업률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시장의 회복세는 결국 코로나 팬더믹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해소되는가에 달려 있으며, 2021년말 기준 백신2차 접종율이 90% 이상 수준에 도달하면서 빠른 국경 개방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이후의 고용율에 대해서는 호주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어놓고 있다.

고용률 증가 추이 전망



출처 : ABS, RB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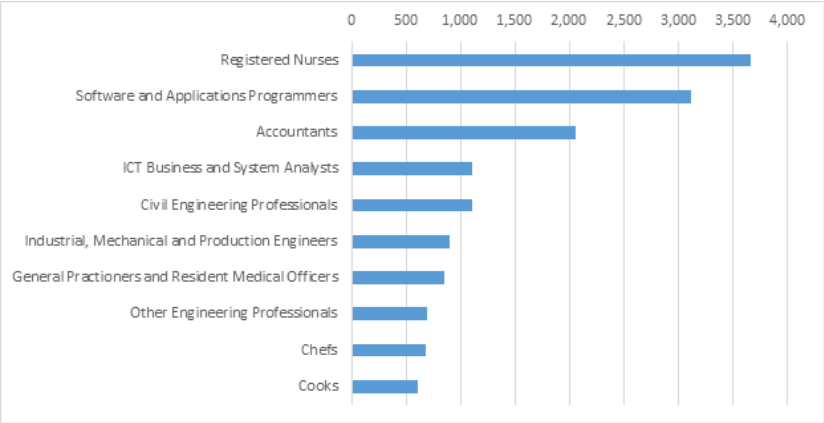
2020년 고용률이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고용률 회복세가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려되는 사항은 고용률의 회복 추세가 고임금 직무군이 아니라 저임금 직무군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대형 호텔 서비스, 소매 및 유통업, IT 및 전문 분야의 경기 회복 이후에 실질적 임금 인상이 수반되는 고용률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문 인력 비중 감소 및 기술인력 비중 증대

코로나 팬더믹에 따른 경기침체와 호주-중국 정치적 분쟁에 따른 광업 교역의 축소에 따라 광산·석유·광물 기술자, 치위생 전문가 등 전문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대로 의료지원 관련 종사자에 대한 수요는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 종료 이후에는 이러한 일시적 구인, 구직 수요의 변동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 이민 직업 순위(2021년 기준)



출처 : ABS(2021)

현재 호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업종은 간호사(registered nurse)로 2021년 기준 3,670명이 호주로 이민하였다. 2순위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연간 3,121명이 이민을 하였고, 이어지는 3순위는 회계사(2,065명)로 나타나고 있다. 이민 순위의 대부분은 ICT 전문가, 회계사 등 전문직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간호직종, 그리고 기계 정비 등의 전문직종이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 결국

호주에서는 전통적 광업 및 농수축 분야가 아닌 새로운 IT 및 기술직종의 구인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부족직업군 리스트 변동에 대한 정보파악 및 대처 필요

호주 부족직업군 리스트는 호주 정부가 인재 유입을 희망하는 직종으로 볼 수 있으며, 매년 회계연도 이전에 변경내역이 있는 경우 사전 발표되며, 7월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시부터 적용된다. 호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이러한 부족직업군에 대해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파악함으로써 자신이 속해 있는 직업군이 이에 속했는지 확인하고, 고용주 스폰서 비자 등 장기 취업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심사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부족직업군이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하여 비선호 지역에서 경력을 쌓거나 구인처로부터 스폰서십을 받는 등의 대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01. 개요

호주는 풀타임, 파트타임, 일용직 및 임시직, 견습생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 환경을 가지고 있다.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면 안정적인 직장을 기대할 수 있으나 계약직의 경우도 우리와는 달리 급여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업의 인력운용에 장점이 있는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구직자들도 자신의 상황이나 선호에 따라 직업선택이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호주는 산업별 단체 협약(호주에서는 Award로 표현함)에 의거,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으며, 피고용자의 급여가 해당 최저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급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급여는 2주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적인 근무 시간은 주당 38시간이다.
호주의 최저임금은 2021년 7월 기준 시간당 20.33 호주달러(주급 기준 772.60호주달러)로 이는 한국의 최저임금(2022년 9,160원)에 비해 약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체크포인트 – 호주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종류

1. Full-time job : 주 38시간의 법적 근로시간을 적용받으며, 한국의 정직원에 해당된다. 풀타임 직원은 법적휴가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같은 고용주 아래 최대 6개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케이스는 드문 편이다.
2. Part-time job :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만 일하며 주 20시간 이상 38시간 이하로 근무한다. 말 그대로 워킹타임 중 한 파트를 일하는 형태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다.
3. Casual job : 일용직 또는 임시직의 고용형태로 급여는 근무한 날짜와 시간에 의해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은 보장받지 못하며, 별다른 통보 없이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02.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이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소정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합리적인 경우 노동계약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와 함께 호주에서는 호주 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을 통해 고용인들에게 주어져야 할 최소 10개의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와 함께 모든 계약서(재정서, 고용계약서, 기업협정서 등)에 포함되어야 하며, 개별 계약 사항에서 예외로 적용될 수 없다.

체크포인트 - 호주 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① 최대 근무시간 준수 (Maximum weekly hours)

② 유연근로제도 요청 (Requests for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③ 육아휴가와 그와 관련한 혜택 (Parental leave and related entitlements)

④ 연간휴가 (Annual leave)

⑤ 간병휴가와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시 받는 특별휴가
(Personal carer's leave and compassionate leave)

⑥ 사회봉사 휴가 (Community service leave)

⑦ 장기근무 휴가 (Long service leave)

⑧ 공휴일 (Public holidays)

⑨ 퇴직서와 퇴직수당 (Notice of termination and redundancy pay)

⑩ Fair Work가 제공하는 정보 보고서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 캐주얼(Casual job) 고용인은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몇몇 주에서는 오래 일한 Casual 고용인들에게 장기근무 휴가가 주어질 수도 있다. 또한 최소 12개월 동안 정기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일을 한 Casual 고용인들에게는 추가로 유연근무제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육아휴가 등의 NES가 제공된다.

① 무급 간병휴가 (Unpaid carer's leave)

② 무급 특별휴가(unpaid compassionate leave)

③ 사회봉사 휴가 (Community service leave)

④ Fair Work가 제공하는 정보 보고서 (the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03. 최저임금 보장제도

호주의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는 국가 최저 임금을 검토하고 설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호주공정근로위원회의 최저임금 조사원단(Minimum Wage Panel)은 사실상의 최저임금 결정권을 행사하고, 최저임금을 책정하기 위한 연구 및 조사 작업은 최저임금조사국에서 시행한다. 그 결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조사단의 승인을 받는데, 이 조사단은 호주 상공회의소, 호주기업가협회, 호주사회봉사협회, 호주노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조사기간 중 민간 또는 단체로부터 어떠한 의견이든 수렴해야 하고 제출된 모든 의견은 제출자의 상업적 기밀사항이나 보호되어야 할 정보가 아닌 이상 연례보고서에 공시되어야 한다.
호주공정근로위원회의 최저임금조사원단(Minimum wage panel)은 매년 3월부터 최저임금을 재평가하며, 동 시간 최저임금 조정에 대하여 여러 단체, 기관 및 기업들로부터 제안서(submission)를 받아 이를 참고하여 6월 말경 심의를 종료하고, 새로운 최저임금을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호주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04.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2009년 제정 및 2017년 개정된 호주의 노동관련 기본법(Fair Work Act 2017)에는 근로에 관한 최소한의 조건과 기준이 되는 국가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NES)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 계약 또는 상훈의 조건에 의해 무시될 수 없는 최소 근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NES 상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3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초과 근무는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고용주와 직원이 서로 동의하여 진행하면 가능하다.

05. 휴일 및 휴가

호주는 연 4주(근무일 기준 20일)의 연례 휴가, 병가(Sick leave, 근무 1차 년도에는 년 5일, 그 이후부터는 년 12일),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13주의 장기 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 등이 있다. 주에 따라서 경조사 휴가(Bereavement Leave) 등을 의무화 하고 하다. 연례 휴가비(Annual leave loading)는 통상 임금의 17.5%를 휴가 전에 지급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남자에게도 자녀 출산 시 52주의 무급 휴가를 (원할 경우) 줄 수 있다.
2년의 출산 휴가 기간은 부모 모두의 휴가를 합산한 기간이며, 시행 방식은 부모 중 누가 사용하는가 와는 무관하게 총 2년으로 규정한다(예: 부 6개월, 모 1년 6개월).
본 정책 수혜자로서의 요건은 부모가 휴가 전 13개월 중 최소 10개월간 최저 330시간의 근무를 해야 하며, 출산 휴가 전 휴가기간은 최대 2개월로 제한, 수혜자의 연봉 상한선은 15만 호주달러로 정하고 있다. 새로운 출산 휴직 제도에 따라 영세 사업체는 최대 2년간 임시 고용인력 충원의 어려움 등으로 여성 고용 기피현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구인난의 심화로 성별 고용 차별 현상은 점차 해소되어 가는 추세이다.
호주는 영미권 국가와 마찬가지로 휴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비해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휴가 기간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비해 낮거나 무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가를 계획하기 전에 해당 항목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06. 퇴직 및 해고

고용 종결은 잉여 인력 발생, 사임, 해고 등 많은 사유로 발생한다. 고용인은 고용 관계 종결 시 모든 정산되지 않은 고용 권리를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미지불된 임금, 통지 수당 (payment in lieu of notice), 누적된 연차 및 장기근속 휴가 대체 지불금, 그리고 적용 가능한 잉여 인력 퇴직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경기침체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조정 단계에서는 잉여인력 퇴직금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사항이지만 고용주는 고용인을 가혹하고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방법으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고용인은

Fair Work Commission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원 신청서는 해고 후 21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라며 소기업에 대해서는 소기업 공정 해고 규약 (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을 포함하여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상담 사례에서는 21일 기준을 넘겨서 접수하여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관련 기관에 접수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접수 자체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07. 퇴직금제도

퇴직 연금(Superannuation)은 고용주 및 피고용자가 각각 일정액의 금액을 적립해 피고용자 퇴직 시 지급되며,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인 급여의 9.5% 이상 출연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퇴직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급여의 9.5% 이상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 급여보다는 더 많은 복지 혜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밖에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근로자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호주는 연금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고령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퇴를 앞둔 퇴직자들은 적어도 100,000 호주 달러, 많게는 500,000 호주 달러 이상 적립한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연금에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

08. 외국인 근로자담당(지원) 기관 현황

호주에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소위 워홀러들을 위한 워킹홀리데이 서포팅 센터(www.woholer.org.au)나 근로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고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공정 근로 옴부즈만(Fair Work Ombusman, www.fairwork.gov.au) 이외에 외국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근로자 담당 기관이나 지원기관을 찾아보기 어렵다.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직장 내 차별이나 부당한 근로

관련사건 사고의 경우 고용주에게 대단히 엄한 처벌이 외국인 여부와 상관없이 주어지므로, 특별히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 관련 담당/지원 기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한국인이라면 외교부의 영사콜센터(+82-2-2100-0404; 24시간 연중 무휴)를 통하여 근무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와 기타 문제들을 상담하고 대응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기관

지원기관	지원내용
외교부 영사콜센터 (Tel :+800 2100 0404)	• 24시간 해외 사건 사고에 대한 상담 및 대응 • 관공서 연락 및 악덕 고용주 신고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통역서비스
워킹홀리데이 서포팅센터 (www.woholer.org.au)	• 워홀러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구인·구직정보, 상담 등을 지원
Fair Work Ombudsman / Fair Work Commission (www.fairwork.gov.au)	• 급여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체불신고 후 권리구제 가능

09. 노동 분쟁 담당 기구 및 역할 소개

09 노동 분쟁 담당 기구 및 역할 소개

호주는 영국식의 강력한 산업별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 노사 분규가 잦고 규모가 큰 것이 특징으로, 호주의 노동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광산, 항만, 철도, 항공은 물론 중, 고교 등 교육자들의 파업도 빈번한 실정이다. 호주의 노동조합은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정권의 향배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노조 활동이 최대한 보장 되어 있다. 직장 단위 노조는 거의 결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산업별 노조의 협상력이 막 강하기 때문이며, 동일 직장 내의 산업별 노조 복수 가입도 인정되고 있다.

노조는 대표기구인 호주 노동조합 평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를 정점으로 45개의 산업별 노조가 있으며, 직장별 노조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을 하면서 생기는 갈등이나 부당함에 대해서는 우선 고용주와 대화로 해결하는 것

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호주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Fair Work Ombudsman은 Fair Work Act 2009에 의거하여 설립된 독립 법정 기관으로서, 호주의 직장들을 조화롭고 생산적이며 협동적인 곳이 되도록 장려할 책임을 지고 있다. Fair Work Ombudsman은 노사관계법 준수를 위해 직장 내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고용주와 고용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Fair Work Ombudsman에서 노사관계법을 위반한 고용주, 고용인, 그리고/또는 그 대표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Fair Work Commission는 Fair Work Act 2009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립 노사관계 재판소이며, 최저임금 및 고용 조건 안전망, 기업별 교섭, 노사 쟁의, 분쟁 해결, 고용 종결 및 기타 직장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독립 기구이다.

10. 노동법 관련 기타사항

호주 정부는 2008년 3월 27일 신 노동법(Fair Work Act 2009)을 공표함으로써 호주 근로자의 임금체계와 근로 조건이 대폭 개선되었다. 특히 출산 휴가 등 복지에 대한 부분은 전보다 근로자 보호의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이로써 지난 2006년 하워드 정부가 기업가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노동 선택법은 도입된 지 2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되었고, 2010년부터는 신 노동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다.
과거 노동 선택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 계약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 계약 체결 시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나 과거 노동 선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개별 근로 계약은 2012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근로 계약서 사전 승인제가 도입되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하는 개별 근로 계약 및 단체 계약은 노동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노동청은 계약서의 근로 조건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임금 체계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서 10대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10대 개선 과제는 최저 근로 시간 명문화, 학부모에 대한 변동 출퇴근 시간제 도입, 유급 출산 휴가제 도입, 연차 휴가 정비, 병간호 휴가제 도입, 지역 봉사 휴 가제 도입, 장기 근무 휴가제 도입, 공휴일제도 정비, 해고 수당 지급에 대한 명문화,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폐지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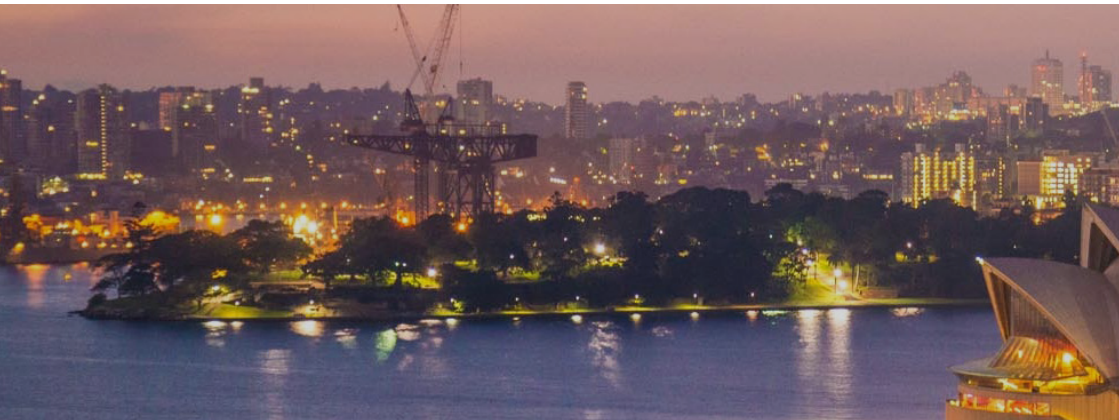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of Australia
ReInvent Your Career EXPO
CDAA
CDAA

01. 임금의 체계

호주의 임금은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 등 근로형태의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급여는 2주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 근무나 휴일 근무 등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풀타임과 파트타임은 근로 시간에 준하는 각종 휴가와 근로 수당을 보장받는 반면, 캐주얼은 일한 날짜와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게 된다. 하지만 캐쥬얼은 안정적이지 못한 근로계약에 대한 일종의 보상 수당, Casual loading에 의해 조금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02. 임금의 구성요소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특별임금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금은 임금인상이나 상여금, 퇴직금 등 다른 임금의 계산 시 기초가 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대체로 일정 기간마다 정액급(주급제,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된다. 수당으로는 직무관련 수당과 생활보조 수당, 인센티브 수당 등의 소정 내 임금(제수당)과 시간외 수당, 휴일 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매월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소정 외 임금(기준 외 임금)이 있다. 특별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자의 근무성적과 높은 성과에 따라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로 법적 지급의무는 없다. 퇴직 연금은 고용주 및 피고용자가 각각 일정액의 금액을 적립해 피고용자 퇴직 시 지급되며,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인 급여의 9.5% 이상 출연을 의무화하고 있다.



급여 형태

용어	계산방법
ORDINARY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 x 시간 당 급여
OT1.5	1.5배에 해당하는 연장 근무(Over time)시간x시간 당 급여 x 1.5
15% SHIFT	오후에 근무자는(After Shift) 평일(Day Shift)의 시간 당 급여에서 15% 할증
CRIBB	소급 적용된 잔여 시간 또는 연장 근무 시간 x 시간 당 급여
OT2.0	2배에 해당하는 연장 근무(Over time) x 시간 당 급여 x 2

체크포인트 – 급여명세서(Pay slip)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급여명세서(Pay slip)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고용주 정보(이름,ABN*)
- 피고용인 이름
- 임금 지급 대상 기간과 지급일
- 총액, 공제액(세금, 노조회비 등), 실 지급액, 시급
- 근무시간
- 연금 지금액 등

03. 임금 수준 현황

호주의 최저임금은 2021년 7월 기준 시간당 20.33 호주달러(주급 기준 772.60호주달러)로 이는 한국의 최저임금(2022년 9,160원)에 비해 약 두 배를 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호주의 표준 근로자의 주급 수준은 OT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1,798 호주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환율 847.69원 기준, 2021.11) 1,524,147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하는 최저임금 등 전반적인 급여 수준이 높기에 나타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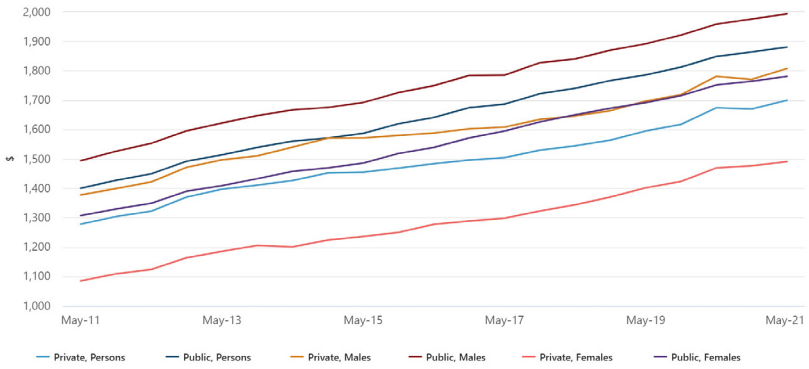
호주 표준 임금수준 (주급 기준, 2021)

근로 유형	주급 (호주달러)
풀타임 성인 정규 근무	1,737
풀타임 성인 총 근무	1,798
모든 근로자	1,305

출처 : ABS, 2021

지난 10년간의 급여수준의 추이를 살펴볼 때도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확인할 수 있어, 해외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급여 경쟁력 측면에서 호주가 가지는 장점에 대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주 급여수준 추이 (2011-2021)



출처 : ABS, 2021

04. 휴일근무수당

호주는 초과 근무나 휴일 근무 등에 대해서는 산업별 Award가 정하는 지급 체계에 따라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 초과 근무 3시간 까지 및 토요일 근무는 통상 임금의 1.5배(OT 1.5), 초과 근무 3시간 이상 및 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2배의 초과 근무 수당(OT 2.0)을 지급한다.

그러나 호주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공정근로위원회(FWC)는 관광업계의 경기 침체와 관련하여 관광업계와 요식, 소매 업계 종사자의 일요일과 공휴일 수당을 일정 부분 축소하기도 하였다. 수당 수준이 높아 사업주들의 일요일과 공휴일 영업 의지를 꺾어온 만큼 수당 인하를 통해 영업시간을 늘리고 일자리 확대도 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요일 수당의 경우 관광(hospitality)부문은 평일의 175%에서 150%로, 소매(retail)부문은 200%에서 150%로 각각 감소한 바 있다. 또 패스트푸드 부문은 150%에서 125%로 줄었다. 이에 노동계는 이러한 결정이 임금을 크게 줄인 것이고 고용 증가로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며 맬컴 턴불 총리의 개입을 요구하는 반면 사업주 단체는 인력을 늘려 주말 영업을 확대, 산업 전체를 키울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였다.

체크포인트 - 노사문제 사건사례:임금체불

워홀러 Q씨는 청소업체에서 주당 100시간을 근무하였다. 처음 면접 시 시간당 $15를 현금으로 지급받기(cash job)로 하였으나 고용주는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며 첫 2주치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그리고 Q씨가 추후에 회사에 끼칠 피해를 대비하여 1주치 임금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불유예 하겠다고 하였다.

Tip. 일을 시작하기 전,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일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고용주와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할 시, 관련 노동조합이나 Fair Work 규정에 의해 최저시급 약 $18과 휴일 근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고 연금 9.5%도 별도로 적립 가능하다.

체크포인트 -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방법

체류하는 주에 관계없이 아래내용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임금체불 해결 방법이다. 우선 고용주에게 정식서한으로 언제까지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래 방법대로 호주연방정부기관인 Fairwork Ombudsman으로 고발조치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된다.

> 기본적인 근무조건

- 호주최저임금은 시간당 A$18.29 또는 주당 A$695 (2016년 12월 기준)
  ※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은 차이가 있으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정해진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 (예, 18세 : 해당하는 성인 임금의 68.3%, 19세 : 82.5%, 20세 : 97.9%)
- 월급(A$450 이상)의 9.5%에 해당하는 연금(Super) 별도 지급
- 작업시간(fulltime): 1주에 38시간을 넘지 못하며 초과 시 이에 합당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하여야 함.

> 구제 신청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료

- 고용자 이름, 회사이름, 주소, 근무 기록(pay slip, 개인일지), 회사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 하청회사에서 일했을 경우: 원청회사 정보/일한 주소/같이 일한 동료 정보 등
- 회사 이름/ABN을 확인할 수 있는 Website : http://abr.business.gov.au/

> 임금 체불 해결 단계

- 1단계: 본인 스스로 고용주와 교섭으로 해결
- 2단계: 관련 노동조합에 체불 신고로 노동조합을 통한 해결
  ※ 관련업종 노동조합에 가입회원인 경우 노동조합에 찾아가 체불 신고와 관련자료 제출로 간단하게 해결 가능
- 3단계: Fair Work Ombudsman을 통한 해결
  ※ 호주 정부부서인 Fair Work Ombudsman 웹사이트(www.fwo.gov.au)에서 온라인 , 우편 접수 또는 지역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체불을 신고하고 해결하는 방법
- 연락처(이 경우 언어소통문제, 관련서류 준비, 개인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전화: 13 13 94(한국어통역 13 14 50)
  » 우편주소: Fair Work Ombudsman GPO Box 9887 In your capital city
- Fair Work Ombudsman을 통할 경우 본인이 계산한 체불 금액을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요구한 후 1주일 후에도 답장이 없거나 답장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진정서 접수가 가능함

> Fair Work Ombudsman를 통한 해결 처리 절차

- 고용기간 동안의 체불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7일이내의 답변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 혹은 발송(우편 발송 시 등기우편 사용)
- 보낸 편지의 답장이 없거나 답장내용에 동의 할 수 없으면 Fair Work Ombudsman에 체불 관계 구제 신청
- Fair Work Ombudsman에서는 체불 관계 구제 신청 사실을 고용주 혹은 고용인에게 통보하며 접수 내용 통보 후 90일 안에 해결되도록 노력
- 90일내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Fair Work Ombudsman에서는 고용주/고용인의 해결 노력 과정을 확인하게 되며 추후에 노동부 근로 감독관 실사가 실시되며 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밝혀지면 고용주는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됨.

자료원 :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http://whic.mofa.go.kr)

05 사회보장제도

01. 개요

호주는 세계의 선진국들 중에서 특히 우수한 사회복지제도를 제공하는 국가로 손꼽힌다. 잘 정비된 사회복지제도는 호주가 대표적인 이민국으로 자리 잡아 가는데 매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호주의 사회복지제도는 1901년 연방이 시작된 이래로 1910년 노령 연금 및 장애자 연금을 도입하였고 1912년에 인구증가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출산 수당을 도입하게 되면서 본격화되었다. 호주 주정부는 연간 국민 총생산고의 1/4 수준을 사회복지 및 보장제도에 책정하고 있다. 모든 수당은 연금의 형태가 아니라 수령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식을 띠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즉시 소득 지원이 가능하다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연금과 수당으로 구분된다. 연금제도는 고령자, 장애자, 미망인 등 일정 기준 이상으로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영주권자/시민권자에게 1주 당 연금을 정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수당제도는 저소득, 이주, 실업, 질병, 난민, 재해, 자녀교육, 학생들의 적절한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제도이다. 연금이나 수당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입과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지급된다.

이민자들이 사회보장혜택을 받으려면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특별수당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직업을 구할 능력이 없거나 정착 자금을 모두 소비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대신 호주에 입국한 이후에 배우자의 사망이나 불구가 된 경우와 유일한 부모가 된 경우에는 수당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과 지체부자유에 대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간 반드시 호주에서 체류해야 가능하다. 호주는 11개 국가와 국제사회보장혜택조약을 맺고 있는데 그 국가에 해당 될 경우에는 10년간 호주에서 체류를 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호주 사회보장 협정(2008) 이후 양국의 연금체계 운영의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호주 실무기관(ATO)에 제출하면 호주 퇴직연금보장보험료(SG)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호주 퇴직연금보장제도(SG)를 적용받는 사람이 파견 근로하는 경우, 호주에

서 “협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하면 한국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호주의 근로 거주기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협정을 통해 호주 근로거주기간을 합산함으로써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이러한 상호 협정을 통해 한국의 연금제도를 적용받거나 받았던 사람과 호주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였던 사람은 한국이나 호주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격 및 급여 지급에 관하여 상호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02. 의료보험

호주의 의료보험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어(Medicare)라는 의료보장제와 보험사업자에게 가입하는 개인보험(사설의료보험)이 있다. 사설의료보험의 대표적인 것으로 Medibank Private가 있다. Medicare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제도로 호주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면 나이, 수입,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Medicare 혜택은 국공립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 침대사용을 포함한 숙식비, 일반인의 치료 또는 담당일반의가 추천한 전문의의 치료비, 간호비, 치료에 필요한 약값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들은 1984년 2월 도입된 국민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현재 호주에서 약 650만 명 이상이 사설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사설의료보험에는 병원에 입원할 경우와 엑스트라 커버를 원할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임차료가 저렴한 편이나, 멜번의 기후환경이 좋지 않은 관계로 보온시설이 된 주택을 찾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드니보다 비싼 편이다.
기지불된 의료보험료에 대한 영수증과 의료보험 신청가입서를 작성하여 관련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의료보험 고유번호가 기재된 보험카드와 안내서가 송부되는데 지급받은 보험카드는 병원에 갈 때 꼭 지참해야 한다.
치료 후 진료비가 청구되면 먼저 지불하고 영수증과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현금이나 수표로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비자 만료 시까지 영수증을 통하여 환불이 가능하다.

체크포인트 – 병원진료사례 : 보험가입

워홀러 B군은 2015년 호주에 입국해서 빅토리아주의 워넘불이라는 곳에서 세컨비자를 따기 위해 육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새벽 B군은 숙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멜번의 병원으로 헬기 이송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두개골을 절제하고 뇌출혈 치료 수술을 받았다. 약 두 달 후에는 개봉된 상태이던 두개골을 봉합하는 2차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회복한 후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B군은 한국에서 호주로 올 때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기에 Work Cover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 병원비와 간호를 위해 호주에 입국한 부모님의 체류비 등은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되었다. B군이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던 병실은 하루 $4,300이 소요되는 집중치료실이었으며 전체 병원비는 약 12.5만 달러에 이렀다. B군은 빅토리아주 워홀러 상담원, 호주에 살고 계신 친척분들의 도움 및 각 교민단체 커뮤니티 등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으로 어느 정도 병원비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병원비 잔액은 약 8만 불에 달했다. B군은 앞으로 매월 일정액을 분납할 예정이다.

Tip.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호주의 의료제도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고 비용이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한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하거나 이를 염려하여 병을 키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사전에 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반드시 출국 전 가입

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경우, 출국 전 한국에서 가입해야 보험이 유효하며 호주 내에서는 국내 보험사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호주 현지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상당히 고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감기 등 간단한 진료의 경우에도 $70 이상의 진료비가 청구되며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1천 달러 이상이 청구된다.
- 보험료는 보장되는 한도에 따라 17만원~65만 원 정도의 수준이다.

> 병원 진료 시 이용방법

보험사에 따라 이용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개인이 진료비를 먼저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상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사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정하고 예약한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병원에 방문하기 전 미리 보험사에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있거나 위험한 운동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03. 연금보험

호주 연금 및 수당의 종류

구분		주요 내용
연금	퇴직연금	- 호주 연방정부 연금법(1992)에 따라 모든 고용주들은 적어도 분기별로 월 A$450 이상의 소득을 내는 피고용자들에 대해서는 연금을 적립하여 피고용자 퇴직 시 지급하여야 함. -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인 급여의 9.5% 이상 출연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기업 또는 고용주는 지불할 총 임금에서 세금과 연금을 해당 기관에 선납을 하고 그 나머지를 고용인에게 지불함. -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Worker's Compensation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노령연금	- 은퇴한 사람들과 일정 나이 이상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 자격: 남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인자, 여성인 경우 만 61세 이상인 자, 호주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하며 최소 5년 이상 연속적으로 호주에서 체류 하였고 총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장애 연금	- 자격: 남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인자, 호주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하며 최소 5년 이상 연속적으로 호주에서 체류 하였고 총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부양 연금	- 노령자, 장애인 혹은 재활수당을 받는 이를 집안에서 장기간 동안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
	편모·편부 연금	- 편모나 편부 혹은 배우자와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경우 지급. - 양육해야 할 아동이 최소 1명 이상이고 수혜자는 반드시 호주 거주자여야 함.
수당	가족 수당	- 자녀의 양육비용을 돕기 위해 격주로 지급되는 수당. - 대상은 16세부터 24세까지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금액은 수입 평가와 자산 평가를 통하여 결정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회보장연금 또는 재향 군인 관리국 퇴직군인 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수입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지급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출산 수당	- 호주에서 아이출산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족수당의 한 종류) - 조건을 만족할 경우 아이의 출생과 동시에 A$ 750의 출산수당을 지급. :신생아가 있을 경우, 아기의 출생 후 13주 동안 아이를 돌봐야 할 경우, 아기의 출생 후 13주 동안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청년 수당 (AUSTUDY, ABSTUDY)	- 학업중인 학생이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함. 영주권 취득 후 104주 이상 체류한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 단,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며 나이와 수입,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정함
	미망인 수당	-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편모 혹은 편부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 배우자 사망 이후 최대 12주 동안 지급되나 수혜자가 임신한 경우에는 연장가능.
	재활 수당	- 보건당국과 사회보장 재활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특별 수당	- 자신과 부양가족을 위해 충분한 소득이 없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 지급. - 수혜자는 다른 연금이나 수당을 받을 수 없음.
	질병 수당	- 16세 이상 64세 이하의 남성 혹은 16세 이상 59세 이하의 여성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가 있어야 하고, 의사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질병이나 부상이 노동과 관련된 경우 보상청구가 있어야 함.
	실업 수당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남성 혹은 18세 이상 59세 이하의 여성으로 일할 수 있고 일을 하려고 찾고 있으나 실업상태인 경우(수혜자는 연방취업공단에 등록을 해야 함.)
	취업 수당	- 16~17세의 젊은이로서 일 할 수 있고 일을 하려고 하고 일을 찾고 있으나 실업상태인 경우에 지급됨 (수혜자는 연방취업공단 CES에 등록을 해야 함.)

자료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주요국가별 취업정보백서

04. 산업재해보상보험

호주의 영리사업자는 피고용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각 주마다 WorkCover 혹은 WorkSafe라는 주정부 산업재해 보험사가 있어 근무 중 피고용인에게 발생한 상해 사건에 대한 보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고용주에 따라 주정부 보험사가 아닌 사립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퀸즈랜드 주의 "WorkCove Queensland"산재 보험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조건만 충족하게 되면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해가 발생했을 당시, 신청인이 피고용인이었는가?
·만일 그렇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해가 존재하는가?
·신청인의 상해가 고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가?

또한, 사고가 피고용인의 과실로 발생한 상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 보험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지 않으며 위의 3가지 조건만 충족하게 된다면 산업재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크포인트 - 호주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절차

① 사고 발생 시 가능한 빨리 고용주에게 알려, 상해 내역이 고용회사 사고기록에 남도록 한다.
② 고용주는 위 1번 내용을 인지한 이후로 48시간 이내에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③ 만일 상해로 인해 피고용인이 7일간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보험사는 다친 피고용인과 고용주, 필요시 의사에게 3일 안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④ 다친 피고용인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리는 클레임 양식을 작성하여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받은 클레임 양식을 7일 이내에 보험사에 전달해야 한다.
⑥ 보험사는 이를 28일 내에 수락 혹은 거절할 의무가 있다.
⑦ 만일 상해가 심각할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Personal Injury Plan"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주로 물리 치료 등 재활 치료가 제공된다.
⑧ 고용주는 다친 피고용인에게 적절한 업무를(Suitable Duties) 약 6개월 간 제공해야 한다.

체크포인트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사례

워홀러 R씨는 바나나 농장에서 수확작업을 하던 중 칼로 머리에 부상을 당해 이틀간 입원치료를 받고 본인이 병원비를 지불하였다.

Tip. 대부분의 고용주는 반드시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피고용인이 업무와 관련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Workcover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고용주에게 통보하고 고용주가 보험 신청을 통해 치료에 필요한 경비 및 일을 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ACT(캔버라) : www.workcover.act.gov.au/
- NT(다윈) : www.worksafe.act.nt.gov.au/
- SA(애들레이드) : www.safework.sa.gov.au/
- VIC(멜번) : www.worksafe.vic.gov.au/
- NSW(시드니) : www.workcover.nsw.gov.au/
- QLD(브리즈번) : www.worksafe.qld.gov.au/
- TAS(호바트) : www.workcover.tas.gov.au/
- WA(퍼스) : www.workcover.wa.gov.au/

05. 고용보험

호주의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은 고용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이 아니라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조세제도를 통해서 운영되는 사회보장급여에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의 사회보험제도는 호주 연방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사회복지급부제도이며, 이러한 급부제도는 센터링크(Centrelink)라는 정부기구에 의해서 관리된다.
실업수당은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청소년수당(Youth Allowance), 새출발수당(Newstart Allowance), 중고령자수당(Mature Age Allowance)로 나뉘어져 있다. 이 외에도 실업자는 집세보조금(Rent Assistance), 원거리수당(Remote Area Allowance) 등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 할인카드도 발급된다.

호주의 실업수당 종류

실업수당	수급대상
청소년수당(Youth Allowance)	18세 이상 20세 미만 실업자 18세 이상 24세 이하 전일제 학생
새출발수당(Newstart Allowance)	20세 이상 60세 미만 실업자
중고령자수당(Mature Age Allowance)	60세 이상 65세 미만 실업자 *65세 이상은 노령연금으로 자동 전환

실업자는 각 동네에 위치한 취업연계센터(Centerellink)에 실업여부를 신고한다. 신고 후 일주일이 지나면 수당을 지급하며, 2주마다 수급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대신 수급자는 2주마다 수당 지급 신청서와 지난 2주 동안 자신이 실행한 구직활동을 4개 이상 신고해야 한다.
수급자의 법정 실업수당은 남자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25%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되어 조절된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수급자의 재력조사(Mean Test)를 거쳐 해당되는 기준을 찾는다. 재력조사는 소득조사(Income Test)와 자산조사(Asset Test)로 나뉘는데, 둘 중 수급액이 적게 나오는 것을 적용한다. 전체 수급자 중 95%가 소득조사 결과를 적용받으며, 나머지 5%가 자사조사 결과를 적용받고 있다.

06. 직업훈련

호주의 대표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학위과정에는 한국의 폴리텍 대학과 유사한 Techi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이 있다. TAFE과정은 저렴한 비용으로 훌륭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호주 국민은 교육비가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주나 지역에 따라 단과대학이나 독립된 교육기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TAFE college라고 불리는 단과대학에서는 주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전공을 운영하는데, TAFE은 학사학위(Bachelor's degree)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을 딸 수도 있다. 2002년 이후 정식학위를 수요받을 수 있게 되어 Certificate I, Certificate II, Certificate III, Certificate IV, Diploma, Advanced Diploma, Graduate Certificate and Graduate Diploma qualifications와 같이 자격증부터 대학원 수준까지 다양한 학위과정을 통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임시취업비자(TSS)의 기술검사 과정에서는 Cert 3/4 수준의 훈련과정이 요건 충족 조건으로 활용되고 있다.

01. 소득세 개요

개인소득세는 임금·급여·수당·이자·배당·임대료 등 과세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고용주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기도 하고 개인이 연간세액을 분할납부할 수도 있다. 개인소득세 세율은 5개의 소득구간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의 적용되며, 대학 학자금 융자 상환액과 고령자 의료보험(medicare) 부과액이 부가되어 함께 징수된다는 특징이 있다.

02. 소득세율 및 세액

호주는 개인소득세율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호주의 주요 세수원이다. 소득구간별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별 소득 구간은 아래 표와 같다.

호주 개인소득세율 구간

소득구간(호주달러)	2013년	2014년	2015년
0-18,200	0%	32.5%	15%
18201-37,000	19%	15%	15%
37,001-87,000	32.5%	32.5%	32.5%
87,001-180,000	37%	15%	37%
180,001~	45%	32.5%	45%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워홀러 구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워홀러를 채용한 고용주는 호주 정부에 해당 사실을 등록해야 함.
※소득 금액에 따른 세율(2016/17 회계연도 기준)

자료원: 호주국세청

03. 신고 및 납부

급여소득자의 소득세는 회사가 매월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한다. 그러나 1년간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 소득세의 합계액은 해당 급여소득자가 1년간 납부해야 할 세액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에 종료되며, 이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7월 1일에서 10월 31일 사이에 세금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호주의 개인소득세액 계산과정

자료원: Commonwealth of Australia, Architecture of Australia's Tax and Transfer System, 2008.

한편, 호주 정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에게 호주달러 기준 연소득 3만7,000달러(한화 3,200만원 상당) 이하는 15%, 3만7,001~8만7,000달러는 32.5%의 소득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는 호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6년 12월1일 호주 하원 및 상원을 최종 통과한 데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호주달러 기준으로 기존 1만8,200달러 이하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게 되어 2만4,000 여명의 한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호주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수수료를 호주달러 기준 현행 440달러에서 390달러로 50달러 인하하고,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호주를 떠날 때 환불받는 연금(고용주 부담)에 부과하는 세율은 현행 약 40%에서 65%로 인상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그간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과 관련, 호주 정부 유력인사와의 고위급 접촉을 통해 우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한-호 청년 교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세율 인하를 위한 호주 정부의 협조를 요청해 온 바 있다.

체크포인트 - 일반 세금 환급

호주는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 기간 이후에 신고할 경우 벌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TFN을 발급받고 호주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신고해야 한다.(Non-lodgement advice)

> 세금 납부액 계산 방법

- '연간 총소득액 – 각종 경비'= 과세대상 소득
- 과세대상 소득 x 세율 = 납부할 세액
- 납부할 세액 > 원천징수한 세금인 경우 : 세금 추가 납부
- 납부할 세액 < 원천징수한 세금인 경우 : 세금 환급

> 귀국 전 세금 환급 처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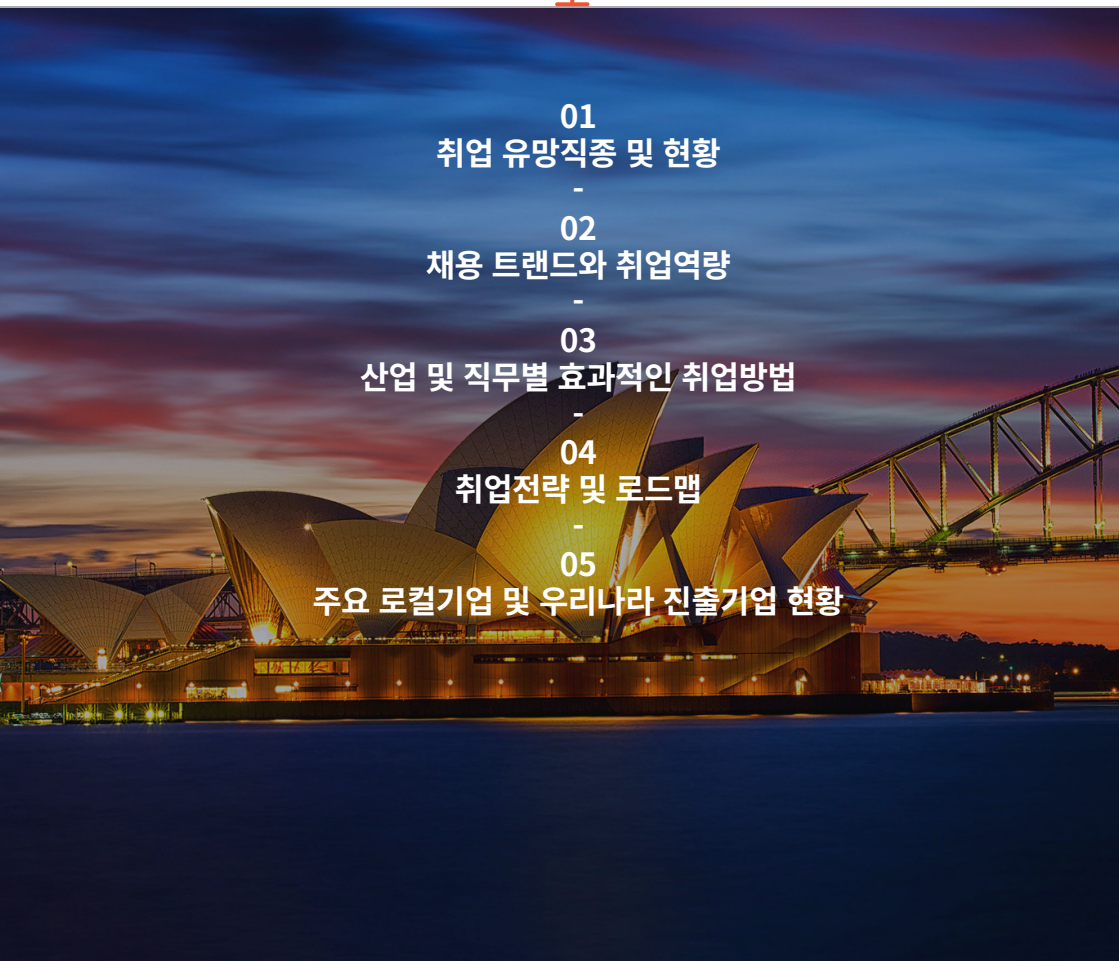
- 준비서류
  ①Pay Summary, Group Certificate 또는 마지막 Pay Slip
  ②비용 공제 관련 영수증
  ③환급 받을 계좌번호
  ④Medicare Levy 면제 신청서
  (http://www.humanservices.gov.au/customer/forms/ms015)
  ⑤여권 및 비자정보

- 신청방법
  - ATO 사무실 방문
  - 온라인 신청 : http://ato.gov.au/individuals/lodging-your-tax-return/lodge-online/
  - 회계사 이용 : 지역, 소득 구조 등에 따라 $75~$150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저렴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일부 회계사의 경우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할 것.

PART

02

산업 및 업종별 취업전략



01
취업 유망직종 및 현황
-
02
채용 트랜드와 취업역량
-
03
산업 및 직무별 효과적인 취업방법
-
04
취업전략 및 로드맵
-
05
주요 로컬기업 및 우리나라 진출기업 현황

01. 개요

호주정부는 평균 6% 수준의 비교적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주요 산업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력부족직군(단기 및 중기)에 대하여 꾸준히 해외인력의 취업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비자제도는 자국민 취업률 저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조처로 2017년 전면 개편되었으며, 현재까지 단기부족직군 등의 소폭의 수정을 제외하고 큰 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해외숙련인력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이른바 458 비자제도를 대체하는 임시취업비자(TSS; temporary skill shortage)는 해외인력의 취업이 긴요한 영역을 명확히 하고 해외취업비자의 취지를 뚜렷히 부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봉이 9만6,400 호주달러를 넘는 경우 면제되고 있던 영어 시험 면제조건도 폐지되어, 최소 아이엘츠 기준 5.0 수준(2년 유효)의 확보가 필수 요소가 되었다.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임시취업비자의 신청시에도 연령 조건을 4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다.

코로나 이후 국경봉쇄 등으로 임시취업비자의 적용대상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임시취업비자 접수는 36,330건이고 그 중 승인은 28,410건이었는데, 2021년의 경우 접수 27,190건, 승인 23,160건으로 전년대비 1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0년 임시취업비자(TSS)를 소지한 해외취업인력이 71,400명에서 2021년 55,030명으로 22.9% 감소한 상황이다.

해외취업의 경우 처음부터 영주권을 목표로 할 가능성은 낮고, 초기 단계에서 임시취

업비자(TSS)와 워킹홀리데이비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임시취업비자 내 최소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직무군과 기술검사항목 등을 수시로 살펴보고 확인해야 한다.
호주 내에서 통용되는 직무군에 대한 용어가 익숙치 않은 경우 현지의 이민 전문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의 연락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및 준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많은 젊은이들이 무턱대고 워킹홀리데이에 뛰어들어서, 세컨비자까지 다 소진한 이후에 그 동안의 경력이 임시취업비자(TSS) 발급 요건에 해당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예상외로 많다. 이러한 경우에 호주취업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귀국 후 우리나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다시 쌓아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

02. 취업통계자료

호주 내 총 취업인원은 1,283만명 수준이며(2021년 기준), 실업은 70만 명 수준이다. 실업률은 2020년 7% 수준에서 2021년 5.2%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예년의 수준을 되찾고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4.7% 수준으로 선진국 상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호주 취업통계 종합

취업 인원	12,835,200 명
실업 인원	707,300 명
실업률	5.2%
불완전 취업율	9.5%
경제활동 참가율	64.7%
총근로 시간	1,727 백만 시간

출처 : ABS, 2021

최근 호주 내에서 가장 구인난이 심한 직무군은 의료보건과 사회복지 분야이며, 전체 구인 수요 중 50% 이상의 일자리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지출 둔화로 폐점 및 휴업이 이어졌던 소매유통업이 다시 살아나면서 해당 영역의 일자리

수요도 다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이후 코로나 사태 완화 단계에서는 산업 전반에서의 일자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별 인력 부족(job Vacancy) 추이

산업 분야	2020 (5월)	2020 (8월)	2020 (11월)	2021 (2월)	2021 (5월)	2021 (8월)
Mining	4.3	5.6	6.3	7.5	8.3	8.4
Manufacturing	7.0	13.5	15.3	16.6	20.7	23.2
Electricity, gas, water and waste services	1.6	1.9	2.2	2.7	3.0	3.0
Construction	8.3	15.9	17.9	26.7	29.9	23.2
Wholesale trade	6.5	9.9	13.4	14.0	17.8	14.4
Retail trade	11.4	18.5	25.7	24.9	34.3	33.6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5	13.5	22.4	27.6	38.2	27.6
Transport, postal and warehousing	3.3	5.5	6.6	9.3	10.6	11.5
Information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2.0	2.4	2.7	3.8	3.7	3.5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7.8	12.3	12.8	14.7	17.9	15.8
Rental, hiring and real estate services	1.0	3.6	4.4	4.6	7.8	5.8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13.1	23.5	27.0	31.2	31.9	31.7
Administrative and support services	17.5	24.2	26.8	28.6	35.2	36.8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	8.6	13.4	16.7	15.0	17.2	17.5
Education and training	3.6	6.4	6.7	8.5	10.5	9.8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19.7	28.4	37.7	39.1	47.7	51.2
Arts and recreation services	0.1	1.2	4.0	2.6	5.4	3.9
Other services	3.6	8.3	10.6	13.6	15.4	16.0

출처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Job Vacancies, Australia August 2021

최근 취업률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산업분야는 농수축산업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국경봉쇄와 중국과의 무역마찰 등으로 1차산업 전반의 타격이 심각했으며, 최근 많이 복구되고 있지만 2020년의 극심한 가뭄 및 산불 등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호텔 숙박업은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으로 13% 수준의 취업률 저하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가 활동의 영역인 예술 및 레저영역의 취업률도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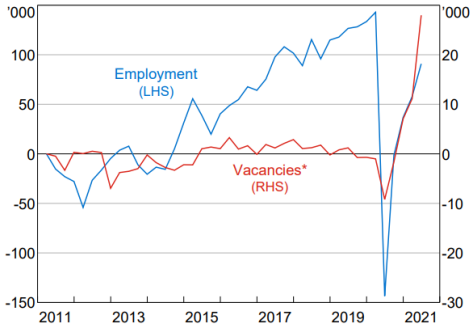
산업분야별 취업률 추이

산업 분야	취업율 변화 (2020-2021)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8.2
Mining	10.9
Manufacturing	4.5
Electricity, gas, water and waste services	6.3
Construction	-5.9
Wholesale trade	-8.1
Retail trade	-4.2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13.8
Transport, postal and warehousing	-4.8
Information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12.8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9.2
Rental, hiring and real estate services	7.4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1.8
Administrative and support services	-8.3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	6.8
Education and training	2.7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4.4
Arts and recreation services	-19.8
Other services	7.9

출처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Job Vacancies, Australia August 2021

해외인력이 워킹홀리데이와 임시취업비자를 통해 가장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호텔, 숙박 및 음식서비스 분야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 급격한 취업규모의 감소가 나타났으나,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국경봉쇄가 완화되면서 소비심리의 개선 등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지에서는 개점을 하고 싶어도 현장의 일손이 부족하여 개점을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온다.

취업 및 구인공백 (숙박 및 음식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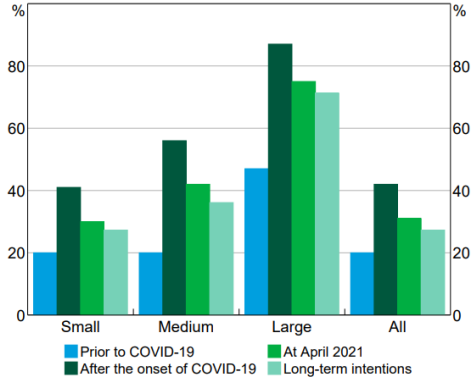


출처 : ABS, RBA

코로나 사태가 야기한 또 다른 일자리 풍경의 변화는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장에서의 고객 응대 업무가 아닌 전문업과 사무업무의 경우 코로나 상황 중 80% 이상의 재택근무 비율을 나타내었으며(대기업 기준), 코로나 사태 개선 이후에도 70% 이상의 직무에 대해 재택근무를 지속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풍경의 변화는 호주 취업을 준비하는 지원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직무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점검을 요하는 사항이다. 호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재택근무 형태의 원격근무 방식에 대해 익숙해 지고, 자신만의 강점을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재택 및 원격근무 현황(2021)



출처 : ABS, 2021

03. 취업 유망분야

호주 산업인력 기술 위원회(Skills Australia)에서 제시하는 호주 부족직업군 리스트는 호주 정부가 인재 유입을 희망하는 직종으로 볼 수 있으며, 매년 회계연도 이전에 변경 내역이 있는 경우 사전 발표되며, 7월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시부터 적용된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비자 관련한 사항이 수시로 변경되고 이에 대한 정보가 불시에 제공되고 있기에 호주 취업에 대해서는 호주의 비자 관련 뉴스 및 현지의 네트워크 동향 등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1년 하반기 현재 기준으로 일부 직군 리스트의 변동 외에는 전년도까지의 비자 관련 사항에서 큰 폭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호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이러한 부족직업군에 대해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파악함으로써 자신이 속해 있는 직업군이 이에 속했는지 확인하고, 고용주 스폰서 비자 등 장기 취업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심사 등을 준비해야 한다.

아래 표는 2019년 수정된 MTSSL(중기부족직군)의 모든 직무를 포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기부족직군의 경우 고용주의 스폰서와 각 직무별 기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MLTSSL) (2019)

	직무군 (Occcupation)	ANZSO Code		직무군 (Occcupation)	ANZSO Code
1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133111	107	thoracic medicine specialist	133111
2	engineering manager	133211	108	specialist physicians (nec)	133211
3	child care centre manager	134111	109	psychiatrist	134111
4	nursing clinical director	134212	110	surgeon (general)	134212
5	primary health organisation manager	134213	111	cardiothoracic surgeon	134213
6	welfare centre manager	134214	112	neurosurgeon	134214
7	arts administrator or manager	139911	113	orthopaedic surgeon	139911
8	environmental manager	139912	114	otorhinolaryngologist	139912
9	dancer or choreographer	211112	115	paediatric surgeon	211112
10	music director	211212	116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	211212
11	musician (instrumental)	211213	117	urologist	211213
12	artistic director	212111	118	vascular surgeon	212111
13	accountant (general)	221111	119	dermatologist	221111
14	management accountant	221112	120	emergency medicine specialist	221112

	직무군 (Occcupation)	ANZSO Code		직무군 (Occcupation)	ANZSO Code
15	taxation accountant	221113	121	obstetrician and gynaecologist	221113
16	external auditor	221213	122	ophthalmologist	221213
17	internal auditor	221214	123	pathologist	221214
18	actuary	224111	124	diagnostic and interventional radiologist	224111
19	statistician	224113	125	radiation oncologist	224113
20	economist	224311	126	medical practitioners (nec)	224311
21	land economist	224511	127	midwife	224511
22	valuer	224512	128	nurse practitioner	224512
23	management consultant	224711	129	registered nurse (aged care)	224711
24	architect	232111	130	registered nurse (child and family health)	232111
25	landscape architect	232112	131	registered nurse (community health)	232112
26	surveyor	232212	132	registered nurse (critical care and emergency)	232212
27	cartographer	232213	133	registered nurse (developmental disability)	232213
28	other spatial scientist	232214	134	registered nurse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32214
29	chemical engineer	233111	135	registered nurse (medical)	233111
30	materials engineer	233112	136	registered nurse (medical practice)	233112
31	civil engineer	233211	137	registered nurse (mental health)	233211
32	geotechnical engineer	233212	138	registered nurse (perioperative)	233212
33	quantity surveyor	233213	139	registered nurse (surgical)	233213
34	structural engineer	233214	140	registered nurse (paediatrics)	233214
35	transport engineer	233215	141	registered nurses (nec)	233215
36	electrical engineer	233311	142	ICT business analyst	233311
37	electronics engineer	233411	143	systems analyst	233411
38	industrial engineer	233511	144	multimedia specialist	233511
39	mechanical engineer	233512	145	analyst programmer	233512
40	production or plant engineer	233513	146	developer programmer	233513
41	mining engineer (excluding petroleum)	233611	147	software engineer	233611
42	petroleum engineer	233612	148	software and applications programmers (nec)	233612

	직무군 (Occcupation)	ANZSO Code		직무군 (Occcupation)	ANZSO Code
43	aeronautical engineer	233911	149	ICT security specialist	233911
44	agricultural engineer	233912	150	computer network and systems engineer	233912
45	biomedical engineer	233913	151	telecommunications engineer	233913
46	engineering technologist	233914	152	telecommunications network engineer	233914
47	environmental engineer	233915	153	barrister	233915
48	naval architect	233916	154	solicitor	233916
49	engineering professionals (nec)	233999	155	clinical psychologist	233999
50	agricultural consultant	234111	156	educational psychologist	234111
51	agricultural scientist	234112	157	organisational psychologist	234112
52	forester	234113	158	psychologists (nec)	234113
53	chemist	234211	159	social worker	234211
54	food technologist	234212	160	civil engineering draftsperson	234212
55	environmental consultant	234312	161	civil engineering technician	234312
56	environmental research scientist	234313	162	electrical engineering draftsperson	234313
57	environmental scientist (nec)	234399	163	electrical engineering technician	234399
58	geophysicist	234412	164	radio communications technician	234412
59	hydrogeologist	234413	165	telecommunications field engineer	234413
60	life scientist (general)	234511	166	telecommunications network planner	234511
61	biochemist	234513	167	telecommunications technical officer or technologist	234513
62	biotechnologist	234514	168	automotive electrician	234514
63	botanist	234515	169	motor mechanic (general)	234515
64	marine biologist	234516	170	diesel motor mechanic	234516
65	microbiologist	234517	171	motorcycle mechanic	234517
66	zoologist	234518	172	small engine mechanic	234518
67	life scientists (nec)	234599	173	sheetmetal trades worker	234599
68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234611	174	metal fabricator	234611
69	veterinarian	234711	175	pressure welder	234711
70	conservator	234911	176	welder (first class)	234911
71	metallurgist	234912	177	fitter (general)	234912
72	meteorologist	234913	178	fitter and turner	234913

	직무군 (Occcupation)	ANZSO Code		직무군 (Occcupation)	ANZSO Code
73	physicist	234914	179	fitter-welder	234914
74	natural and physical science professionals (nec)	234999	180	metal machinist (first class)	234999
75	early childhood (pre-primary school) teacher	241111	181	locksmith	241111
76	secondary school teacher	241411	182	panelbeater	241411
77	special needs teacher	241511	183	bricklayer	241511
78	teacher of the hearing impaired	241512	184	stonemason	241512
79	teacher of the sight impaired	241513	185	carpenter and joiner	241513
80	special education teachers (nec)	241599	186	carpenter	241599
81	university lecturer	242111	187	joiner	242111
82	medical diagnostic radiographer	251211	188	painting trades worker	251211
83	medical radiation therapist	251212	189	glazier	251212
84	nuclear medicine technologist	251213	190	fibrous plasterer	251213
85	sonographer	251214	191	solid plasterer	251214
86	optometrist	251411	192	wall and floor tiler	251411
87	orthotist or prosthetist	251912	193	plumber (general)	251912
88	chiropractor	252111	194	airconditioning and mechanical services plumber	252111
89	osteopath	252112	195	drainer	252112
90	occupational therapist	252411	196	gasfitter	252411
91	physiotherapist	252511	197	roof plumber	252511
92	podiatrist	252611	198	electrician (general)	252611
93	audiologist	252711	199	electrician (special class)	252711
94	speech pathologist	252712	200	lift mechanic	252712
95	general practitioner	253111	201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mechanic	253111
96	specialist physician (general medicine)	253311	202	technical cable jointer	253311
97	cardiologist	253312	203	electronic equipment trades worker	253312
98	clinical haematologist	253313	204	electronic instrument trades worker (general)	253313
99	medical oncologist	253314	205	electronic instrument trades worker (special class)	253314
100	endocrinologist	253315	206	chef	253315

	직무군 (Occcupation)	ANZSO Code		직무군 (Occcupation)	ANZSO Code
101	gastroenterologist	253316	207	horse trainer	253316
102	intensive care specialist	253317	208	cabinetmaker	253317
103	neurologist	253318	209	boat builder and repairer	253318
104	paediatrician	253321	210	shipwright	253321
105	renal medicine specialist	253322	211	tennis coach	253322
106	rheumatologist	253323	212	footballer	253323

다음은 2019년 개정된 호주의 단기부족직군(SSOL) 리스트이며, 매년도 7월을 기준으로 변경이 이루어지기에 항상 취업을 계획하는 직무군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9년 리스트는 기존에 비해 약 40여개의 직무가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SSOL) (2019)

	직무	ANZCO code		직무	ANZCO code
1	flower grower	121212	107	nurse researcher	254212
2	grape grower	121215	108	nurse manager	254311
3	vegetable grower (Aus) / market gardener (NZ)	121221	109	web developer	261212
4	apiarist	121311	110	software tester	261314
5	poultry farmer	121321	111	database administrator	262111
6	sales and marketing manager	131112	112	systems administrator	262113
7	advertising manager	131113	113	network administrator	263112
8	corporate services manager	132111	114	network analyst	263113
9	finance manager	132211	115	ICT quality assurance engineer	263211
10	human resource manager	132311	116	ICT support engineer	263212
11	research and development manager	132511	117	ICT systems test engineer	263213
12	manufacturer	133411	118	ICT support and test engineers (nec)	263299
13	production manager (forestry)	133511	119	judicial and other legal professionals (nec)	271299
14	production manager (manufacturing)	133512	120	careers counsellor	272111
15	production manager (mining)	133513	121	drug and alcohol counsellor	272112
16	supply and distribution manager	133611	122	family and marriage counsellor	272113

	직무	ANZCO code		직무	ANZCO code
17	health and welfare services managers (nec)	134299	123	rehabilitation counsellor	272114
18	school principal	134311	124	student counsellor	272115
19	education managers (nec)	134499	125	counsellors (nec)	272199
20	ICT project manager	135112	126	psychotherapist	272314
21	ICT managers (nec)	135199	127	interpreter	272412
22	laboratory manager	139913	128	social professionals (nec)	272499
23	quality assurance manager	139914	129	recreation officer	272612
24	specialist managers (nec) except:	139999	130	welfare worker	272613
	(a) ambassador; or		131	anaesthetic technician	311211
	(b) archbishop; or		132	cardiac technician	311212
	(c) bishop		133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311213
25	cafe or restaurant manager	141111	134	pharmacy technician	311215
26	hotel or motel manager	141311	135	medical technicians (nec)	311299
27	accommodation and hospitality managers (nec)	141999	136	meat inspector	311312
28	customer service manager	149212	137	primary products inspectors (nec)	311399
29	conference and event organiser	149311	138	chemistry technician	311411
30	transport company manager	149413	139	earth science technician	311412
31	facilities manager	149913	140	life science technician	311413
32	music professionals (nec)	211299	141	science technicians (nec)	311499
33	photographer	211311	142	architectural draftsperson	312111
34	book or script editor	212212	143	building inspector	312113
35	director (film, television, radio or stage)	212312	144	architectural, building and surveying technicians (nec)	312199
36	film and video editor	212314	145	mechanical engineering technician	312512
37	program director (television or radio)	212315	146	metallurgical or materials technician	312912
38	stage manager	212316	147	mine deputy	312913
39	technical director	212317	148	hardware technician	313111
40	video producer	212318	149	ICT customer support officer	313112
41	copywriter	212411	150	web administrator	313113
42	newspaper or periodical editor	212412	151	ICT support technicians (nec)	313199
43	print journalist	212413	152	farrier	322113

	직무	ANZCO code		직무	ANZCO code
44	technical writer	212415	153	aircraft maintenance engineer (avionics)	323111
45	television journalist	212416	154	aircraft maintenance engineer (mechanical)	323112
46	journalists and other writers (nec)	212499	155	aircraft maintenance engineer (structures)	323113
47	company secretary	221211	156	metal fitters and machinists (nec)	323299
48	commodities trader	222111	157	precision instrument maker and repairer	323314
49	finance broker	222112	158	toolmaker	323412
50	insurance broker	222113	159	vehicle body builder	324211
51	financial brokers (nec)	222199	160	vehicle trimmer	324212
52	financial market dealer	222211	161	roof tiler	333311
53	stockbroking dealer	222213	162	business machine mechanic	342311
54	financial dealers (nec)	222299	163	cabler (data and telecommunications)	342411
55	financial investment adviser	222311	164	telecommunications linesworker	342413
56	financial investment manager	222312	165	baker	351111
57	recruitment consultant	223112	166	pastrycook	351112
58	ICT trainer	223211	167	butcher or smallgoods maker	351211
59	mathematician	224112	168	cook	351411
60	gallery or museum curator	224212	169	dog handler or trainer	361111
61	health information manager	224213	170	animal attendants and trainers (nec)	361199
62	records manager	224214	171	veterinary nurse	361311
63	librarian	224611	172	florist	362111
64	organisation and methods analyst	224712	173	gardener (general)	362211
65	patents examiner	224914	174	arborist	362212
66	information and organisation professionals (nec)	224999	175	landscape gardener	362213
67	advertising specialist	225111	176	greenkeeper	362311
68	marketing specialist	225113	177	hairdresser	391111
69	ICT account manager	225211	178	print finisher	392111
70	ICT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225212	179	printing machinist	392311
71	ICT sales representative	225213	180	dressmaker or tailor	393213

	직무	ANZCO code		직무	ANZCO code
72	public relations professional	225311	181	upholsterer	393311
73	technical sales representatives (nec) including education sales representatives	225499	182	furniture finisher	394211
74	fashion designer	232311	183	wood machinist	394213
75	industrial designer	232312	184	wood machinists and other wood trades workers (nec)	394299
76	jewellery designer	232313	185	power generation plant operator	399213
77	graphic designer	232411	186	jeweller	399411
78	illustrator	232412	187	camera operator (film, television or video)	399512
79	web designer	232414	188	make up artist	399514
80	interior designer	232511	189	sound technician	399516
81	urban and regional planner	232611	190	performing arts technicians (nec)	399599
82	geologist	234411	191	signwriter	399611
83	primary school teacher	241213	192	ambulance officer	411111
84	middle school teacher (Aus) / intermediate school teacher (NZ)	241311	193	intensive care ambulance paramedic	411112
85	education adviser	249111	194	dental technician	411213
86	art teacher (private tuition)	249211	195	diversional therapist	411311
87	dance teacher (private tuition)	249212	196	enrolled nurse	411411
88	music teacher (private tuition)	249214	197	massage therapist	411611
89	private tutors and teachers (nec)	249299	198	community worker	411711
90	teacher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249311	199	disabilities services officer	411712
91	dietitian	251111	200	family support worker	411713
92	nutritionist	251112	201	residential care officer	411715
93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dviser	251312	202	youth worker	411716
94	orthoptist	251412	203	diving instructor (open water)	452311
95	hospital pharmacist	251511	204	gymnastics coach or instructor	452312
96	industrial pharmacist	251512	205	horse riding coach or instructor	452313
97	retail pharmacist	251513	206	snowsport instructor	452314
98	health promotion officer	251911	207	swimming coach or instructor	452315

	직무	ANZCO code		직무	ANZCO code
99	health diagnostic and promotion professionals (nec)	251999	208	other sports coach or instructor	452317
100	acupuncturist	252211	209	sports development officer	452321
101	naturopath	252213	210	sportspersons (nec)	452499
102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ractitioner	252214	211	contract administrator	511111
103	complementary health therapists (nec)	252299	212	program or project administrator	511112
104	dental specialist	252311	213	insurance loss adjuster	599612
105	resident medical officer	253112	214	insurance agent	611211
106	nurse educator	254211	215	retail buyer	639211

이상의 직업군들은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가장 현실성이 높은 직무군이며, 향후 4년 이상의 직무 경험 및 영주권까지의 경력 목표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중기부족직군(MTSSL)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으며, 짧은 경력단계 이후의 경력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기부족직군을 통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취업시장에 접근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러한 부족직업군 목록과 시드니 K-Move센터의 구직희망자 현황, 기존의 호주 내 취업자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 이후의 호주 내 한국인 구직자의 취업유망분야는 다음과 같다. 물론, 여기에 제시된 리스트는 가장 대표적인 직무를 소개하는 것이며, 세상의 많은 기회를 꿈꾸는 청년들은 이에 연연할 필요 없이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기를 기원한다.

호주취업 유망직종 리스트

연번	유망 직종
1	간호사
2	요리사
3	자동차 관련 정비
4	IT 전문가 및 엔지니어
5	사회복지 종사자

01. 간호사

호주 내에서 간호사는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적인 기회 면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간호사로서의 사회적 인지도, 연봉, 직업 만족도 및 성취도가 상당히 높은 직군으로 분류된다. 특히, 외국인 간호사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크게 부족하여 충분한 경력이 있는 영어가 능숙한 한국인 구직자라면 비교적 용이하게 취업할 수 있다.

만약 호주 유학생이라면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학과에 진학하면 되는데, 학생들이 호주 RN(Registered Nurse)을 취득하게 하는 목적을 가진 학과이며 2년 이상의 학사학위를 수료했을 경우 졸업생 비자(2~4년)를 신청할 수 있다.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 다양한 호주의 Health Care System에 취업 후 경력을 쌓거나 석사 과정 진학 또는 Special 과정을 수료한 뒤에 기술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기술 심사 후 나이, 영어점수, 학력 등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은, 환자 및 의료진과의 원활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직업이므로 탁월한 영어실력이 영어점수와는 별개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간호사는 중기부족직군과 단기부족직군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가 대표적인 간호사로 이해하고 있는 RN(registered nurse)은 중기부족직군에 포함되어 있다. 간호사 자격증을 확보한 경우에는 영주권 심사에 큰 장점을 가진 것이기에 임시취업비자가 아닌 영주권 또는 이민을 목표로 해외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단, 한국에서의 학력 및 경력이 없다면, 호주 현지에서 최소한의 학업 과정을 통해 학력 및 자격증 획득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가 존재한다.

호주 이민 직군 순위 (2021년 기준)

이민 직군	명
Registered Nurses	3,670
Software and Applications Programmers	3,121
Accountants	2,065
ICT Business and System Analysts	1,108
Civil Engineering Professionals	1,106
Industrial, Mechanical and Production Engineers	907
General Practioners and Resident Medical Officers	852
Other Engineering Professionals	699
Chefs	679
Cooks	610

간호사 구인공고 사례

Registered Nurse Featured

Aura Lifestyle Supports PTY LTD

Brisbane > Northern Suburbs

$50 - $64.99 per hour

Healthcare & Medical > Nursing - Aged Care

- Caring Home Environment with a team approach
- Full access to support and guidance
- Establish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and young woman

Experienced Registered Nurse to Support a young woman who lives with her family.
Overnight shifts - above Nurses Award Rates, Dayboro Region

☆ Save

Employer ques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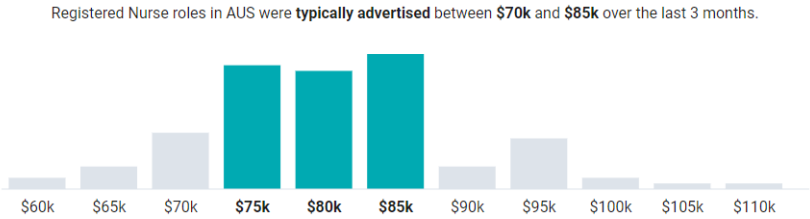
Your application will include the following questions:

-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best describes your Covid-19 vaccination status?
- How many years' experience do you have as a registered nurse?
- Are you currently registered with the Australian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 (AHPRA)?
- Do you have a current NDIS Worker Screening Check?
- How would you rate your English language skills?

출처 : Seek.com (AU)

간호사의 구인공고는 2021년 호주의 Seek.com 상에서 검색 기준 14,498개 공고가 확인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구인수요가 높은 분야이다. 구인공고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급 기준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2배에 달하는 높은 급여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필요 역량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은 환자와의 원활한 관계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경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와 국가 자격증을 획득하였는지 여부도 채용 기준에서 제시되고 있다. 필수적으로 영어 실력에 대한 조건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호주 간호사의 처우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2021년 기준 연봉 80,000~85,000 호주달러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한국환율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기준 6,500만원에서 7,000만원 수준의 연봉이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간호사 급여 수준을 감안한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호주 간호사(RN) 급여수준(연봉, 2021년 기준)



출처 : Seek.com (AU)

02. 요리사

서비스 분야의 해외취업을 대표하는 직무 중 하나가 요리사(Chef)이다. 요리사는 호주의 대표적인 단기부족직군에 포함되어 있다.

임시취업비자(TSS) 소지자 상위 직무 (2021년 기준)

직무	인원
Chef	3,220
Software Engineer	2,460
ICT Business Analyst	1,750
Developer Programmer	1,590
Resident Medical Officer	1,550
Motor Mechanic	1,360
Management Consultant	1,270
Accountant	1,270
Cook	1,100
Corporate General Manager	1,202
General Practioner	910
Marketing Specialist	900
Diesel Motor Mechanic	870
Carpenter	870
Café or Restaurant Manager	760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요리사 직무는 호주 내에서 임시취업비자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직군이며, 이는 현지의 구인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우리나라의 해외취업 인력 중 요리 분야의 국가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 이전 해외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기간 중 우리나라에서 요리 분야로 해외취업에 성공하는 청년 중 절반 이상이 호주에서 취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리 직무 해외취업 인력 현황 (2019년)

직종 구분	호주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기타	총합계	평균 연봉
일식 주방장				1			1	36,512,666
중식 조리사	1						1	30,720,000
중식 주방장				1			1	32,564,695
일식 조리사	61	3	1	6	6	2	79	30,230,817
한식 조리사	17	5	3	1	3	6	35	30,472,092
양식 조리사	10	13	14				37	28,079,207
총합계	89	21	18	9	9	8	154	31,429,913

주: 평균연봉은 2019년 해당 직무 실제 취업자의 평균 연봉 수준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대상자가 대부분 신입 및 1-2년 경력의 신입단계 요리사임을 감안한다면 평균 연봉 3,000만원 수준은 꽤나 매력적인 수준이다. 100여개가 넘는 우리나라의 조리과학 고등학교와 대학교 조리학과를 나오더라도 실제로 요리사로 취업에 연계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취업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임시일용직으로 취업하거나 최저임금에 겨우 해당되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요리사의 경력 성장 단계

Executive Chef	총주방장, 총지배인
Executive Sous Chef	부총주방장, 부총지배인
Sous Chef	주방장
CDP, Chef de Partie	조리장, 조리과장
Demi Chef, Section Chef	부조리장
1st, 2nd, 3rd Cook (Line Cook)	조리사
Commis Chef	수습조리사
Helper, Apprentice	조리보조, 수습생

요리사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는 1800년대 후반 프랑스 요리의 근간을 정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조지 오귀스트 에스코피에(Georges Auguste Escoffier)가 Brigade de Cuisine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 것이 후대에 일부 수정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습조리사(Commis Chef) 이후의 경력단계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지원자의 요리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분위기이며, 이러한 직급단계는 레스토랑의 규모, 분야와 특성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10여년의 경력이 있어야 독자적으로 요리를 수행하는 조리장(CDP)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외의 경우 요리 전문기술학교를 다니면서 학업 외 인턴십(IP: Industry Placement) 등을 통해 수습조리사 또는 조리사의 역할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졸업 이후 시점에서 정식 조리사로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후 CDP까지의 성장 단계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평균 2~3년의 직장경험 이후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직하는 과정에서 직급의 상승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서 요리 경력 10년은 그야말로 요리 분야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는 인식이라면, 해외에서의 요리 경력을 10년 동안 충실히 보냈다면 최소 주방장(Sous Chef) 단계에 도달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요리사로서의 해외 취업, 특히 호주의 취업에 있어 우리나라의 조리학과(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여부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졸업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나, 요리를 실제로 현장에서 해봤는지의 여부가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장 경험이 없다면 요리학과의 졸업여부와 우리나라의 다양한 조리사 자격증 보유 여부가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현지 기술전문대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호주의 르 꼬르동 블루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 요리학교는 대부분 학업 과정 중에 현장실습(IP: Industry Placement)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한 학기를 통째로 할애하여 최대 주당 36시간의 요리실습을 하는 학업 과정 중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현장경험을 갖춘 상태에서 졸업하는 경우 취업으로의 연계가 수월하다. 그러나, 졸업은 하였으나 이런저런 사유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시직 일자리나 수습 요리사 취업 관문에서부터 다시 도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요리사 직무로의 진입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현장 경험의 확보 방법이라 할 수 있다.

Kitchen Chef의 핵심 직무역량

Avg. Salary	Popularity		
Food Preparation	●●●●●	Food Safety	●●●○○
$13	526 responses	$14	247 responses
Menu Planning	●●○○○	Order Inventory	●●○○○
$15	206 responses	$14	186 responses
Cleaning	●●○○○		
$12	130 responses		

출처: Payscale (www.payscale.com)

성공적 직무 수행과 직결되는 핵심 직무역량에 대한 조사에서는 음식 준비(Food Preparation)이 가장 높은 응답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음식 안전관리(Food Safety), 메뉴 기획(Menu Planning), 재고 관리 및 주문(Order Inventory), 청결 및 위생(Cleaning)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해석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급여의 상승과 직결되는 직무역량으로는 메뉴 기획(Menu Planning)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역량의 축적과 면접 준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외취업 완전정복 : 서비스편]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요리사(Chef) 구인공고 예시

Miss Songs Asian Kitchen Sous Chef

1d ago

The Ville Resort-Casino

Cairns & Far North

$70,000 - $75,000

Hospitality & Tourism > Chefs/Cooks

- Great job opportunity in Tropical Queensland
- Uniform provided and laundered daily
- Staff discount throughout the property and Morris Group

An exciting opportunity for a talented Sous Chef has become available to help lead the fast paced and highly successful Miss Songs Asian Kitchen.

☆ Save

Sous Chef

10h ago

Cooinda Lodge Kakadu

Melbourne > CBD & Inner Suburbs

Hospitality & Tourism > Chefs/Cooks

- Opportunity to join Australia's leading hotel group
- Work, live and play in Kakadu National Park
- Opportunity to learn and explore Indigenous and native cuisine and culture

Working with Cooinda's Head Chef and team, this role supports the Kitchen team in providing excellent standard in service and innovation.

☆ Save

Executive Chef

Featured

Private Advertiser

Sydney > CBD, Inner West & Eastern Suburbs

$90,000 - $109,999

Hospitality & Tourism > Chefs/Cooks

- Creative Chef with culinary experience in Fine Restaurants, Bar & Catering
- Unique dining concepts, event space and varied food and beverage offerings
- Sydney CBD locations | Attractive Remuneration package and Incen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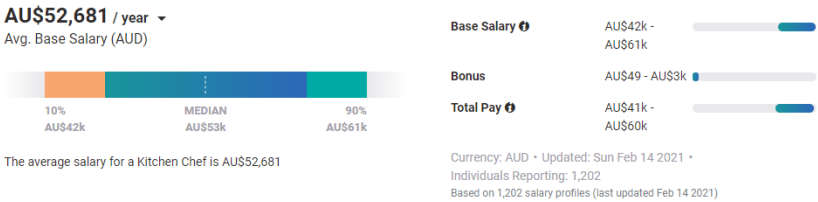
Lead company's ambitions for culinary excellence in all fields, working with senior team to renew concepts, evolve its people and raise the bar.

☆ S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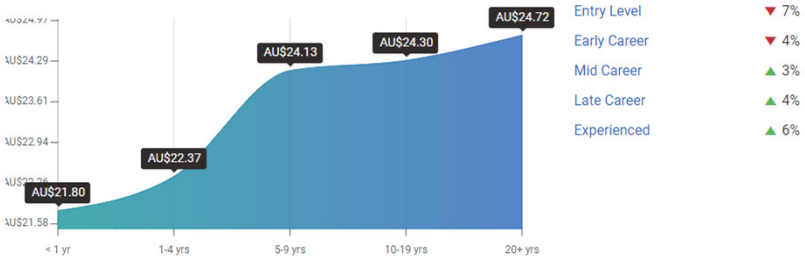
앞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호주의 부족직군인 요리사 직군에서는 신입 단계인 Commis Chef나 키친 핸드 뿐 아니라, 조리사(CDP 또는 Sous Chef), Executive Chef 등 전반적인 단계에서 활발한 구인/구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요리사 직종의 급여 수준은 우리나라 대비 높은 수준이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미국 및 유럽 국적의 요리사들이 호주의 취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 Kitchen Chef 급여 수준



출처: PayScale (www.payscale.com)



수습 기간을 지난 요리사의 평균적인 연봉은 52,681 AU$로 확인되고, 급여 수준은 연차별로 10%에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낸다. AU$와 원화에 대한 870원 수준의 환율을 고려하면(2021년 2월) 52,681 AU$는 약 4,500만원 수준의 연봉을 환산되며, 세금의 수준이 다소 높지만 연봉의 8%에 해당하는 연금을 사업자가 전액 납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급여 수준이다.

03. 자동차 관련 정비

자동차 또는 소형 원동기 등을 분해,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정비직종은 호주에서도 인기가 많은 직종이며, 손기술이 좋고 성격이 침착한 우리나라 구직자들이 잘 해낼 수 있는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임시취업비자 소지자의 호주 현지 취업 순위로 자동차 관련 정비 직무는 6위에 포함되어 있다.

임시취업비자(TSS) 소지자 상위 직무 (2021년 기준)

직무	인원
Chef	3,220
Software Engineer	2,460
ICT Business Analyst	1,750
Developer Programmer	1,590
Resident Medical Officer	1,550
Motor Mechanic	1,360
Management Consultant	1,270
Accountant	1,270
Cook	1,100
Corporate General Manager	1,202
General Practioner	910
Marketing Specialist	900
Diesel Motor Mechanic	870
Carpenter	870
Café or Restaurant Manager	760

단기 및 중기 부족직종에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 관련 정비직무는 총 4가지이다. Motor Mechanic, Motorcycle Mechanic, Diesel Motor Mechanic, Small Engine Mechanic이며, 각각 자동차 정비. 모터사이클 정비, 디젤엔진 정비, 소형엔진 정비로 이해할 수 있다.

호주 현지에서 Cert 3수준을 확보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정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현지 정비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른 직무들에 비해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이 덜하고, 각국의 업무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표준적인 직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국가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도 기존의 경험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만 하다. 물론, 기계 정비의 업무가 가지는 육체적 어려움과 직무 수행상의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반복적인 업무에서 쉽게 싫증을 느끼는 경우에도 오랜 기간 직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자동차 정비 구인공고 사례

Light Vehicle Mechanic 28d ago

Alberts Diesel Services

Launceston & North East

$65,000 - $69,999

Trades & Services > Automotive Trades

- Great work environment
- Clean and well equipped workshop
- Family owned and operated business

Mechanical work on vehicles covering a variety of car models and 4WD's varying from services to engine rebuilds.

Employer questions

Your application will include the following questions:

- How many years' experience do you have as a mechanic?
- Do you have customer service experience?
- Do you have a current Australian driver's licence?

출처 : Seek.com (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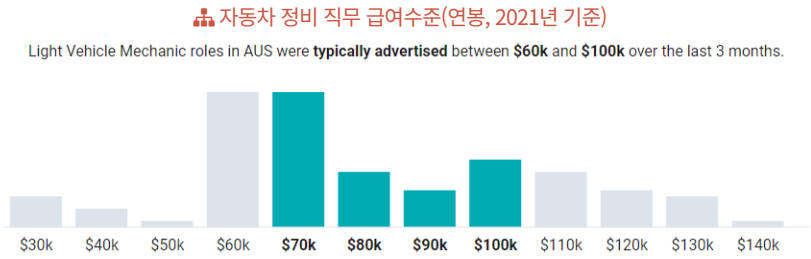
상기 구인공고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채용의 요구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실제로 영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측면에 대해서도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000 호주달러 수준(한화로 약 5,000만원)의 연봉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자동차 정비 구인 통계 (2021.11)

Job opportunities	Job growth	Salary	Job satisfaction
2,361	▲ 1.6%*	$60k	3.9 ★★★★☆
Jobs in AUS right now	Projected job growth in 5 years	Most common salary	

출처 : Seek.com (AU)

상시 2,000여개의 일자리에 대한 구인공고가 진행되고 있고, 매년도 1.6%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유망 직종이다. 현장의 기술직 직무의 특성으로 직무 만족도 수준이 최상위 수준은 아니지만, 기술의 숙련을 통한 창업 등의 경력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수 있다.



통상적인 급여 수준이 개인의 숙련도 수준에 따라 60,000 ~ 100,000에 이르는 높은 급여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한번 도전을 꿈꾸어 볼 수 있는 분야이다.
K-Move센터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면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가 가장 효율적인 접근이며, 관련 학력, 자격증 및 경력이 있다면 일단 현지 구인공고에 대해 이메일 답장을 보내거나 이력서를 송부하여 도전해 볼 수 있다. 물론 취업비자 획득을 위해서는 아이엘츠 5.0 수준의 확보가 필수 조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관련 자격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현지의 TAFE College에서 Cert 3수준의 과정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다.

04. IT 전문가 및 엔지니어

엔지니어는 전통적으로 호주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직종에 포함된다. 특히 IT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시취업비자(TSS)의 소지 및 취업 현황에서도 IT 관련 전문가는 상위 10개 중 3-5개를 차지할 정도로 IT분야에 대한 인기가 높다

특히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및 메타버스 등은 모두 IT분야의 핵심 직무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IT분야는 호주 뿐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취업 유망 직종이라 할 수 있다.

IT분야의 경우 타 직종들과 비교하여 임금 상승률도 높다. 특히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유망분야인 IT산업은 호주에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호주 고용부는 2010년도 IT관련 종사자가 약 76,000 명이었으나, 이후 장기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광통신망 구축 및 IT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졸업생들이 관련 분야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IT분야에서는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프로그래머, 네트워크 전문가 등 다양한 IT 관련 직업들이 부족직종으로 분류되어 취업 후 영주권 신청에 유리하므로, 한국의 관련 학력과 경력이 있는 구직자들이 영어실력을 향상시킨 후 도전하면 충분히 취업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IT 전문가 및 엔지니어 분야의 한국인 구직자는 타 업종에 비하여 영어 구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도 취업이 용이하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경력을 쌓은 한국인 구직자에게도 비교적 넓게 취업의 문이 열려있다. 호주에서 유학한 한국인 구직자의 경우, 엔지니어링 2년 이상 학사 혹은 석사학위 이상을 수료했을 경우 졸업생 비자(2~4년)를 신청하여 취업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업무경력을 쌓거나 석사과정 진학 및 Special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졸업생 비자를 통하여 관련 경력(해당 엔지니어 경력 최소 1년 이상 + 관련 서류 제출)을 쌓거나 Professional Year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기술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기술 심사 후 나이, 영어점수, 학력 등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의 학력과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최소한의 영어점수 등 요건을 확인하고 직접 진출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IT 시스템 관리자 구인공고 사례

Systems Administrator

12d ago

TasWater

Launceston & North East

$78 - 87K TRP per annum (inc superannuation)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Networks & Systems Administration

Maintain, configure & troubleshoot our corporate/SCADA & specialist systems | Launceston or Devonport | Large local employer

Key Accountabilities

- Maintain, configure, troubleshoot and ensure the reliability of our corporate/SCADA and specialist systems.
- Provide technical advice and support, and resolve complex queries in a timely and customer-focussed manner.
- Plan, prioritise and schedule work to deliver effective incident and request resolution for corporate/SCADA and specialist systems.
- Assist in the resolution of escalated and/or specialist issues reported through the Service Centre.
- Problem solve and use available tools to identify problem trends and recommend appropriate solutions.
- Participate in intradepartmental and cross-functional projects, sharing knowledge and contributing to continuous improvement processes.

Your Application

Your application must include a cover letter that tells us about:

- Why you are interested in this role.
- Your experience in similar roles, including service desk and technical specialist roles.
- Your experience in administering Windows servers, Active Directory / Group Policy and Windows 10 desktop operating systems, managing SCCM/MDM/WSUS patching and imaging.
- Your knowledge of Cloud infrastructure (Azure - preferred) & O365, virtual infrastructure (VMware), Cisco UCS, Enterprise Storage, and Commvault.
- Your qualifications in Information Systems, Information Technology, Computer Science or similar.
- Your flexibility to adapt to business needs and respond to change with a strong customer focus.

출처 : Seek.com (AU)

구인공고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IT분야의 채용 공고는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기반 시스템과 프로그램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기에, 본인이 관련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용이하다. 이러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언어적 의사소통은 컴퓨터 용어의 보편적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분이 있고, IT전문가의 급여 수준은 대체로 타 직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장점도 크다.

IT 시스템 관리자 구인 통계 (2021.11)

Job opportunities	Job growth	Salary	Job satisfaction
1,658	▲ 19.8%*	$90k	4.3 ★★★★☆
Jobs in AUS right now	Projected job growth in 5 years	Most common salary	

IT전문가에 대한 구인수요는 매우 높으며, 최근 직무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평균적인 연봉 수준도 90,000 호주달러 수준으로 높고, 직무 만족도 수준도 상대적으로 양호하기에 해외취업을 꿈꾸는 이공계 분야의 청년들이 한번 도전해 볼 직종이다.

05. 사회복지 종사자

호주는 세계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을 만큼 사회보장제도가 전반적으로 잘 갖추어진 국가입니다. 호주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나라이며,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가 절실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직업성장률을 보더라도 타 직업군의 평균성장률(1.9%)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직업성장률(57.4%)을 보

이고 있으며, 직업에 대하여 좋은 대우와 함께 영주권 취득이 비교적 용이한 직종이다.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경력을 쌓은 한국인 구직자도 영어가 능숙하다면 취업의 가능성이 높다. 호주 유학생이라면 2년 이상 학사 혹은 석사학위 이상을 수료하였을 경우 졸업생 비자(2~4sus)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IELTS Each band 7.0의 영어점수를 받을 경우, 호주 사회 복지사 협회(AASW)를 통하여 Social Worker로 기술심사를 받으실 수 있다. 기술심사 후 나이, 영어점수, 학력 등을 바탕으로 60점 이상이 되시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호주 사회복지사들은 의료, 건강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에 활발히 취업하고 있다.

사회복지 종사자(Social Worker) 구인공고 사례

Social Worker 6h ago

The Procare Group

Launceston & North East

Competitive remuneration package on offer!

Healthcare & Medical > Psychology, Counselling & Social Work

- Join a leading national provider of Injury Management & Rehabilitation services!
- We offer a thorough induction, ongoing support and collaboration plus much more!
- Work in a very rewarding industry!

We have an exciting opportunity for a Social Worker to join us amidst an exciting phase of growth, working within our Tasmania team

☆ Save

Procare group

Day to day you will be:

- Supporting people to recover and return to pre-injury activities using your clinical skills and knowledge;
- Case managing complex injuries;
- Assisting injured workers in training and developing of new skills;
- Completion of reports and file review within appropriate timeframes.
- Liaison with health professionals, specialists, employers, insurers and other key stakeholders to drive positive outcomes for clients;

You will be qualified as a:

- Social Worker (AASW membership).

You'll also need

- Current Police clearance;
- Working with Children Check;
- Sound communication skills both written and verbal;
- Strong attention to detail, critical thinking & problem solving;
- Honesty, integrity, a good team attitude & positive approach; and
- Genuine commitment to continuous improvement.

Social Worker 구인 통계 (2021.11)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우 AASW의 사회복지종사자 자격을 획득한 경우에 취업이 유리하며, 타 직종에 비해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직종이기도 하다. 또한 육체적인 능력이나 기술요건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기에 중장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종이며, 영주권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다.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형성과 교감이 중요한 분야이기에 단순한 아이엘츠 영어 성적이 아닌 실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영어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한 직무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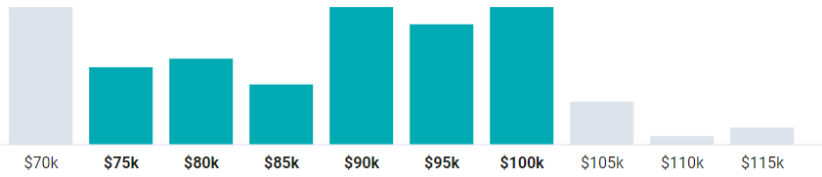
Social Worker 구인 통계 (2021.11)

Job opportunities	Job growth	Salary	Job satisfaction
4,246	▲ 15.2%*	$70k	4.1 ★★★★☆
Jobs in AUS right now	Projected job growth in 5 years	Most common salary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의료 및 사회복지 관련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구인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Social Worker 직무 급여수준(연봉, 2021년 기준)

Social Worker roles in AUS were **typically advertised** between **$70k** and **$100k** over the last 3 months.



01. 취업절차 개요

호주의 채용 프로세스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기술 숙련 직종 및 부족 직업군에 정식 채용되는 경우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일반직 및 기타직군에 채용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02. 취업절차

기술숙련직종 및 부족직업군에 취업하는 경우

① (직접지원) 구직자 본인이 Linkedin, 전문 구직 웹사이트, 기타 취업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자신을 소개하고 이력서 송부.
(취업 에이전시) 취업정보를 가진 알선업체(agency)에 연락하고 알선담당자(agent)와 면접을 보면 알선업체가 구직자와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지원하는 일을 대행.

②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 후에 면접일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연락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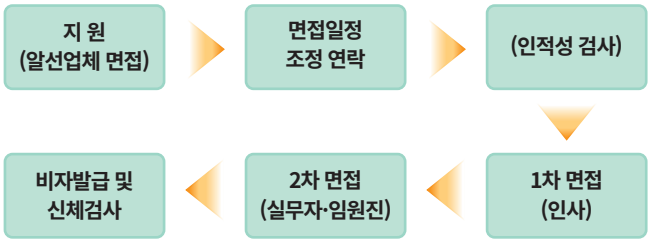
③ 1차 면접은 회사 인사담당자와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차 면접 전이나 1차 면접과 함께 구직자의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④ 2차 면접은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실무자 및 임원진들과 인터뷰를 통해 진행함.

⑤ 채용이 결정되면 비자 발급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신체검사도 수행함.(신체검사는 한국에서처럼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급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임)

※단,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스폰서십 + 3년 이상의 관련 실무경력(부족직업군) + 영어 IELT5.0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호주 기술숙련직종 및 부족직업군 취업자 채용절차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 후 일반직 및 기타직군에 취업하는 경우

① (직접지원) 구직자 본인이 Linkedin, 전문 구직 웹사이트, 기타 취업관련 정보를 바탕을 직접 자신을 소개하고 이력서 송부. 또는 일할 만한 가게마다 찾아가서 일자리를 구한다고 말하고 이력서를 두고 옴.
(취업 에이전시) 취업정보를 가진 알선업체(agency)에 연락하여 원하는 일자리 종류와 지역 등을 알려주고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받음.
(지인소개)룸메이트나 어학원 친구 등 주변 지인을 통해 일자리 소개를 요청함.

②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 후에 면접일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연락을 받음.

③ 고용주와 인터뷰 면접 실시 후 채용 결정.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취업할 경우, 정식 채용에 비해서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영어실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하며, 자신감 있고 친절한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03. 취업절차 핵심 포인트

호주 취업에 필요한 영어구사 수준

호주는 공용어가 영어이므로 현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영어구사능력이 높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요구사항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대학을 나온 후 단시간의 준비를 거쳐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들에 따르면, 분명히 영어가 중요하고 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비자제도의 변경 등 점점 취업이 어려워지는 현지 사정과 결국 영어권 국가에서 근무하고 성과를 내야하는 점을 고려하면, 탁월한 영어실력은 취업은 물론이고 호주에서 직장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은 당연하다.

영문이력서 작성하기(CV/Resume)

한국에서 작성하는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와는 작성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최대한 간결하고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을 선호하는 편이다. 특히 학력보다는 경력과 과거 경험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자신의 장점을 업무와 연결해 강조하고, 추천인(Reference)이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추천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면 최종 결정을 하기 전 추천인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다. 호주에서 일한 경험 또는 도움이 될 만한 경력이 있다면 추천서(Reference Letter)를 받아서 첨부하는 것이 좋다.

이력서 작성 예시

- **Contact Information** : 보통 이력서 맨 위에 Resume라고 따로 쓰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제목으로 쓴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적는다.
- **Objective** : 희망하는 포지션의 이름만 적어도 되고,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도 된다.
- **Skills** : 지원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내세울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적는다.
- **Employment History** : 최근 경력순으로 지원 분야와 관련된 일을 우선으로 작성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회사명, 근무기간, 업무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취업 경험이 없는 학생은 아르바이트 경력을 적으면 된다.
- **Education** : 최종 학력의 학교명과 소재지, 전공 등을 적는다.
- **References** : 추천인에 관한 부분으로 보통 Available upon request(요청할 경우 가능함)라고 적는다.

Yuna Kim

91 Liverpool Street, Sydney, NSW 2000

Phone:0452-335-217

Yuna@gmail.com

OBJECTIVE

Position as a restaurant waitress

SKILLS

Training of restaurant staff

Menu planning and design

Quality assurance

Extensive Knowledge of wines

Fluent in English and Japanese

EMPLOYMENT HISTORY

T.G.I FRIDAY'S

July 2011-Sep 2011

Waitress

Created customer base and close relationships with patrons of restaurant

Provided prompt service while taking orders, serving food, and closing the check

BURGER KING

Dec 2010-Fed 2011

Cashier

Responsible for customer service including order-taking and cash register operations

EDUCATION

B.A., Business Administration, February 2012

ABC University, Seoul, Korea

REFERENCES

Available upon request

자기소개서 작성하기(Cover Letter)

자기소개서는 직종에 따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구직사이트에 광고된 자리에 지원할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 이력서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자기 소개서는 1장을 넘지 않도록 하되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간단한 자기소개
- 지원하고자 하는 포지션
- 해당 포지션과 본인의 기술, 지식 및 경험이 일치하는지 여부
- 고용주로 하여금 본인의 이력서를 읽어보도록 요청하는 문구
- 면접을 보고 싶다는 본인의 의지

자기소개서 작성 예시

Gildong Hong
Email : gildonghong@xmail.com
Mobile : XXX XXXX XXXX

Mr. Allan Bourke
ABC Pty Ltd
Phone: XX XXXX XXXX
Email: enquiries@amail.com.au 1 April 2015

RE: Application for Trainee Administrative Assistant position

---

Dear Mr.Bourke,

As a young and motivated individual I am extremely interested in submitting an application for the advertised Trainee Administrative Assistant position with ABC Pty Ltd..

I obtained a Certificate III in Business Administration in November 2014. This has given me a range of practical capabilities that will meet the needs of this role.

While completing my Certificate I worked part-time as a Customer Service Assistant for KSmart. My responsibilities included providing face-to-face customer service, assisting on the floor with stock movements and visual merchandising. This position has allowed me to experience working in a professional and fast-paced work environment.

With regard to my ability to meet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this job:

*Customer Service : Worked for five months in a face-to-face customer service environment providing customer service at registers and on the retail floor.
*General Administration : Certificate III in Business Administration has provided training in the use of skills including filing, data processing, records management and written communication.

I understand that you will receive a large number of applications for this role. However, I believe that my motivation and pre-existing skills will allow me to fit into your work environment.

I would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your to discuss my application at an interview. I have enclosed a copy of my resume for your consideration. I can be contacted at all times on the details provided above.

Thanking you in advance for your time.

Gildong Hong

면접 준비 및 요령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채용공고에 지원한 경우, 불시에 면접 요청 전화가 올 수 있으므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라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직종에 따라 영어구사능력이 중요한 경우 해당 직종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미리 익혀둘 필요가 있고, 지원한 회사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 놓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의 전문성을 고용주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호주는 개방적인 문화이지만 면접 시 단정한 복장과 공손한 자세 유지가 중요하다. 고용주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 좋으며,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 질문을 받거나 답변할 때 실수를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면접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두고 추후 다른 면접에서 참고로 이용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체크포인트 - 취업 시 유의사항

'호주에서 외국인이 일을 구하려면 이력서 100장은 뿌려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한국 워홀러가 현지인과 경쟁하여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고용주에게 이력서 전달 후 면접기회를 얻었다면 예상 질문을 미리 준비하여 반복적으로 연습해보는 것이 좋다.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미리 준비한 내용을 유창하게 말함으로써 면접관으로 하여금 질문이 안 나오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자기소개뿐만 아니라 지원 동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함으로써 질문을 받기보다는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① Can you tell me about yourself?
자신을 간단히 소개하고 상대방이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력이나 경력을 나열하기 보다는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개성이나 경험, 일에 대한 열정 등을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② Why do you want to work here?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원한 곳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지원한 곳의 장점, 특징, 사람들이 왜 이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가 등을 미리 고민하고 답한다. 단순히 돈을 벌거나 영어를 배우기 위해 지원한다는 답변은 좋지 않다. 오히려 좋은 팀의 멤버가 되어 더 좋은 직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대답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③ Why did you quit your last job?
지난 일을 왜 그만두었는지 묻는 질문으로 부정적인 이유나 어떤 점이 좋지 않아서 그만두었다는 답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보다 일을 통해 배운 점을 강조하자. 하지만 너무 좋은 점만 말하는 것은 현재 일을 찾고 있는 상황과 맞지 않으니,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크며 앞으로 능력을 발휘해 직장에 기여하고 싶다는 인상을 주자. 호주에서 처음 일을 찾는 자리라면 호주에 오기위해 그만두었다고 말하고 지난 일자리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도 좋다. 이전 경험을 통해 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Why should I hire you?
왜 당신을 고용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다. 본인의 장점과 직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말한다. 특히 호주는 팀웍을 중시하니 팀의 훌륭한 멤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⑤ What do you expect from company?
일을 하는 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당연히 수입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수입을 기대한다는 대답은 좋지 않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팀을 이루고, 그동안의 경험과 배운 것을 통해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기대한다고 답하면 좋을 것이다.

⑥ 그 외 자주 묻는 질문
What are you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 What are your strategies for resolving conflicts with your manager or coworkers? /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in ***?

건축 관련 업무 - 화이트카드(White Card)

화이트카드(White Card)는 호주 정부에서 인정하는 건설현장 출입과 노동을 하기 위한 필수 자격증으로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안전 사항 등을 교육받고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일종의 수료증과 같다. 관련 카드가 없으면 건축설비, 타일, 전기, 청소 등 건축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화이트카드는 직접 교육 기관에 가서 4시간의 교육 후 시험을 치르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데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본 후 Statutory Declaration/Assessment Witness Declaration이라는 서류에 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과 함께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이때 서류는 공증이 필요하다. 발급 비용은 $100~130정도이며 신분증, 여권, 면허증, 호주ID 카드 중 하나와 주소지, 은행계좌, 교육비를 준비한다.

만약 영어가 능숙하지 못해 교육이 부담된다면 교민 잡지 등을 통해 한인 교육장을 찾는다. 지정된 교육장에서 교육이 끝나면 바로 수료증과 임시로 2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주류취급면허증(RSA.Responsible Service of Alcohol)

호주에서 호텔, 리조트, 레스토랑 등 주류를 취급하는 곳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RSA(주류취급면허증)가 필요하다. RSA는 손님이 취했을 때의 대처법, 미성년자 등 주류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 고객에게 주류를 제공할 때 알아야 하는 법적인 내용 등이 포함된다. RSA는 온라인 또는 관련 센터에 직접 찾아가 취득할 수 있다. 교육 시간은 평균 4~6시간 정도이며 하루 이론 수업과 시험을 통해 그날 자격증을 받는다. 비용은 교육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50~130 정도이다. 주의할 점은 각 주마다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가 다르므로 근무할 지역의 증명서를 받는 것이 좋다.

체크포인트 - 영어면접 시 자주 묻는 질문

- 급여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협의 가능하다고 해서 찾아간 곳의 고용주가 지금은 얼마의 급여를 주지만 일하는 걸 봐서 올려주겠다고 구두로만 계약하려고 한다면 일단 조심해야 한다. 이런 곳 중에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 곳들이 많으므로 고용계약은 구두보다 문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주급을 받을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Pay Slip)를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추후 급여와 관련된 분쟁에 대비하여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으며 근무계획표(roster sheet)를 받아 보관하거나 근무계획표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별도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The Nut Shop
25
dustins
23
WHILE-U-WAIT
COOMBS
SHOE REPAIRS
21
WAYNE COOPER
ZIMMERMANN
LISA HO
Aesop
WHITE
GALLERY SHOPPING
danesi
caffè

01. 자기분석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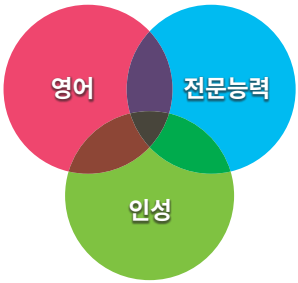
효과적인 취업전략을 위한 취업준비는 지원자의 결심과 자기분석에서 시작한다. 자기분석이란 자신의 장점과 단점, 적성, 전문분야의 능력, 흥미와 장래 꿈, 가치관 등을 스스로 되새겨보고 정리해보는 것이다.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장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과정이다. 아래 자기분석 항목과 점검내용을 토대로 질문에 답해보도록 한다.

자기분석항목

	장단점	호불호	인간관계	흥미/ 가치관
개인	자신의 장점은? 자신의 단점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은?	사교적인가? 내성적인가?	본인의 흥미와 관심?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	가족에게 공헌하는 것? 가족에게 부담인 것?	가족의 좋은 점? 가족생활의 싫은 점?	가족 내의 역할은? 가족 간 충돌경험은?	가족관계에서 소중한 것은?
학교	전공과 전문분야는? 적성과 안 맞는 과목은?	좋아하는 선생님, 선배? 싫어하는 학우?	학교에서 인간관계는? 상대하기 어려운경험?	어떤 과목에서 흥미?
회사	능력을 발휘한 경험? 본인이 서투른 점?	직무경험(아르바이트)에서 좋고 싫었던 경험?	직장 내 어려웠던 인간관계는?	흥미로웠던 일 경험?

자기분석표 기입 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업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중점연구 대상 업계를 좁혀나간다. 자기 평가를 위해서 인사담당자들이 강조하는 능력밸런스를 중심으로 취업로드맵을 점검해 보도록 한다.

능력밸런스



영어 및 제2외국어 : 호주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고 업무도 당연히 영어로 수행해야 하므로 유창한 영어 능력은 기본적인 취업조건이다. 다만, 직종별로 요구하는 영어 수준은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영어능력 구분 기준

최하	아주 간단한 일상 언어 정도만 구사가능
하	익숙한 주제에 대해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 가능
중	업무와 관련된 제한적인 의사소통 가능
상	거의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의사소통 가능
최상	모든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가능

업무역량 : 호주는 취업 유망직종별로 요구하는 역량 수준이 상이하지만, 신입직의 경우 보편적으로 해당 직무의 경력이나 전문자격증을 요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부 예외적인 신입직과 경력직의 경우 높은 업무역량이라 하면 특별한 자격이나 경험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지혜와 노하우가 습득된 상태를 말한다.

전문능력 자기평가표 자기분석항목

	항목	자기평가수준
1	관심업종에서의 인턴십 등의 경험이 있다.	1—네 2—아니오
2	나의 전공에서 해당 업무에 관한 특별한 과목을 제공한다.	1—네 2—아니오
3	관심업종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높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1—네 2—아니오

인성 : 호주에서는 업무역량뿐만 아니라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인성을 중시하며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호한다. 특히, 자기통제력, 임기응변력, 적응성, 서비스마인드 등은 모든 직종을 막론하고 인사담당자들이 면접 시 주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이다.

02. 기업관계자 및 취업자 후기를 통한 전략

다음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 후, 현지에서 약 300장의 이력서를 돌려 간신히 일자리를 구하고 이후 TESOL 과정을 공부하여 현지 어학원에서 인턴 강사로 활동하였던 구직자가 전해주는 Tip의 일부이다.

일자리는 생활을 이어갈 중요한 수단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이력서는 정말 중요하다. 먼저 이력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이름, 나이, 성별, 주소, 연락처, 비자 유효기간, 언제부터 일할 수 있고 무슨 요일에 일할 수 있는지, 최종학력 그리고 관련 경험을 적는다. 이중에서 업주들이 눈여겨 보는 건 관련 경험,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비자유효기간),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지 등이다.

여기에 더 좋은 건 추천서를 받는 것이다. 호주에서 추천서의 힘은 굉장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최대한 가게에서 6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잘해서 추천서를 받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옮기기 굉장히 쉬워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알바'같은 일을 위해 추천서까지 준비하는 것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시급을 주는 곳을 찾고 있으므로 나름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이력서는 '레쥬메(resume)' 혹은 '시브이(CV)' 라고 부른다. 앞에서 들어가는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력서와는 내용이 좀 다르다. 한 일화로 내가 일식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당시 한 한국인 여자분이 이력서에 자신의 사진뿐만 아니라 키와 몸무게까지 기재를 하여 놓고 갔다. 그런데 그때 매니저가 그 이력서를 보더니 나에게 "대체 왜 식당 홀에서 일할 웨이터를 뽑는데, 사진을 붙이고 키와 몸무게를 기재하는 거야? 무슨 미인 대회라도 나가나?" 라고 말하며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일하고자 하는 곳과 '관련된 경험'에 무게 중심을 두고 이력서를 작성해야 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하고 싶어 하면서, 한국에서 다니던 학교와 신문사 동아리 활동 같은 걸 적는 것은 전혀 쓸모없는 행동이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한국의 카페에서 일을 해보았거나, 아이스크림을 팔아보았거나 식당에서 요리사 보조로 일했다면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일하고 싶어 하는 곳에 맞춰 상세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비자의 기간과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업주들이 그렇겠지만, 일을 잠깐 하다가 가는 사람을 환영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확하게 비자가 언제까지 유효한 지를 확실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여러분이 거주하는 곳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을 주기가 애매해 질 수 있다. 이유는 비자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일을 할 사람이라면 확실한 주소가 있을 텐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내가 백팩커(Backpacker)를 주소로 적은 게 일자리를 구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거주지를 백팩커(Backpacker)와 같은 여행자 숙소로 적어두었을 때는 일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주소를 여행자 숙소보다는 다른 곳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은 당연히 연락처이다. 연락처를 제대로 적지 않으면 여러분을 뽑고 싶어도 연락을 못해 뽑을 수 없다, 추가적으로 연락처의 팁을 드리자면,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네이버 이메일 주소를 쓸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호주에서는 '핫메일(Hotmail)'이나 '지메일(Gmail)' 등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메일 보다는 핸드폰으로 연락이 주로 오지만 혹시라도 이메일을 받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사이트 보다는 업주에게 익숙한 곳을 넣어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출처 : 하상인, 『백만원으로 호주 워킹 홀리데이 다녀오기』, 마음세상, 2014

위의 후기에서 알 수 있듯이 호주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일하고 싶은 곳을 정해 이와 관련된 경험 및 경력을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을 알리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좋은 인상을 남겨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어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력서를 돌리고 인터뷰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복장과 자세, 표정 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 특히 서양문화에서 스마일, 즉 친절한 인상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때때로 한국인들의 무표정이 서양에서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비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꼭 일자리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오해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음으로, 의식적으로라도 스마일을 잃지 않는 것이 좋다.

01. 호주의 주요 로컬기업 리스트

호주 로컬기업 리스트

회사명	주요산업	창립연도
ABB Grain	Consumer goods	1939
Adam Internet	Technology	1992
AGL Energy	Utilities	2006
Alinta Gas	Utilities	1995
Allphones	Telecommunications	1989
Altium	Technology	1985
Alumina Limited	Basic materials	2003
Amcor	Industrials	1860
AMP Limited	Financials	1849
ANCA	Industrials	1974
Angus & Robertson	Consumer services	1884
Ansarada	Technology	2005
Ansell	Consumer goods	1929
Appliances Online	Consumer services	2005
Aristocrat Leisure	Consumer services	1953
Arnott's Biscuits	Consumer services	1865
Arrium	Basic materials	2000
Atlassian	Technology	2002
Aurizon	Industrials	2004
Ausmed	Health care	1987
Austal Ships	Industrials	1988
Austar	Telecommunications	1994
Austereo Radio Network	Consumer services	1980
Australian Ethical Investment	Financials	1986
Australian Pharmaceutical Industries	Health care	1910
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Financials	1987
Ausway	Industrials	1966
BAE Systems Australia	Industrials	1953
Bakers Delight	Consumer services	1980
Bank of Queensland	Financials	1874
Beaurepaires	Consumer services	1922

회사명	주요산업	창립연도
Becker Entertainment	Consumer services	1965
BHP Billiton	Oil & gas	1885
Billabong	Consumer goods	1973
Bing Lee	Consumer services	1957
Biopharm Australia	Health care	1980
Biosis Pty Ltd	Industrials	1983
BlueScope	Basic materials	2002
Blundstone Footwear	Consumer goods	1892
Boag's Brewery	Consumer goods	1883
Boost Juice Bars	Consumer services	2000
Boral	Industrials	1946
Brambles Limited	Industrials	1875
Brown Brothers Milawa Vineyard	Consumer goods	1889
Bulla Dairy Foods	Consumer goods	1910
Bunnings Warehouse	Consumer services	1887
Canva	Consumer services	2012
CBH Group	Consumer goods	1933
Cbus	Financials	1984
Chemeq	Health care	1989
CHEP	Industrials	1958
CIMIC Group	Industrials	1949
Coca-Cola Amatil	Consumer goods	1904
Cochlear Limited	Health care	1981
Compass Resources	Basic materials	1984
Computershare	Financials	1978
ConnectEast	Industrials	2002
Cotton On	Consumer services	1991
Country Energy	Utilities	2001
Crown Resorts	Consumer services	2007
Crumpler	Industrials	1995
CSL Limited	Health care	1916
CSR Limited	Basic materials	1855
Darrell Lea	Consumer goods	1927
David Jones Limited	Consumer services	1838
De Bortoli Wines	Consumer goods	1928

회사명	주요산업	창립연도
Debt Mediators Australia	Financials	1999
Delta Electricity	Utilities	1996
Dick Smith Foods	Consumer goods	1999
Downer Group	Industrials	1933
Driza-Bone	Consumer goods	1898
Dymocks Booksellers	Consumer services	1879
Eagle Boys	Consumer services	1987
Eftel	Technology	1999
Elders Limited	Consumer goods	1839
Elfin Cars	Consumer goods	1957
Employsure	Consumer services	2010
Energex	Utilities	1922
EnergyAustralia	Utilities	1995
EnviroMission	Utilities	2001
Eraring Energy	Utilities	2000
Ergon Energy	Utilities	1999
Fairfax Media	Consumer services	1841
Flight Centre	Consumer services	1982
Florigene	Health care	1986
Foodland Supermarkets	Consumer services	1962
Fortescue Metals Group	Basic materials	2003
Foster's Group	Consumer goods	1888
Foxtel	Consumer services	1995
Freehand Group	Consumer services	2004
Funnelback	Technology	2005
GMHBA Limited	Financials	1934
Golden North	Consumer goods	1923
Goodman Fielder	Consumer goods	1986
Grocon	Industrials	1948
GWA International	Consumer goods	1989
Haigh's Chocolates	Consumer goods	1915
Halfbrick Studios	Technology	2001
Harvey Norman	Consumer services	1982
Healthscope	Health care	1985
Henry Jones IXL	Consumer goods	1891
Holden Special Vehicles	Consumer goods	1987
Holden	Consumer goods	1856

회사명	주요산업	창립연도
Huon Aquaculture	Consumer goods	1988
IGA	Consumer services	1988
iiNet	Technology	1993
Incat	Industrials	1977
Incitec Pivot	Basic materials	2003
Insurance Australia Group	Financials	2000
Internode Systems	Technology	1991
IOOF Holdings	Financials	1846
IQnovate	Health care	2011
JB HiFi electrical	Consumer services	1974
Jetstar Airways	Consumer services	2003
Kangaroo Bus Lines	Industrials	1978
Kennedy Nolan	Industrials	1999
King Living	Consumer services	1977
Kleenmaid	Consumer services	1984
Kogan.com	Consumer services	2006
LJ Hooker	Financials	1928
Lanka Graphite Limited	Basic materials	2015
Leading Edge Group	Consumer services	1986
Lend Lease Group	Industrials	1958
Lend Lease Retirement Living	Financials	1992
Lion	Consumer goods	1923
Lowes Menswear	Consumer services	1898
MAB Corporation	Financials	1995
Macquarie Group	Financials	1970
Madrigal Shipping Lines	Industrials	1963
Maton Guitars	Consumer goods	1946
Melbourne IT	Technology	1996
Meriton	Financials	1963
Mirvac	Consumer services	1972
Multiplex	Industrials	1962
Murrays	Industrials	1950
Myer	Consumer services	1900
MYOB	Technology	1991
Nash Timbers	Consumer goods	2003
National Australia Bank	Financials	1982
National Storage	Industrials	2000

회사명	주요산업	창립연도
Netbox Blue	Technology	1999
Network Ten	Consumer services	1964
Newcastle Port Corporation	Industrials	1996
Newcrest Mining	Basic materials	1966
Nine Network	Consumer services	1956
Nufarm	Basic materials	1956
Octaviar	Financials	1999
Officeworks	Consumer services	1994
Oneflare	Consumer services	2011
Oporto	Consumer services	1986
Optus	Telecommunications	1981
Orica	Basic materials	1874
Origin Energy	Oil & gas	2000
Orocobre	Basic materials	2007
Pacific Star Network	Consumer services	2001

02. 호주에 진출한 한국기업 리스트

호주 진출 한국기업 리스트

회사명	모기업	업종	취급분야	진출시기
(주)대한항공 시드니지점	대한항공	운송	항공운송	1990
GS글로벌 오스트레일리아	GS그룹	유통	철강, 자원, 기타	1988
KEB하나은행 시드니지점	KEB하나은행	금융	은행업	-
LG상사 호주법인	LG상사	상사	광산투자	1983
LG전자 호주법인	LG전자	제조	가전제품	1987
LS 전선 호주지사	LS전선	제조	전선	2010
SK네트웍스 호주자원법인	SK네트웍스	광업	철광석, 석탄	-
SK스틸 호주법인	SK네트웍스	제조업	철강제품	-
글로비스 호주법인	현대글로비스	운수업	-	-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제조	타이어	1975
기아자동차 호주판매법인	기아자동차	제조	자동차	2006

회사명	모기업	업종	취급분야	진출시기
넥센타이어 시드니지점	넥센타이어	제조업	타이어	-
대구텍 호주법인	대구텍	제조	절삭공구	2005
대우인터내셔널	대우	무역	종합품목	1968
대우일렉트로닉스 시드니지사	대우전자	제조	가전제품	1997
대한전선 호주법인	대한전선	제조	전선	2006
모트렉스 오스트레일리아	모트렉스(주)	제조업	자동차부품	-
빅토리아양모가공	대일섬유	제조	양모가공	1991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	건설업		-
삼성물산(상사부문)	삼성	도소매	해외건설	-
삼성전자 호주법인	삼성전자	제조	전자제품	1987
슈퍼퍼트동부	동부팜한농	판매업	비료	-
신한은행 시드니지점	신한은행	금융	은행업	2016
아시아나항공 시드니지점	아시아나 항공	운송	항공운수	1995
오스템 호주법인	오스템	제조	임플란트	2007
와이지원	YG-1	제조	End Mill	2001
우리은행 호주지점	우리은행	금융	은행업	2001
이노오션 월드와이드	이노션	마케팅	광고 마케팅	-
일진오토모티브	일진글로벌	제조	자동차부품	2002
제일월드와이드 시드니점	제일기획	광고	광고디자인	2005
팬오션 멜버른사무소	팬오션	운소업	해운	1984
포스코 오스트레일리아	포스코	광업	철광석, 석탄	1981
한국관광공사 시드니지사	한국관광공사	기타	홍보	1979
한국광물자원공사 호주법인	한국광물자원공사	광업	광산투자	1995
한국외환은행호주법인	한국외환은행	금융	금융	-
한국전력공사 호주법인	한국전력	에너지	광산투자	2008
한국타이어 오스트레일리아	한국타이어	제조	타이어	1987
현대모비스 호주법인	현대모비스	제조	자동차	2004
현대상선 멜버른사무소	현대상선	운송	해운운송	2004

자료원 : OIS

PART

03

해외취업 성공 포인트

01
해외취업 정보찾기
-
02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 활용하기
-
03
해외취업정착지원금

01 해외취업 정보찾기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등 공공기관, 해외취업 박람회(설명회), 기타 웹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1. 월드잡플러스(웹/앱)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는 청년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관 별로 분산된 해외진출정보(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 등)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가별 기본정보 및 취업전략, 일자리(구인/구직)정보, 해외취업 후 경력관리, 국내 복귀 후 재취업 등 해외진출 전(全) 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 진로적성 진단과 연계한 커리어플래너 제공
- ✔ 주요 국가별 기본 정보 및 유망 직종 취업전략 제공
- ✔ 외국어, 직무 등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 ✔ 실시간 채팅 기능을 활용한 해외취업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 영문/일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무료 첨삭 서비스 제공
- ✔ 해외취업, 해외연수(K-Move스쿨),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 모집 공고 제공
- ✔ 청년해외진출 멘토링, 해외취업설명회(박람회)참여, 해외취업 아카데미 신청 정보
- ✔ 취업사실 확인 및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지원
- ✔ 해외진출 경력관리시스템 운영 및 국내 재취업 정보 제공
- ✔ 부당사례 신고센터 운영 등

일자리 검색하기

월드잡플러스

체크포인트

(1) 앱스토어에서 월드잡플러스 앱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 친구추가(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 링크드인(Linkedin)에서 worldjob plus를 검색하는 경우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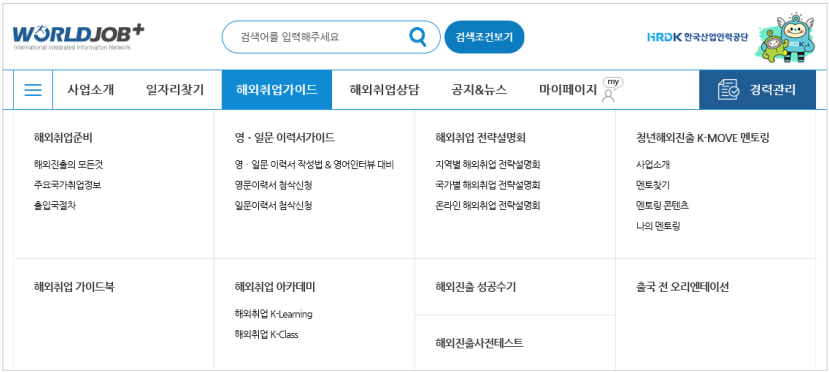
(2)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또는 이력서 작성 시 희망 국가와 직종을 체크해두면 나에게 맞는 해외취업 정보를 [마이페이지] > [빅데이터 기반 추천정보] 메뉴에서 확인하거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력서를 미리 등록해두면 구인공고가 올라왔을 때 바로 지원도 가능하다.

(3) 해외일자리 BEST 20은 평균연봉 2,400만 원 이상, 주거지원 등 근무 조건이 양호한 일자리를 골라 월 2회 선정하고 있으니, 일자리 검색 시 BEST20 스티커를 확인하자!

해외진출 정보 찾기

국가별 기본정보 및 취업전략, 비자정보, 진출현황, 취업 성공수기 등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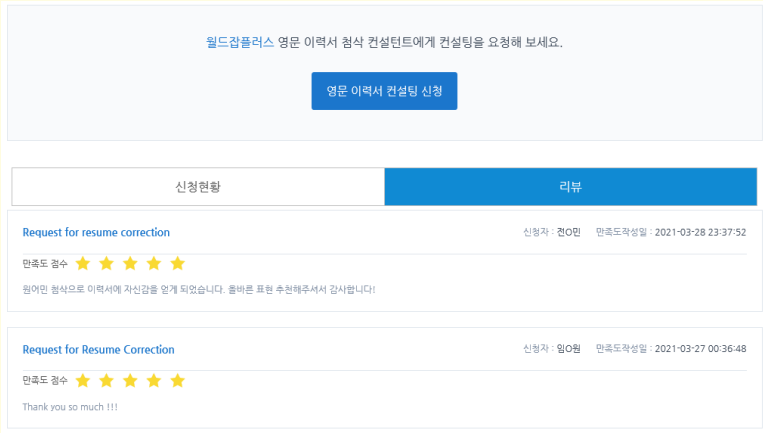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가이드 화면



체크포인트

(1) 국가별 해외취업 가이드북, 해외진출 성공수기 등 알짜정보가 곳곳에 있으니 찾아서 이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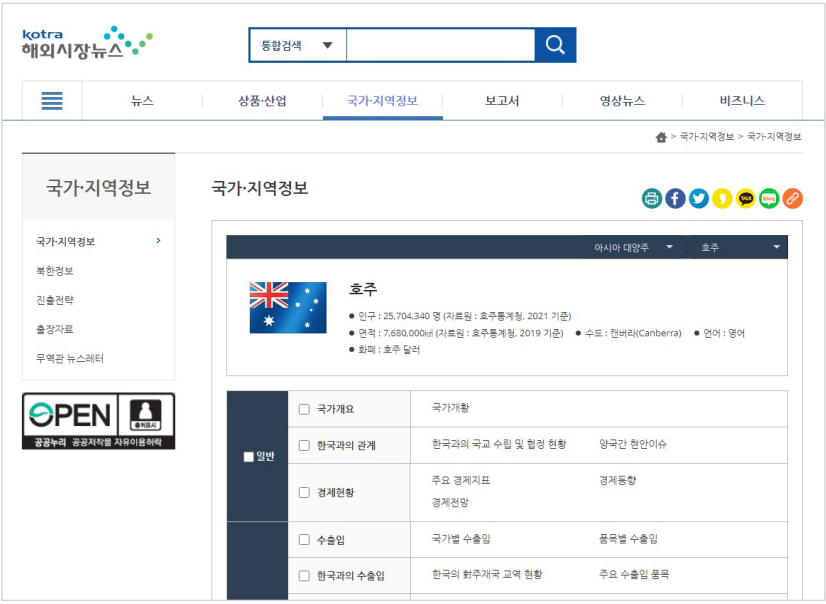
(2) 영문/일문 이력서 첨삭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이니 구인공고에 지원하기 전에 미리 이용하자!



02. KOTRA

Kotra는 해외시장 뉴스(www.news.kotra.or.kr)를 통해 뉴질랜드 등 94개국에 대한 국가정보, 무역·투자진출 현황, 취업유망분야 등의 자료와 해취투게더 카페(cafe.naver.com/kotrajobinfo)를 통해 비자정보, 정착생활 후기 등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제공하는 국가정보



03.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는 글로벌시장 리포트를 통해 주요 국가의 해외시장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잡투게더(www.jobtogether.net)를 통해 해외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04.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트 서비스(BSNS) 이용

최근 BSNS는 프로페셔널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경력, 관심 분야에 대해 어필함으로서 개인에게는 새로운 구직의 장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구인 시 인재풀이 제한적인 부문을 중심으로 BSNS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구인자 입장에서도 동종 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이력 관리를 통해 잡오퍼를 받거나 글로벌 인맥을 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미의 경우 추천에 의한 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BSNS를 이용하여 네트워킹 관리를 하는 것이 해외취업 시 많은 도움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구직용 BSNS인 링크드인(Linkedin)의 활용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링크드인 활용방법

회원가입

www.LinkedIn.com 접속
> 성명, 이름, 이메일
등록 후 계정만들기

프로필 작성

프로필 : 학력, 경력 등 기재

채용공고 검색

채용 기업 검색 및 찾기

지원하기

기업 지원하기

BSNS 활용 방법

항목	내용
프로필 구축	• 전문성과 자신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프로필 사진 첨부 • 경력사항을 자세히 기재. 특히, 담당했던 업무나 프로젝트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이미지 등을 함께 추가 • 취미, 특기 같이 업무 외에 자기를 잘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지속적인 활동	• 본인이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관심사나 역량과 관련된 컨텐츠를 작성하거나 리서치 컨텐츠를 공유. • 지인들이나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자신에 대한 추천 글 요청
관심기업 등록	• 관심 있는 회사를 관심기업으로 등록한 후 회사에서 올리는 컨텐츠를 파악하여 최근에 동 회사가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파악. 이러한 실시간 정보는 추후 회사 면접 과정에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음
채용공고 확인	• 최근 다수의 호텔들이 BSNS를 통해 구인공고를 하는 기업이 늘고 있음. •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관심 기업 그리고 관심 직무 및 포지션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관련된 채용 공고 및 트랜드를 지속적으로 확인

체크포인트

자력으로 취업에 성공한 한국인 구직자들에게 일부 취업알선업체들이 연락을 취해 와서 자신들이 알선하여 취업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횡령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K-Move 센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관련 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즉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02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 활용하기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취업 단계별로 정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지원금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 지원절차 등 사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취업준비단계별 해외취업지원프로그램 현황

구분	추천 프로그램	비고
관심	해외취업센터 상담	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센터 (카카오 실시간 채팅상담 / 전화, 이메일, 방문상담, 온라인 화상상담 등)
	· 해외취업 설명회 · 대학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참여방법, 채용정보, 비자정보, 고용동향 등 제공(월드잡플러스 공지사항 참조)
	청년해외진출 K-Move 멘토링	국가┌직종별 멘토가 해외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온라인 콘텐츠 형식으로 전달
준비	해외취업 아카데미 (K-Learning, K-Class)(서울/부산/군산/통영 해외취업센터)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법, 글로벌 네트워킹 스킬 등 교육(월드잡플러스을 통해 신청)
	역량 강화 온라인강의	월드잡플러스을 통해 외국어, 직무 등 글로벌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제공
	청해진 대학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자 과정과 K-Move스쿨, 중장기 통합지원 프로그램
	K-Move스쿨	직무┌어학교육 맞춤형 교육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
도전	공공알선(해외취업센터) 상담	실시간 채팅상담, 전화, 방문상담을 통한 상세상담
	월드잡플러스 구인공고 지원	국내외 K-Move센터를 통해 발굴┌모집된 해외구인기업과 구직자 매칭
	해외취업박람회	(공단, KOTRA, 한국무역협회 등)기업과 구직자의 온┌오프라인 채용 면접을 통해 해외취업 지원
	민간 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국내외 민간알선 기관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매칭
성공	해외 K-Move센터 헬프데스크	해외 17개소(KOTRA,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취업자의 해외정착 지원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	취업자의 조기 정착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금 지급(1, 2, 3차)
	해외진출 성공수기 공모전 지원	해외취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해외취업 정보와 노하우 제공
	취업자 경력관리 및 이(전)직 지원	월드잡플러스 경력관리시스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취업자의 현지정착 지원, 경력이동경로 파악, 이(전)직 지원 등

01. 해외취업센터

센터에서는 해외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시 채용관 운영을 통해 면접을 지원하며, 해외취업 정보제공,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역량진단, 설명회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해외취업센터 현황

구분	내용
온라인 상담신청	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상담->방문상담예약
서울해외취업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402호(02.6964.7071~7077)
부산해외취업센터	부산 진구 중앙대로 993, 롯데골드로즈빌딩 610호(051.715.7017~7020)
군산청년 해외취업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내항 1길4, 상공회의소 4층(063.443.1558)
통영청년 해외취업센터	경남 통영시 충렬로 31, 통영청년센터 2층(055.648.6544, 055.649.6544)

해외취업센터 이용정보

구분	내용
해외취업상담	방문, 전화, 이메일, 온라인 화상상담(해외취업 알선 지원) 실시간 채팅 상담(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상담>실시간 채팅문의)
해외취업 아카데미 (무료)	해외취업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글로벌 인재의 조건, 영문/일문 이력서 작성법, 면접 요령 등 강의) 신청 : 매월 신청 진행, 기수당 정원 50명 내외로 선발
해외취업 알선	구인기업, 구직자 발굴 및 취업 알선
상시채용관	기업의 채용 설명회 및 (화상)면접 장소 제공 해외취업동아리 스터디 공간 제공

※ 아카데미 과정은 수요를 반영하여 유동적으로 운영(IELTS 시험대비반, 독일 취업반 등)

02. 청해진 대학

청해진 대학은 해외 구인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연수과정을 장기적으로 대학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편성·운영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청해진대학 사업 운영기관 현황(2021년 3월 기준)

기관명	국가	연수과정명	연수직종
대구보건대학교	일본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전문가 연수과정	의료
동명대학교	베트남	일본 IT (I-Construction) 콘테크 전문가 양성과정(1기)	사무
동명대학교	멕시코	2021년 TU 글로벌 비즈니스 매니저 양성과정(2기)	사무
동의과학대학교	미국	2021년 일본취업 자동차 부품 및 기계설계 과정	기계/금속
동의과학대학교	일본	2021년 일본취업 자동차 와이어하네스 설계과정	기계/금속
백석대학교	일본	5차년도 청해진 대학 미국 특급호텔 경영관리자 육성과정	사무
부산외국어대학교	미국	[청해진_4차] 베트남 무역물류사무직 과정	사무
선문대학교	베트남	선문대학교 일본 IT 프로그래머 양성과정	IT
선문대학교	일본	K-서비스 전문인재 양성과정	서비스
영남이공대학교	일본	일본 취업비자 취득 IT & 자동차 취업 연수과정	IT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일본향 웹 모바일 프로그래머 전문가 양성과정	IT
한양여자대학교	일본	일본 스마트 IT 개발자 취업과정	IT

03. K-Move스쿨

K-Move스쿨은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외국어, 직무, 해외문화 및 직장예절 등 구인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K-Move스쿨 사업개요(2019. 11월 현재)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민간)대한민국 국민 중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30%범위 내에서 연령초과자 선발가능)나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에 부합하는 자 ▪ (대학)대한민국 국민 중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서 사업 참여 학교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 재학 중인자로 연수종료 후 해외취업이 가능한자 ※ 휴학생은 참여 불가 **지원제외대상** ▪ 연수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공단의 해외취업 연수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는 자 ▪ 연수종료 후 취업률 산정기간 내 졸업 및 해외취업이 불가능한 자 ▪ 연수 참여(예정)일 기준 고용보험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중인 자 ▪ 연수개시일 1년 이내에 8개월 이상 연수 또는 취업 대상 국가에 해외체류 사실이 있는 자(교환학생 체류기간 등 예외 인정) ※단, ①해외 유학생 대상 모집으로 선정위원회를 통해 승인받은 과정 및 국내교육 구성이 연수과정의 50%이상인 과정은 참가가능, ②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예외 인정
연수분야	IT, 경영사무, 외식조리, 무역물류 등 해외취업이 가능한 분야
연수국가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중남미, 중동 등
연수 기간	(단기) 200시간 이상(단, 8주 이상 구성) (장기) 600시간 이상 (트랙 II) 1,000시간 및 10개월 이상 ※ 트랙 II : 1일 8시간 이하/주말 수업 가능
연수 유형	▪ 일자리 확보형 : 구인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연수과정 후 취업으로 연계 ▪ 자격취득 또는 훈련(교육)과정 이수형 : 해당국 부족직군, 기술·기능 및 전문 직종으로 자격취득 또는 해당국 지정 훈련과정 이수 후 취업과 연계 * 호주 유아교육 과정, 필리핀 스킨스쿠버 강사 과정 등 ▪ 도제제도 연계형 : 호주·캐나다·독일 등 도제훈련을 운영 중인 국가의 구인업체에서 도제식 훈련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과정 ▪ 특화모델 연계형 ①신시장 개척 연계: 새로운 국가, 직종의 구인수요가 있을 시 연수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 과정 ② 과정평가형 자격 연계: 과정평가형 자격과 연계하여 연수과정 후 취업 연계 과정
지원 금액	(단기) 1인당 최대 580만 원 (장기) 1인당 최대 800만 원 (트랙 II) 1인당 최대 1,350만 원 - (민간) 개인부담금 : 정부지원금의 20% 이내(신흥시장 취업 과정의 경우 10%) (대학) 개인부담금 없음
취업현황	2018년 기준 68.03% (3,560명 중 2,422명 취업)
신청방법	월드잡 플러스 검색 후 지원(일자리찾기-해외연수)

K-Move스쿨 신청 및 취업절차

구분	내용
①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온라인 접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등록)
② 모집공고 지원	과정별 모집요강 확인 및 지원
③ 연수생 선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④ 연수 실시	오리엔테이션 및 연수실시
⑤ 취업 알선	해외기업 알선 및 면접(일반적으로 연수과정 80% 경과 후)
⑥ 사후 관리	연수 종료 후 1년까지

K-Move스쿨 주요과정(2021년 3월 기준)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일본	장기	(사)국제경영원	일본 서비스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정(취업연계형)
2021	일본	장기	(사)국제직업능력개발교류협회	일본 취업 웹/모바일 개발자 연수과정2기
2021	일본	트랙 II	(사)한국무역협회	일본 IT SMART Cloud IT마스터 Plus
2021	일본	장기	(사)한국무역협회	일본 IT 41기 SMART Cloud IT마스터 과정
2021	인도	장기	ICS GLOBAL	글로벌 INDIA 비지니스 개발/운영 실무인력 양성과정 5기
2021	미국	장기	가톨릭관동대학교	6기 미국 해외취업 글로벌 물류유통관리자 연수과정
2021	미국	장기	가톨릭관동대학교	5기 미국 해외취업 국제 관광경영관리자 연수과정
2021	싱가포르	단기	가톨릭상지대학교	싱가포르 글로벌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강남대학교	일본IT취업 Java Enterprise Developer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건국대학교 (GLOCAL 캠퍼스)	일본 ICT 전문가 양성과정 2기
2021	베트남	장기	건국대학교 (GLOCAL 캠퍼스)	베트남 제조업 SCM 실무자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건국대학교 (GLOCAL 캠퍼스)	미국취업 경영정보시스템 활용 실무자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일본] JAVA/웹 프로그래밍 전문가 양성과정 2기
2021	캐나다	장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캐나다 유아교사 및 보조교사 전문가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경성대학교	경성대학교 [미국] Global 비즈니스 전문가 해외취업 연수과정(6기)
2021	미국	장기	경성대학교	[미국] Global Art Design 전문가 해외취업 연수과정(6기)
2021	일본	장기	경성대학교	[일본] Global IT 융합 전문가 해외취업 연수과정(3기)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말레이시아	장기	계명문화대학교	말레이시아 글로벌 기업체 인력양성 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국립안동대학교	2021년 베트남취업 품질/생산 중간관리자 2기 연수 과정
2021	베트남	단기	글로벌취업센터	베트남 생산관리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2기
2021	일본	장기	남서울대학교	일본취업 자바 웹 프로그램밍 전문가과정 5기
2021	멕시코	장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중남미관리직 취업연수과정(5기)
2021	일본	장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본 자동차설계 엔지니어(카티아) 취업연수과정(3기)
2021	미국	장기	대구보건대학교	미국 치과기공 전문가 연수과정
2021	미국	단기	대림대학교	미국 특급호텔 셰프 양성과정
2021	미국	단기	대림대학교	미국 특급호텔 호텔리어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동명대학교	TU 미국 글로벌 기업 사무 실무자 연수 과정
2021	미국	장기	동서대학교	미국 그래픽디자이너 양성과정(7기)
2021	미국	장기	동서대학교	미국 패션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10기)
2021	미국	장기	동서대학교	미국 IT엔지니어 양성과정(6기)
2021	미국	장기	동서대학교	미국 무역물류프런티어 양성과정(8기)
2021	베트남	장기	동서대학교	베트남 경영지원 전문인력 양성과정(4기)
2021	일본	장기	동서대학교	일본 IT엔지니어 양성과정(5기)
2021	싱가포르	단기	동서울대학교	싱가포르 식음료조리분야 정규취업 연수과정 6기
2021	미국	장기	동아대학교	미국 테크니션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0기)
2021	미국	장기	동아대학교	미국 물류무역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0기)
2021	미국	장기	동아대학교	미국 비즈니스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0기)
2021	미국	장기	동아대학교	미국 디자인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0기)
2021	호주	장기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호주 호텔 조리 & Hospitality 자격증취득 및 취업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동의대학교	베트남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과정 2기
2021	미국	장기	동의대학교	미국 기계IT기술 전문가과정 7기
2021	미국	장기	동의대학교	미국 비즈니스 전문가과정 7기
2021	미국	장기	동의대학교	미국 아트디자인 전문가과정
2021	베트남	장기	㈜디앤에스코리아	베트남취업 제조기업 관리자 연수과정(군산)
2021	일본	단기	㈜디앤에스코리아	일본취업 항공 여객운송 연수과정(4월5일)
2021	일본	장기	㈜디앤에스코리아	일본취업 IT엔지니어 전문인력 연수과정
2021	미국	단기	백석대학교	미국 호텔리어 전문인력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백석대학교	일본 IT 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 6기
2021	일본	장기	백석대학교	일본 IT보안 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 5기
2021	태국	단기	백석대학교	태국 Global Sport Protector 전문인력 양성과정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필리핀	단기	백석문화대	필리핀, 팔라우 스킨스쿠버다이빙 전문가 연수과정(10기)
2021	홍콩	장기	백석문화대	홍콩호텔관광서비스 해외취업과정(5기)
2021	캐나다	장기	부산가톨릭대학교	치과기공사해외취업연수과정
2021	미국	장기	부산외국어대학교	한미 통번역 비즈니스 실무자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 사무분야 전문가 양성과정
2021	인도네시아	장기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 언어우수자 집중취업 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사)대경워라벨인 재개발협회	베트남 청년 중간관리자 취업지원 연수과정
2021	멕시코	장기	(사)한중남미협회	멕시코 자동차와 전자업종 사무행정 및 생산관리직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삼육대학교	Global 디자인 전문가 연수과정
2021	미국	장기	삼육대학교	미국 Global e-Biz 전문가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미국 상경8기 물류 포워딩 유통 분야 취업과정
2021	미국	장기	선문대학교	미국 디지털 시각디자인 전문가 과정
2021	일본	트랙 II	소프트엔지니어 소사이어티	일본 IT개발 7기 SW DevOps 마스터 과정
2021	미국	장기	신라대학교	미국 글로벌 테크니컬 실무 전문가 양성 과정 7기
2021	미국	장기	신라대학교	미국 글로벌 비즈니스 실무 전문가 양성 과정 5기
2021	일본	장기	신라대학교	일본 IT 실무 전문가 양성과정 3기
2021	베트남	장기	아데코코리아	베트남 해외취업 글로벌 무역실무 전문가양성과정
2021	호주	장기	연성대학교	호주 조리 자격증 취득 및 취업과정
2021	호주	장기	영남이공대학교	호주 요리사 자격증취득 및 취업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영산대학교	베트남 비즈니스/무역/물류인력 양성과정(4기)
2021	미국	장기	영산대학교	미국 Hospitality 전문가 양성과정 (1기)
2021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기계자동차설계 전문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자동차자동화 설비설계 전문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전기설비 전문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웹/모바일 엔지니어 전문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전자회로설계 전문가 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우송대학교	베트남 삼성협력기업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원광보건대학교	북미 디지털 심미보철사 양성과정
2021	호주	장기	원광보건대학교	호주 조리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연수과정(Certificate IV)
2021	독일	장기	원광보건대학교	독일 맞춤형 외식조리사 양성 및 취업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월드잡프렌즈	일본취업5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월드잡프렌즈	일본취업6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양성과정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미국	장기	인하대학교	[우수과정]미국 유통물류 경영지원 관리자 양성 과정
2021	베트남	단기	인하대학교	베트남 수출입 경영지원 관리자 양성과정
2021	일본	트랙 II	제이에스엘인재개발원	글로벌 ICT 전문가 양성과정 트랙 II 4기
2021	일본	트랙 II	제이에스엘인재개발원	글로벌 ICT 전문가 양성과정 트랙 II 5기
2021	일본	장기	제이에스엘인재개발원	[우수과정]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전문가과정 49기
2021	일본	장기	제이에스엘인재개발원	[우수과정]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전문가과정 50기
2021	일본	장기	제이에스엘인재개발원	[우수과정]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전문가과정 51기
2021	베트남	장기	㈜제이엠피코리아	베트남 유통 및 무역 & 생산관리자 취업과정 3기
2021	미국	장기	조선대학교	미국취업 국제경영인 양성 및 경력개발과정 6기
2021	미국	장기	조선대학교	미국취업 국제 품질관리 실무자 양성과정 1기
2021	대만	단기	㈜네모아이엔씨	대만 뷰티헤어 실무자
2021	대만	단기	㈜네모아이엔씨	대만 뷰티미용 실무자
2021	일본	단기	㈜더드림버스	일본 항공 여객 운송서비스직 취업과정 1기
2021	베트남	트랙 II	㈜드림힐	[트랙 II]베트남 제조기업(전자/자동차) 중간관리자 취업연수 4기
2021	중국	장기	㈜드림힐	중국진출 한국기업 사무관리직 11기
2021	멕시코	장기	㈜드림힐	중남미 중간관리자(자동차/전자)취업연수과정 3기
2021	미국	장기	㈜리얼스톤	미국 취업 e-Biz 실무자 양성과정 2기
2021	미국	단기	㈜사이다링크	2021년 해외취업 아마존 글로벌셀러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1차 일본취업 호텔 및 리조트 매니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1차 일본취업 Java 및 Big Data 개발자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2차 일본취업 호텔 및 리조트 매니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3차 일본취업 호텔 및 리조트 매니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2차 일본취업 Java 및 Big Data 개발자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3차 일본취업 Java 및 Big Data 개발자 연수과정
2021	사우디	장기	㈜코사솔루션	[우수과정]2021년 제14차 사우디 왕립병원 및 협력국립병원 간호사 취업 연수과정
2021	사우디	장기	㈜코사솔루션	[우수과정]2021년 제15차 사우디 왕립병원 및 협력국립병원 간호사 취업 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아르케	베트남 디지털경영관리자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아르케	일본 멀티미디어융합IT개발자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아이씨엔그룹	미국 경영정보전문가 양성과정 7기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미국	장기	㈜아이씨엔그룹	미국 기업맞춤형 품질공정관리 엔지니어 양성과정 5기
2021	베트남	장기	㈜외대어학연구소	베트남 Global biz 전문가 양성 과정
2021	미국	단기	㈜워싱턴국제교류센터	제6차 글로벌 패션에디터 생산기획MD관리자 연수과정
2021	미국	단기	㈜워싱턴국제교류센터	7차 글로벌 패션에디터 생산기획MD관리자 연수과정
2021	미국	장기	㈜커리어	2021년 미국취업 Google 디지털 마케팅 실무자 운영과정 2기
2021	미국	장기	㈜커리어	2021년 미국취업 산업경영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2021	미국	단기	㈜피제이넥서스	미국취업 국제무역물류전문가(CITLS)연수과정 2기
2021	일본	장기	㈜한국능력개발교육원	일본 JAVA 웹개발자 4기 연수과정
2021	중국	장기	㈜해성인재개발원	21 중국취업 중간관리자 연수과정 (제3기)
2021	일본	트랙 II	㈜현대CAD디자인직업 전문학교	일본 글로벌자동차 3D설계엔지니어(트랙II 4기)
2021	일본	장기	㈜현대CAD디자인직업 전문학교	일본 3D자동차부품기계설계 10기
2021	일본	장기	코세아인재개발원㈜	일본 웹프로그램개발전문가 연수과정 34기
2021	일본	장기	코세아인재개발원㈜	일본 웹프로그램개발전문가 연수과정 35기
2021	사우디	장기	팍시아 주식회사	2021년도 제3차 사우디 보사부 국립병원 및 협력병원 간호사 취업 연수
2021	미국	장기	한국교통대학교	미국 빅데이터 기반 경영시스템 실무자 양성과정
2021	베트남	트랙 II	한국능력개발직업전문학교	베트남 한국기업 생산성향상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2021	호주	장기	한국영상대학교	호주 호텔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2021	베트남	장기	한국표준협회 전북지역본부	베트남 품질·환경·안전 중급관리자 과정
2021	미국	장기	한남대학교	미국 경영지원 실무행정인력 양성과정 7기
2021	미국	장기	한성대학교	미국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2021	싱가포르	단기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싱가포르 호텔실무자 취업연수과정 18기
2021	미국	단기	㈜해외인턴쉽교류센터	[미국] 글로벌 패션분야 전문가 24기 해외취업연수과정
2021	영국	단기	㈜해외인턴쉽교류센터	[영국]디지털 컨텐츠 디자인 과정 2기 해외취업 연수과정
2021	일본	트랙 II	㈜헥사곤지엠아이	2021년 일본취업 기계/자동차설계 엔지니어 전문가 연수과정 (5기)
2021	일본	단기	㈜헥사곤지엠아이	2021년 일본취업 공항지상직 연수과정(6기)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베트남	장기	㈜헥사곤지엠아이	2021년 베트남 국제무역 및 생산/품질 관리자 연수과정(2기)
2021	베트남	장기	㈜헥사곤지엠아이	2021년 베트남 국제무역 및 생산/품질 관리자 연수과정(3기)

04. 민간 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해외취업은 민간 해외취업알선 기관(리크루트사)을 통하여서도 가능하다.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기관 중에서 월드잡플러스를 통하여 해외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이 성사된 경우 구직자를 대신하여 공단에서 알선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05. 취업자 경력관리 및 이(전)직 지원

경력관리시스템(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자의 직무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개인별 경력관리 플랫폼

설문조사

해외취업자의 취업만족도, 직업이동경로, 희망서비스 등 조사

→

- 해외취업자의 체계적인 경력관리 지원
- 해외취업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 활성화

→

향후 계획(예정)

- 국내 재취업 등 이(전)직 지원

향후 계획

- 패널조사를 실시하여 해외취업자의 직업이동경로를 장기적으로 파악

체크포인트

경력관리시스템은 역량개발 및 직무경험을 구직 단계부터 취업 후 국내 복귀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력관리 플랫폼으로 해외취업 준비자, 취업자, 취업 후 국내복귀자 등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다.

03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한 사전 구직등록 이후 해외취업에성공한 청년들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공단에서 취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다. 자격요건, 지원절차, 지원금액 등 사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금액	지원방식
지원금 우대국가	600만원	(1차) 취업후 1개월 : 3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 200만원 지급
선진국 분류국가	400만원	(1차) 취업후 1개월 : 2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 100만원 지급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후 승인 순(선착순)으로 지원
※ 지원금우대국가 : 선진국 분류 25개국을 제외한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 선진국 분류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홍콩

지원대상 및 취업 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① 만 34세 이하인 자 ②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근로계약서 작성)한 자
취업 인정기준	① 취업비자 :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한 비자(취업국가 영주권자 또는 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워킹홀리데이비자는 공단사업(취업알선, 연수사업)을 통한 취업자만 인정 ② 취업직종 : 단순노무직종 제외 - 청소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 육아도우미) 등 ③ 임금수준 : 연봉 1,600만원 이상 ④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체크포인트

(1) 취업 전에 반드시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만 해외취업 후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은 '월드잡플러스-마이페이지-정착지원금 신청하기'메뉴에서 하세요.
(3) 신청 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취업사실확인(K-Move/EPS센터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을 받아야 하며 K-Move/EPS센터 확인은 월드잡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1차 지원금은 근무 시작 1개월 이후부터 4개월까지, 2차 지원금은 동일기업에서 근무시작 6개월 이후부터 8개월까지, 3차 지원금은 근무시작 12개월 이후부터 14개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5) 정착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월드잡플러스 경력관리시스템에 본인의 취업경력(취업처, 재직기간 등)을 입력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PART

04

해외취업 사례

01

성공사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세상은 보여줄 게 없다

-

02

성공사례

꿈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마

-

03

실패사례

농장생활은 블랙홀이다

-

04

실패사례

자신의 목표가 뭔지 정하고 가라

01 성공사례 – 떠나지 않는 이에게 세상은 보여줄 게 없다

출처 : 월드잡, 2016 K-Move 해외진출 성공수기집

3년 남짓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쳇바퀴 같은 삶을 이어가던 중 오래 전부터 품어 온 해외 간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결심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삶이 쉬울 리 없었다.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불안의 날들을 견디고 홈케어 전문 기관에 취업해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간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내 길을 가는 중이다.

나의 꿈 해외 간호사

나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 신입 시절엔 내가 보살피던 환자가 돌아가시면 보호자 따라서 나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한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쉽게 빠지던 내가 3년 남짓 다니다 보니 환자들의 죽음에도 무뎌지고 매너리즘을 느끼게 되었다. 언제까지 환자들을 돌보고, 병마와 치열하게 다투며 살아야 하는지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함과 회의감으로 매일 하루를 마감하고 집에 가면 지쳐 쓰러져 잠들기 바빴다. 그럴 때마다 되새겼던 나의 꿈이 해외 간호사였다. 때가 되면 떠나리라 희망을 놓지 않고 기다리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K-Move 스쿨 Aged care 해외교육진흥원의 모집 공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우선으로 뽑는다니 나에겐 사막의 오아시스마냥 느껴졌다. 이십대 초반부터 꿈꿔 왔던 해외 생활. 일도 하면서 돈도 벌고 영어도 배울 수 있는 삼박자를 다 갖춘 호주 워킹홀리데이. 그곳에서 나의 간호사 경력을 살려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니 바로 이거다 싶어서 지체 없이 수속을 진행했다.

소식을 들은 간호사 동료들과 팀장님은 내가 그만두고 마주칠 현실,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설득시키려 했다. 친구들도 몇몇은 응원해 주었지만 대부분은 안정된 직장을 왜 때려치우느냐며 이해가 안 간다는 눈길로 쳐다보았다. 그런 말과 눈길에 상처받기보단 묵묵히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가장 큰 걱정은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부모님의 기대치가 양어깨에 짊어진 짐처럼 늘 무거웠는데, 내 욕심을 앞세워 그 짐을 내려놓으려니 마음이 영 좋지 않았다. 부모님과 술 한 잔 하면서 어렵게 퇴직 의사를 꺼냈고, “네가 어디를 가든 너의 길을 응원해 주겠다”는 말에 눈물을 펑펑 흘렸다. 그리하여 나는 부푼 마음으로 호주가 아닌 필리핀으로 떠났다.

좋은 추억으로 가득한 필리핀 어학연수

대학 졸업 후 영어는 손을 놓고 살았던 터라 자신이 없어 택한 필리핀 세부 2개월 어학연수. 처음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같은 방 룸메이트 외국인들에게 '신발 벗어도 돼?' 이 한마디를 못해서 어리벙벙하게 굴며 온몸으로 보디랭귀지를 하던 내가, 영어울렁증 때문에 쉽게 말문을 트지 못하며 전전긍긍하던 내가, 필리핀을 떠날 때는 외국인들과 영어로 편지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실력이 늘어, 마지막 월말 시험에선 중급자 레벨까지 끌어올리며 5등 안에 드는 영광을 누렸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2개월의 세부 어학연수는 앞으로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어 주었고, 여러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며 한국문화와는 또 다른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평일엔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마다 친구들을 모아 세부 근교로 여행을 다녔다. 일본과 대만의 친구들과 함께했던 1박 2일 카모테스 섬 투어, 고래상어로 유명한 오슬롭의 스노클링, 저가 항공사의 프로모션을 적절히 활용해 왕복 8만원 티켓으로 다녀온 보라카이 여행은 지금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의 시작

호주에 도착 후, 시드니의 머큐리 대학에서 17명의 친구들과 시작하게 된 Aged care 과정은 사실 내 생각과는 사뭇 달랐다. 간호사로 일하고 온 나에게 RN(Registered Nurse: 공인간호사)이 아닌 AIN(Assistant in Nursing: 간호조무사)에 관한 공부들이 주어졌다. 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과제들 때문에 가끔씩 너무 벅차 주저앉아 넋 놓고 바라보기만 하다가 주말마다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한국어로 해도 어려운 주제의 과제들을 영어로 하나하나 작문을 해가며 내 의견을 표현하는 데 한계에 부딪혀 자괴감을 느낄 때면 후회가 밀려와 나 자신을 무너뜨렸다. 그때마다 한국에서 오직 자식 잘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을 부모님 생각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또 발음이 이상하거나 생소한 내용들은 담임이었던 칠레 선생님, 유지니아에게 물어보며 차근차근 배워 나갔다.

약 5개월간의 이론 공부가 끝나고 2016년 2월 8일부터 2주간 양로원(Nursing Home)

에서 실습 트레이닝을 받게 되었다. 무작위로 배정받은 실습지는 시티에서 한 시간 넘게 떨어진 맨리 지역의 여성 치매 전문 양로원이었다. 치매 환자들이 내뱉는 알아듣기 힘든 말들, 기억상실, 이따금씩 나오는 폭력적인 행동들은 이미 한국에서 경험해 본 터라 덜컥 겁이 났다. 한국말로 해도 알아듣기 힘들어 치매 환자들과의 소통에 애를 먹었는데, 내가 과연 영어로 그들과 원만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실습을 나가기 전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우며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실습지로 향했다.

한 달 반의 노심초사 끝에 성공한 취업

나의 반가운 인사에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응시하던 할머니 치매 환자들이 맨 먼저 눈에 들어왔다. 첫인상이 엄격해 보이던 엠마라는 매니저에게 기본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선생님 한 분과 짝을 이뤄 같이 일을 시작했다. 1주일간 나를 교육해 주신 너무나 친절했던 피지에서 온 나의 선생님, 펠레. 이건 정말 쉬운 일이라며 계속 허둥대던 나에게 조언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말라며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다.

잠들어 있는 노인들을 깨우는 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는데, 침구 정리부터 샤워, 옷 갈아입히기, 용변 보기, 음식을 일일이 떠먹여 주는 일까지 어느 하나 AIN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밥을 먹이는 일도 치매 환자들에겐 음식이 폐로 들어갈 수 있어 신경을 써야 했다. 주의해야 할 일들이 한 둘이 아니었고, 침구 정리도 내가 집에서 하던 방법이 아닌 그들만의 방법을 배워 나가야 했다. 아침식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점심시간이 왔다. 그렇게 정신없이 할머니들을 챙기며 뛰어다니다 보니 여덟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고,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2주 동안 선배들의 꼼꼼한 가르침 덕에 혼자서도 할머니를 돌보고 어려운 기구들은 혼자서 척척 사용하며 AIN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다. 덕분에 마지막 날, 양로원 관리자와 매니저가 너무 잘했다며 같이 실습한 언니와 함께 자기네 양로원에 고용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그 순간 2주간의 고생은 날아가고 나의 미래가 탄탄대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취업은 예상과는 달리 쉽지 않았다. 알고 보니 지원했던 양로원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사람은 뽑지 않는 곳이라 다른 곳에 이력서를 내야 했고, 그마저도 사람이 이미 찼거나 비자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그렇게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을 취업에 힘썼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던히 노력했다. 생활고와 취업난을 견디다 못한 몇몇 친구들은 한국으

로 돌아가거나 다른 일자리를 구하러 떠나기도 했다. 그때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꼭 해내겠다는 믿음 하나로 견뎠다. 지지부진한 하루에 경제력과 심적인 부담감이 한계에 다다를 즈음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AFEA라는 홈케어 전문 기관에 서류 심사, 면접까지 통과하고 계약서를 쓰고 나서자 마음고생으로 밤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던 날들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 그동안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렸지만, 현실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나 자신이 너무 고마웠다.

낙담하지 말고 내 길을 가자

호주에 와서 멋진 풍경, 맛있는 음식, 화려한 야경,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 즐기며 늘 좋은 것만 보고 느끼던 내게 홈케어는 또 다른 면을 보여 주었다. 텅 빈 집에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들, 음식을 스스로 요리할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어 돌보는 사람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장애인들, 돌봄이 절실한 치매 노인들 같은 호주의 어두운 이면을 보고 느낀 시간이었다. 마음이 아파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어 짧은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고, 그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해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처음엔 영어로 서투른 동양인 여자애가 와서 왜 저럴까 경계심을 늦추지 않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마음을 열어 주었고, 그들과 친밀감이 쌓일 때마다 나의 조국,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갔다. 방문할 때마다 한국 과자, 차 등을 선물했고 가끔씩 한국 요리도 만들어 주었더니 나중에 자주 놀러 오라는 말로 따뜻함을 전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이병률 산문집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 '세상의 경계에 서보지 않은 나에게, 세상은 아무것도 가져다 줄 게 없다.' 떠나지 않은 이들에게 세상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 나 역시 떠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며 대학병원에 계속 머물렀더라면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영어 울렁증으로 외국인들만 보면 도망을 가던 내가 이젠 그들과 능숙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지레 겁을 먹고 불안해하던 모습이 이제는 우습게 느껴진다. 불가능 또한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이번 도전은 앞으로 뭐든 해낼 수 있다는 나에 대한 믿음과 앞날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도전하는 자에게 길은 열려 있다. 가진 게 없다고 낙담하지 말자. 문밖의 길들은 다 당신 것이다. 나는 최종 목표인 '해외 간호사'가 되기 위해 묵묵히 내 길을 갈 것이다.

02 성공사례 – 꿈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마

출처 : 월드잡, 2016 K-Move 해외진출 성공수기집

내 꿈은 한결같았다. 비행기를 정비하는 항공정비사가 되는 것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호주의 항공학교에 입학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하지만 취업문은 열리지 않았다. 국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릎을 다쳐 큰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K-Move 멘토링> 덕에 멘토의 도움으로 호주의 한 헬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포기하지 않고 정진한 덕에 고용 연장을 약속받았다.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 당신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내 꿈은 항공정비사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나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었고, 내 가슴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 부모님 덕분에 또래 친구들보다 비행기를 타볼 기회가 조금 더 있었다, 큰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는 순간의 설렘을 누구나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우렁찬 엔진 소리를 배경 삼아 롤러코스터의 정점을 향해 오르는 짜릿한 기분. 나는 그때부터 비행기에 관심을 두고 좋아하게 되었다.

여자 항공정비사가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한국을 떠나 호주에 첫발을 디딘 그날을 잊지 못한다. 한국과는 다른 넓은 대륙과 광활한 자연, 그리고 즐겁고 여유로운 호주 사람들. 내가 지낸 곳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짧은 어학연수를 마치고 내 꿈의 준비 과정이자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호주의 한 항공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학업 과정은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았다. 먼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과 실습, 그리고 통과 아니면 불합격의 기준이 되는 깐깐한 시험, 1점만 모자라도 그 과목은 불합격 처리가 되고 남은 4주 동안 나머지 공부를 해야 하며, 그 뒤에 다시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 체계가 때로는 굉장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낙오자가 나왔고, 반 정도의 학우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내가 여기서 이걸 견디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다짐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다. 아침에 있는 자율 실습도 자진해서 참여했고, 방학 때도 학교에 나가 실습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나를 아는 학교의 직원들이 '워커홀릭'으로 부를 정도였다. 덕분에 100% 출석률로 무사히 시험에 통과했고, 졸업 시에는 상장도 받게 되었다.

나는 자신감이 붙었고, 어떤 회사든 들어가서 내 꿈을 펼칠 수 있으리란 기대로 구직 활동에 나섰다. 이력서를 들고 여러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나 자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여러 번 얼굴을 비치며 회사에 가서 내 상황을 설명했고, 어디서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로 인사 담당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호주에서 경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그것도 항공정비사의 기회를 주는 일은 드물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대형 항공사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면접을 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작은 회사들은 한국 자격증을 중시해서 내가 호주에서 배워온 것들은 큰 의미가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시련이 닥쳤다.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다. 고등학생 때도 같은 부위를 다쳐 한동안 재활 훈련을 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한 것이다. 무릎을 굽히거나 펼 수 없는 상태라 수술을 바로 하기도 힘들었다.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복귀할 날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나이가 스물아홉 살이었고, 빠르게 회복하더라도 다시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나이는 서른이나 서른한 살은 되어야 했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 나이로는 결코 적지 않았고, 내가 항공정비사가 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만 같아 고민도 깊어지고 자괴감도 많이 느끼던 시기였다. 하지만 수술이 끝난 후에도, 휠체어에 앉아 있던 그 순간에도, 재활 훈련을 하는 그 시간에도 내 머릿속의 꿈을 떨칠 수가 없었다. 내가 이대로 포기한다면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나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나는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되었다. "내 마음이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 도전해 보자!"

K-Move 멘토링으로 기회를 잡다

회복기 동안 인터넷 검색을 하고 해외 취업 상황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월드잡플러스에서 <K-Move 멘토링>을 알게 되었다. 멘토 분들을 검색하던 중에 한 분이 눈에 확 들어왔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항공 관련 일을 오래 해온 분이어서 내가 조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멘티를 신청하게 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 멘티들과 어울리거나 따로 멘토를 만나면서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이

나 해외 항공 현황들을 알게 되었다. 또 멘토의 주선으로 현직에서 일하는 선배들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현장의 상황과 해외 경험담, 항공정비사의 기본자세 등 큰 배움을 얻었다.

멘티 활동을 시작하고 2년 뒤에 나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멘토님이 알고 있던 호주의 한 헬기 회사에서 일을 해볼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내가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을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로 호주 땅을 밟게 되었다. 도착한 첫날 회사 직원이 마중을 나와 내가 단기간 머물 회사 기숙사로 데려다 주었다. 가는 길에 광활한 자연을 보니 다시 고향에 온 것처럼 너무 반갑고 들뜬 마음이었다.

아침에 도착한 나는 짐 정리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다. 회사 측에서 제시한 첫 수습 기간은 2~3주, 그 시간의 평가로 내가 여기서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었다. 학교에서 느꼈던 분위기와 실제 현장의 분위기는 크게 달랐다. 회사가 바쁠 시기라 모든 일들이 빨리 진행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묻거나, 눈치껏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다니며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우리 파트의 주 업무는 전기, 전자와 관련된 일이었다. 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점을 파악해 보수를 하거나 잘못된 전기 배선이나 회로 등을 다시 만들어서 기계가 작동하도록 했다. 나는 팀원들과 함께 문제의 해결점을 찾았고, 간단한 작업들은 내가 해결하거나 수리에 나서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팀원들과 다른 회사의 직원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 주었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좋은 이미지를 심으려 노력했다. 수습 시간 동안 설레고 행복했다. 내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정말 원하던 그 일을 하러 가는 출근길에는 콧노래가 저절로 흘렀다. 미래의 일이 어떻게 풀릴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꿈을 향해 정진하다

드디어 결정의 날이 찾아왔다. 일하는 도중에 인사 담당자가 와서 “일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6개월만 고용해야 할 것 같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남기고 발길을 돌렸다. 경력이 없는 나를 붙잡아 두기에는 비자 진행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

았다. 6개월 뒤에는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아쉽기도 하고, 한국에 가서도 항공 엔지니어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후회 없이 이 시간들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졸업 후 구직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단 한 번이라도, 정말 긴 기간이 아니어도 좋으니 내가 꿈꿔 온 일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이 자리에 있고, 이 공기를 마시며,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에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난 셈이었다. 회사의 결정이 나온 후에도 나는 좌절하지 않고 더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위해, 팀원으로서 도움이 되기 위해 밤이 늦도록 혹은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프로젝트를 진행할 정도로 모든 열정을 쏟았다. 피곤해서 집에 가서 쓰러지는 날이 있어도,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는 실망감이 밀려와도, 내가 일을 하는 이 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이다.

본연의 나를 찾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며 쉬고 있는데 사장님이 날 찾아왔다. 간단한 안부 인사를 하더니 "이제부터 훈련생으로 시작해도 좋다. 비자는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더 지낼 수 있는지 알아보자"고 했다. 나는 믿기지 않아서 "Really? Really?"하며 계속 물었다. 그러자 사장님은 "그게 네가 원하던 것이 아니냐"며 웃으며 말을 받았다. 난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울컥할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바로 팀장님을 찾아갔다. 알고 보니 팀장님이 사장님을 먼저 만났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좋게 본 팀장님이 기회를 한번 주자고 말했고, 사장님이 고심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행동들이 빛을 본 순간이었다.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정진한다면 기회라는 것이 오고, 그걸 넘어선 기적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몸소 느꼈다.

가슴을 뛰게 하는,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자

나는 아직도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 꿈은 라이선스를 가진 항공정비사가 되어 비행기가 뜰 때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한 분이 말씀하셨다. "항공정비사라는 것은 어쩌면 의사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직업일지 모른다. 의사는 자신의 실수로 한 명의 목숨을 잃게 할지 모르지만, 항공정비사는 그 실수로 몇 백 명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막중한 책임감과 투철한 직

업 정신으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한다.”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과정들과 거쳐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나는 이제 첫발을 디딘 것이나 다름없다. 항공학교를 졸업하고 이 첫발을 내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다사다난했던 나에게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한때는 내 꿈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미련이 남아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 적이 많았다. 주위에서도 그 꿈을 버리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현실을 인정하고 다른 길을 찾으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이고 평범하게 남들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 마음이 흔들린 적도 있다. 나는 그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하면 꼭 나 자신을 버리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취업난이 악화되면서 해외 취업을 지향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처음부터 뜻대로 진행이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홍수같이 넘쳐나는 정보들 중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눈을 길러야 한다. 월드잡플러스나 해외 취업 사이트, 본인이 원하는 직종과 연관된 사이트들을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취업 동향을 읽고,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을 따거나 경험을 쌓으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해외 취업박람회나 상담회, 후기 등 간접 체험의 기회도 실전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눈앞의 난관과 환경에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가슴이 시키는 일을 상상해보자.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무한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03 실패사례 – 농장생활은 블랙홀이다

출처 : 강태호, 호주 워킹홀리데이 완정정복 Q&A, 라의눈, 2014

호주 오기 전에 저 또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왔지만 막상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호주만 가면 다 될 거라는 생각은 저만의 착각이었고, 똑같은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호주 생활을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는 형이 농장계획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제 친구는 그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로 하였고, 농장에 가면 돈도 많이 벌고 생활 또한 재미있다는 생각을 한 우리는 급물살처럼 준비하여 브리즈번 근교에 있는 게톤의 양파농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멤버들은 한 달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일만 해서 만 불이라는 성과를 올리고 다시 도시로 돌아와 각자가 꿈꿨던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농장 첫날 양파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40도가 넘는 기온 속에서 한 시간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루종일 일해도 100불은 커녕 50불 벌기도 힘들었습니다.

우리 팀은 다시 회의를 해서 지인을 통해 다른 농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다른 농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것이 포도농장이었습니다. 그때 호주가 여름이어서 포도가 시즌이었습니다. 포도를 따면 땅바닥을 기어 다닐 필요가 없어서 일도 편하고, 포도나무 또한 커서 그늘도 있고, 박스 당 2불이라는 말을 듣고 포도가 제일 돈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포도 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시즌이라서 농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력이 있었던 반면 필요한 장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4명이었고 농장에서는 두 명분에 해당하는 장비를 줬습니다. 처음이라 2명씩 열심히 하였지만,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포도농장까지 오면서 저희는 경비가 다 떨어지고 있었고 여기서 모든 것을 벌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경험과 노하우로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었을 때 포도농장 시즌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불과 2주 만에 포도시즌이 끝나고 다시 브리즈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우리가 계획했던 농장 생활이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제 갈 데라고는 농장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블랙홀에 빠지는 느낌이라고 할까?

브리즈번에 도착하여 다시 농장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올리브농장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올리브는 진정한 대박농장이라고 아는 사람에게만 소문이 났고, 그 농장 정보는 거의 입소문조차 안 난 아주 귀한 농장정보였습니다. 일단 지역위치만 알고 저희는 올리브 농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무작정 들이대면서 농장주에게 일을 하겠다고 말

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올리브 피킹은 아직 시즌이 안 돼서 못했고 올리브 가지치기를 먼저 하게 되었는데, 말이 좋아 올리브 가지치기지 도끼와 톱 한 자루만 주고 요령을 대충 가르쳐주고 수퍼바이저는 떠났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지만, 하루 번 금액은 20불이었습니다. 더 암울한 현실은 방비와 픽업비를 빼고 나니 저에게 돌아오는 돈은 5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2주 정도를 일하고 저희는 돈을 저축하기는커녕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정도밖엔 안 되었습니다.

결국 브리즈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있던 돈이라고는 2불밖에는 없었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했는데, 제겐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브리즈번에 도착하여 저희 팀은 분열되었고, 4명에서 3명으로 준 채 농장으로 떠났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시작한 농장생활이 어느덧 1년을 넘었고 세컨드 비자를 받고 다시 대박을 찾아 농장을 떠돌아 다녔지만 어떠한 농장에도 대박은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선 14시간 일하고 100불을 벌어보고 차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어 노숙을 하였고 방이 없어 40도가 넘는 곳에서 텐트를 치고 미고냉이라는 35센트짜리 인도네시아 라면을 먹으면서 생활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추억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호주에서 돈 벌면서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농장에서 돈 벌어 학원 가시려는 분들은 한국에서 준비하고 가세요. 한국에서 돈 벌어도 그 정도는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주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 또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기초를 다지고 떠나세요. 기초 없이 공부하면 어느 정도는 도달하지만 한계에 부딪치게 됩니다. 저 또한 호주 유학에 실패한 사람이고 아직 호주생활에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입니다. 농장은 블랙홀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 농장으로 들어가세요.

04 실패사례 – 자신의 목표가 뭔지 정하고 가라

(출처 : 강태호, 호주 워킹홀리데이 완정정복 Q&A, 라의눈, 2014)

난 24세 워홀러(워킹홀리데이비자를 소지한 자)였다. 호주에서 6개월 정도 지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모습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느낀 건 바로 한가지다.

'영어회화가 목적이 아니거나, 영어를 잘하지 않는다면, 그냥 한국에서 돈 벌어서 편하게 생활해라.'

위의 말을 보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여겨지지만, 현실을 빨리 깨닫지 않으면 시간과 자신의 인생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호주에서 일하면서 '영어랑 돈', 2가지를 다 얻어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다. 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영어 얼마나 잘하시나요?"

한국에서 시급이 4,000~4,500원 정도 할 때, 호주 시급은 14,000~16,000(Tax제외)원이라서, 모두들 이렇게 생각한다. '외국은 시급도 많이 주고 영어도 쓸 수 있으니깐 외국에서 일해야지!' 큰 착각이다. 저 시급을 받는 경우는 엄연히 호주사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시급이다. 우리나라 워홀러들이 호주사장 밑에서 일하는 수는 얼마나 될까? 한국친구 15명 중 1명 있을까 말까다.

왜 극소수인 걸까? 그 의문에 답은 하나다. 영어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UPPER-INTERMEDIATE(호주 랭귀지스쿨의 영어레벨) 정도는 돼야 호주사장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다. 아마 INTERMEDIATE 정도의 레벨이라면 랭귀지 스쿨을 조금 더 다녀서 UPPER LEVEL로 졸업하는 걸 권하겠다.

내 주변 사람들 중에 INTERMEDIATE LEVEL로 졸업한 사람들은 한국사장 밑에서 술집청소, 한인식당, 세차장, 주방 설거지(키친핸드라고 칭한다) 등 허드렛일만 할 뿐이다. 그것도 시급은 9,000~10,000원을 받으면서 말이다. 방세, 식비 빼면 시급은 한국과 별다를 게 없다. 그럴 바에는 그냥 한국에서 편하게 돈 버는 게 훨씬 나은 생활이 아닐까?

PANELA SUGAR

PART

05

취업비자

01
취업비자 종류 및 발급현황
-
02
취업비자 신청 및 취득
-
03
비자 전환

01. 취업비자 종류 및 발급현황

01. 개요

최근 호주의 장기취업 비자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457비자(고용주 스폰서 비자)가 폐지되고 임시기술부족군비자인 TSS(Temporary Skills Shortage)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호주 내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외국인만을 선별해 채용하려는 조치로 호주인 우선 채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부족직업군이 중장기 전략기술직업군(MLTSSL)으로 변경됐으며, 통합부족직업군(CSOL)은 단기 기술직업군(STSOL)으로 내용 및 명칭이 변경되었다.

해당 정책 변경은 2017년 4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2018년 3월 457비자는 완전히 폐지되고 482비자, 일명 TSS비자는 기존 457비자의 수정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482비자는 호주 내의 고용주로부터 스폰을 받아 직업군에 따라 2년 또는 4년간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 호주 내 부족한 인력을 충족하기 위한 비자로 고용주는 호주 정부로부터 스폰 허가를 받아야 인력 고용이 가능하다.

호주 취업비자 개정 현황

2017년 4월 19일
• 새 직업군 리스트가 즉시 적용되어 STSOL(Short-term Skilled Occupations List) 또는 MLTSSL(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직업군 분류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이 상이하게 발급(2년 단기 및 4년 중장기) • 이미 신청되어 처리중인 457비자 신청서들도 새 직업군 리스트 기준으로 소급적용 • 일부 직종 신청 자격에 관한 규제 시행
2017년 7월 1일
• 고용부 자문에 따라 STSOL 직군에 관한 추가 발표 및 교육부 검토에 따라 변경된 MLTSSL 발표 • 기존 457 영어 면제 조건인 고액연봉 A$96,400 이상 연봉자 대상의 영어 능력 증빙 면제 제도 폐지 • 스폰서 교육훈련비 지출 의무사항에 대한 상세 제도 업데이트 •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 의무화 시행 • 186 ENS 고용주 지명 이민 프로그램과 187 RSMS 지방 후원 이민 프로그램 Direct Entry Stream으로 영주권 신청 시 나이 만 45세 미만(신청일 기준)으로 제한 • •영주권 신청을 위한 IELTS 영어점수 각 항목 6점으로 상향 조정
2017년 12월 31일
• 개인납세번호(TFN) 제출. 호주 세무부(ATO)기관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지정 연봉에 대한 사실 확인 수시 점검 예정 • 스폰서 의무 사항 위반 시 기업의 위반내용 공표
2018년 3월 1일
• TSS 비자 전면 시행 및 457 비자 폐지 • 강화된 스폰서 교육훈련비 지출 의무제도 시행 • STSOL 직군의 영주권 후원 불가능, TSS 비자로 3년 이상의 거주기간 혹은 3년 이상의 관련 직종 경력 취득 후 영주권 신청 가능 • 457 비자의 시장급여 및 최소 임금 조건이 ENS/RSMS 영주권 프로그램에 확대 적용

02. 취업비자 종류

개편된 비자제도에 따라, 호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취업비자는 아래와 같다.

호주 독립기술이민비자와 스폰서비자

비자 구분	비자 종류	기간
독립기술 이민	독립기술이민 비자 SKilled Independents Visa (189)	영주권
	주정부 스폰 비자 SKilled Nominated Visa (190)	영주권 – 최소거주 2년
	지방 주정부 스폰 비자 SKilled Regional Visa (489)	영주권 – 지방거주 2년
스폰서 비자	ENS 비자 Employer Nominations Scheme Visa (186)	영주권
	RSMS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Visa (187)	영주권 – 2년 근무 요구

호주 취업비자의 종류

비자 종류	비자 기간	비자 컨디션 및 신청 방법
Working Holiday Visa	1년	한국 만 30세 미만 누구나 신청가능 제한인원 없음
RSMS	2년	호주 대도시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2017년 3월부터 적용)를 제외한 지역 회사로 스폰서쉽을 지원받아 신청하는 비자
Training Visa (407 VISA)	최대 2년	직업훈련 비자라고 해서 기존에 402라는 비자에서 통합이 된 비자 형태로, 직업훈련 또는 전문개발을 위해 호주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
ENS VISA	2년	MLTSSL 직업군에 속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직업군으로, 한국에서 학력과 경력이 매칭이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 형태
Temporary Graduate Visa (485)	2년	호주에서 전공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대학 또는 대학원 학위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졸업생 임시 취업비자

457비자 폐지 및 TSS비자 도입관련 사항

기존의 457비자는 신청조건이 간단하고,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주어진 의무가 많지 않아 기본적으로 스폰이 가능한 회사를 찾는 경우 비자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2018년 3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TSS 비자는 고용주 의무 강화를 비롯해 총 4가지 섹션에서 취업비자가 강화된다.

호주 457비자 폐지 주요변경사항

중요 변경 사항	내용
체류기간 축소 4년에서 2년	기존 457비자는 2년에서 4년으로 비자를 고용주가 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었으나, TSS는 기본 2년+1년 연장 또는 2년 연장으로 제한(STSOL과 MLTSSL 직업군별 비자 신청 조건상이)
해당 기술군의 감소	총 509개 직업 리스트 제시 (2018.11 기준) ※ 해당 리스트는 매월 업데이트되고 있어 홈페이지 확인 필요
영어 실력 IELTS 5.0에서 IELTS 6.0	영어 능력 상향 조정 및 추후 영주권 신청 때 6.0 요구 필수
고용주 의무 강화	마켓테스트, 고용주 비용부담 $5000+$1800불

새로 도입된 482 취업비자

최근 호주의 장기취업 비자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457비자(고용주 스폰서 비자)가 폐지되고 임시기술부족군 비자인 TSS(Temporary Skills Shortage)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호주 내에서 확실히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외국인만을 선별해 채용하려는 조치이다. 쉽게 말해 호주인 우선 채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기존 부족직업군이 중장기 전략기술직업군(MLTSSL)으로 변경됐으며, 통합부족직업군(CSOL)은 단기 기술직업군(STSOL)으로 내용 및 명칭이 변경되었다.

482 취업비자 종류

Stream	Short-term Stream	Mid-term Stream	Labour Agreement Stream
요구 조건	• STSOL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에 포함된 직업군 • 비자기간 : 2년, 호주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호주 밖에서 신청가능 • 영어조건 : IELTS 5.0 (영역별 4.5) • GTE 평가 : 호주체류는 단기이며, TSS 비자 이후 호주 밖으로 나갈 것이라는 서약 • 비자 신청비 : A$1,150 (2018년 기준)	• MLTSSL (Medium and Long Term Strategic Skills) 에 포함된 직업군 • 비자기간 : 4년 • 영어조건 : IELTS 5.0 (영역별 5.0) • 영주권 : 3년 이상 근무 이후 영주비자 신청 가능 • 비자 신청비 : A$2,400 (2018년 기준)	회사가 Labour Agreement 를 소지한 경우 사용

482비자는 호주 내의 고용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직업군에 따라 2년 또는 4년간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 호주 내 부족한 인력을 충족하기 위한 비자로 고용주는 호주 정부로부터 스폰서 허가를 받아야 인력 고용이 가능하다. STSOL, MLTSSL 등의 직업군에 따라 2년 또는 4년의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일할 수 있으며, MLTSSOL 직업군에 속한 경우 3년 근무 이후 호주 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482비자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나이 제한은 없고,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영어조건은 IELTS 5.0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데, 482비자도 stream(short-term, medium-term, labour agreement)에 따라 다소 영어를 요구

하는 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 비자 신청 이전에 2년의 경력이 필요하고 승인된 노미네이션이 요구된다. 직업군에 따른 기술 및 학력조건은 지원군에 따라 기술심사를 받고 통과해야 충족된다. 호주 내에서 비자를 신청한다면 합법적인 비자 혹은 브릿징(bridging)비자 A/B/C를 소지해야 한다. 이전 비자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조건을 이행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이민법 변경으로 인해 IT, Hospitality, Tourism, 교육사업 분야 등의 호주 내 비즈니스에서의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한국인 취업비자 발급현황과 관련하여 새로운 482 취업비자가 2018년 처음 도입되면서 아직 관련된 발급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참고로, 2015년 말 한국인 457비자 소지자는 2,275명으로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자원무역이 붐을 이루던 2011~13년 사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457비자와 TSS(482)비자 비교

유형		457비자	TSS(482)비자	
			Medium and Long-Term (MTLSSL)	Short-Term (STSOL)
영어 (IELTS)	IELTS	전체 5.0	각 영역 5.0	전체 5.0
	PTE	50	50	
일 경험		자격있다면 필요없음	2년 관련 경력	2년 관련 경력
수속비용 Application Fee		Sponsorship: $420 Nomination: $330 Visa: $1,080	스폰서십(Sponsorship)과 Nomination application 동일함	
후원자 의무 Sponsor Obligations		Training Benchmark	Skilling Australians Fund(SAF) Levy	
Non-discriminatory Workforce Test		정부가 스폰서십(Sponsorship) 지원서를 평가할 때 고려함	임시비자 소유 종업원에 대한 Nomination application을 검토할 때 정부는 시민권자나 연주권자의 비율을 고려함	

03. 취업비자 발급현황

코로나 이후 국경봉쇄 등으로 임시취업비자의 적용대상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임시취업비자(TSS) 접수는 36,330건이고 그 중 승인은 28,410건이었는

데, 2021년의 경우 접수 27,190건, 승인 23,160건으로 전년대비 1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0년 임시취업비자(TSS)를 소지한 해외취업인력이 71,400명에서 2021년 55,030명으로 22.9% 감소한 상황이다.

해외취업의 경우 처음부터 영주권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임시취업비자(TSS)와 워킹홀리데이비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임시취업비자 내 최소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직무군과 기술검사항목 등을 수시로 살펴보고 확인해야 한다.

01. 취업비자 신청 시 필요서류

TSS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TSS 비자의 신청조건

2년 단기비자 (Short-term stream of up to two years)	4년 중장기비자 (Medium-term stream of up to four years)
• 비자 유효 최대 2년 (1회 연장 가능, 영주비자 신청 연결 불가능) • IELTS 영어점수 최소 평점 5점, 각 항목 4.5점 이상 • 최소 2년 이상의 풀타임 관련 경력 필요 • 노동시장 테스트(Labour Market Test) 의무화 • 최소연봉 53,000호주 달러 지급 • 범죄경력증명서(Penal Clearance Certificate) 의무화 • 호주인 비차별 테스트(Non-Discriminatory Workforce Test) 신규 도입 (채용 시 호주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는 검증) • 호주인 교육훈련 강화 • 비자 수수료: 1,150호주 달러	• 비자 유효 최대 4년 (3년 후 호주에서 연장 및 영주비자 신청가능) • IELTS 영어점수 모든 항목 5점 이상 • 최소 2년 이상의 풀타임 관련 경력 필요 • 노동시장 테스트(Labour Market Test) 의무화 • 최소연봉 53,000호주 달러 지급 • 범죄경력증명서(Penal Clearance Certificate) 의무화 • 호주인 비차별 테스트(Non-Discriminatory Workforce Test) 신규 도입 (채용 시 호주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는 검증) • 호주인 교육훈련 강화 • 비자 수수료: 2,400호주 달러

*주: 노동시장 테스트(Labour Market Test): 외국인 비자 후원 시, 호주인 선 채용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채용광고가 필수적이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국제협약이 있는 경우 면제. 한국과 호주는 KAFTA가 체결돼 있어 한국 여권 소지자는 면제대상

ENS 고용주 지명 영주 비자(Employer Nominations Scheme Visa)

ENS 비자의 신청조건

항목	내용
비자기간	임시비자(Medium-term Stream-4년 중 3년 근무 후 영주권 신청가능)
직업군	MLTSSL 또는 STSOL에 포함된 직업군
학력	직업별 요구되는 학력이 다름(관련 경력으로 면제 가능)
경력	직업군별 기술심사 필요, 호주대학 졸업 시 기술심사 면제, 경력 3년 필수
나이	만 45세 미만

영어	IELTS 각 항목 6.0 또는 OET 각 항목 B 이상 (단,직업 군에 따라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영어점수가 필요할 수 있음) TOFEL IBT: 12점 Listening, 13점 Reading, 21점 Writing, 18점 Speaking PTE: 최소 각 영역별 점수 50 CAE: 최소 각 영역별 점수 169 (2015년 1월 1일 이후 성적에 한함)
기술심사	필수 457 비자로 2년 이상 근무 후 신청하는 경우 -기술심사: 면제 -영어 IELTS 각 항목 5.0
고용계약기간	최소 2년 이상
절차	고용주 지명 신청→피고용인 비자신청
고용주 자격요건 (SBS-Standard Business Sponsor)	호주 내에서 합법적이고 건실한 사업체 운영 증명 유급 직원들 채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 풀타임의 지속적인(최소 2년) 해당 직종 고용을 피고용인에게 제시 이민성 규정 최저임금과 호주인과 동일한 고용조건 제시 호주 이민법 및 작업장 관련 법규 준수 호주 영주권자 이상의 고용인에 대한 직원교육실시 신청하는 비자 Stream에 따라 추가적인 고용주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음

RSMS 고용주 지명 영주 비자(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Visa)

RSMS 비자의 신청조건

항목	내용
비자기간	임시비자(Medium-term Stream-4년 중 3년 근무 후 영주권 신청가능)
직업군	Scehdule A list에 있는 직업군
학력	직업별 요구되는 학력이 다름(관련 경력으로 면제 가능)
경력	직업군별 기술심사 필요, 호주대학 졸업 시 기술심사 면제, 경력 3년 필수
나이	만 45세 미만
영어	IELTS 각 항목 6.0 또는 OET 각 항목 B 이상 (457비자로 2년 이상 근무 후 신청하는 경우 IELTS 각 항목 5.0) TOEFL IBT: 12점 Listening, 13점 Reading, 21점 Writing, 18점 Speaking PTE: 최소 각 영역별 점수 50 CAE: 최소 각 영역별 점수 169 (2015년 1월 1일 이후 성적에 한함)

항목	내용
기술심사	Trades/Technicians 직업군으로 관련 호주 학위가 없는 경우 필수
고용계약기간	최소 2년 이상
절차	주정부 인증기관 승인 신청(RCB)→고용주 지명 신청→피고용인 비자 신청
고용주 자격요건 (SBS-Standard Business Sponsor)	호주 내 대도시(골드코스트, 울릉공,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뉴캐슬)제외한 지역에서 합법적이고 건실한 사업체 운영 유급 직원들 채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 풀타임의 지속적인(최소 2년) 해당 직종 고용을 피고용인에게 제시 해당지역 호주인력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고용조건과 임금수준 제시 호주 이민법 및 작업장 관련 법규 준수 신청하는 비자 Stream에 따라 추가적인 고용주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음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

워킹홀리데이 비자란 청년(만 18세~30세)들에게 호주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비자로 365일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으로 특정지역 & 직업에 한해 3개월(88일) 이상 근무 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취업할 경우, 급여의 15%를 TAX로 부과한다.

• 구비서류 : 여권 • 비자신청비 : 440A$

02. 취업비자 신청 및 발급 절차

TSS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2017년 4월 19일 기준, 이미 접수돼 처리 중인 457비자 신청서는 새로운 직업군 리스트를 소급적용 받고 직업에 따라 2년 단기비자나 4년 중기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특정 직업에 한해서는 직업별로 전제조건이 붙게 되어 이에 해당될 경우 고용주의 비즈니스 매출, 규모, 직원 수, 관련 경력 유무, 연봉 등의 조건들이 적용돼 관련 증빙이 필요하다. 만약 457비자 신청을 철회할 경우 자진 철회자에 한해 신청비의 환불이 가능하며 비자신청 철회 후 35일 내에 호주에서 출국해야한다.

2017년 7월 1일부터는 연봉 9만6400호주 달러 이상의 영어 면제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IELTS 영어점수(2년 기준, 최소 5점 평점 및 각 항목 4.5점 이상)가 필요하게 되며, 한국에서 파견되는 주재원의 경우 해당 영어점수 취득이 필수적이다.

영주권 신청 계획이 있는 비자 신청자의 경우 만 45세 미만 신청, 상향된 영어 점수, 2018년 3월부터 적용되는 중장기 전략직업군 포함 유무 등을 미리 확인해 준비해야 하며 현재 세부적 예외 사항에 대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은 바, 호주 이민성이나 현지 이민 법무사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

신청방법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년 365일 언제라도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http://www.immi.gov.au)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여권과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Visa, Master 등)가 필요하다. 비자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헬스폼 작성(Health Form)이 시작되며, 모두 작성하고 마지막에 비자 승인 레터(Referral Letter)를 출력하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된다. 단, 비자 신청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나중에 비자 발급 진행 상태를 확인할 때 필요하므로 꼭 메모해 둔다.

신체검사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을 완료하고 출력한 비자 승인 레터와 여권, 신체검사비를 가지고 지정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학연수를 12주 이하로 할 사람은 5만 원짜리 신체검사를 받고, 13~17주 이하로 할 사람은 15만 원짜리 신체검사를 받는다. 어느 신체검사를 받을지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선택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이민성으로 바로 송부된다.

워킹홀리데이 수속절차(수속 예상기간 : 약 1개월)

03 비자 전환

01. 개요

비자제도가 개편되기 이전에는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입국한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자를 소지하였기 때문에 스폰서를 찾은 후에 해당 직업군에 해당하는 학위나 경력이 없을지라도 호주에서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 동안 학업을 한 후에 457 또는 RSMS 비자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었다. 비록 비자법 위반, 급여부분에 대한 불법 행위, 직업군 및 직무에 대한 부정합성 등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케이스가 이런 경우를 통해 영주권까지는 아니어도 취업을 하기 위한 457비자 등을 발급 받았으며, 이는 호주에서 정착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수월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향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하여 호주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TSS 비자의 경력 요구 조건에 따라 해당직무에 대한 학위와 경력없이는 취업비자 신청이 전면 금지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부족직업 군에 해당하는 MLTSSL 직업군에 경우, 학생비자를 통해 독립기술 이민 또는 RSMSOL 이라는 지방지역 직업군 리스트를 통해 IELTS 6.0 이상을 받고 영주권 취득 또는 임시 취업비자를 받는 케이스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02. 비자 전환 방법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방법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2년 경력 또는 한국에서 경력을 유지
TSS VISA	STSOL 또는 MLTSSL 직업군 분리 후 2년 또는 3년 비자 연장
RSMS/ENS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는 MLTSSL 비자는 스폰서쉽 지원을 받아 추후 영주권 연장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방법 – 대학, 대학교

학생비자	최소 2년 이상의 학업
Temporary Graduate Visa(485)	호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을 경우,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임시 취업비자 신청 가능
독립 기술 이민	부족직업군(MLTSSL)에 해당하는 학과는 독립기술 이민 신청 가능(점수제)

LUNA PARK
HA
HA

PART

06

정착 및 생활정보

01
정착
-
02
생활
-
03
에티켓 및 주요 용어

01. 집 구하기

호주의 집 형태는 단기 숙소를 포함해 백팩커스, 셰어하우스, 홈스테이, 렌트, 캐러밴 파크 등 다양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셰어하우스를 선호하는 편이다.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하지 않고 온 경우 공항이나 시내 곳곳에 마련된 Information Center에서 정보 수집이 가능하나 시기에 따라 현지에서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입국 초기 최소한의 기간 동안 지낼 숙소를 미리 예약하고 오는 것이 좋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갔다면 단기간 여행을 하더라도 고단한 몸을 쉴 수 있는 숙소를 구하는 것이 필수이며, 다음은 호주 내에서 정착하기 위해 집을 구하는 방법이다.

호주의 숙소 형태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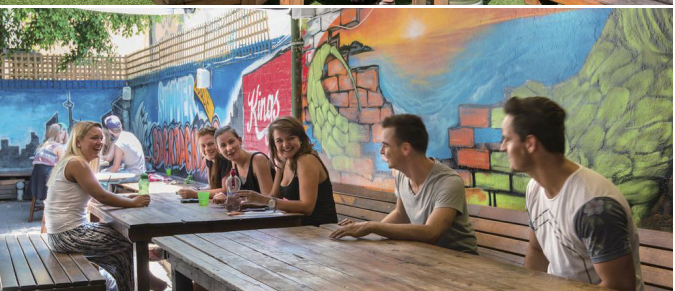
종류	특징	비용	단점/주의사항
Back-packers	• 여행자 숙소로 호주 입국 후 초기 정착 시 주로 이용 • Dormitory 형식의 방에서 6~12명이 공동생활 • 남녀 구분이 없는 경우도 많음 • 샤워실, 주방 등을 공동 사용	$25 ~ $35 일	• 짐이나 귀중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자물쇠를 채워두고 항상 주의
Share	• 한집에 여럿이 모여 살면서 집세를 공동 부담하는 형태 • 한국인 쉐어 및 외국인 쉐어가 있음	$120 ~ $300 주	• 함께 사는 사람들의 신원 확인 필요 • 너무 많은 인원이 한 집에 살지 않는 지 확인 필요 • 계약 시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서 작성 필요 • Share 관련 호주 법·규정 유의
Home-stay	• 호주 현지인 또는 교민의 집에 살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형태 • 호주 현지인과 생활할 경우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음	$250 ~ $400 주	• 가격이 비싸고 생활이나 행동에 제약이 있음(TV시청 제한 등) • 호스트 가족의 규칙 준수
Rent House	• 본인의 이름으로 집을 계약하여 거주하는 형태 • 4주치의 보증금과 2~4주치 집세를 선불로 지급함 • 전기,가스,전화 등을 개인명의로 개설 요함	지역 및 집의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큼	• 시드니 등의 대도시에서는 워홀비자로 렌트가 어려움 • 계약절차가 복잡하고 행정 처리에 주의 필요 • Entry Condition Report 확인 • 집주인의 허락 없이 벽에 못을 박는 등의 행위 불가

백팩커스(Backpackers)

여행자 숙소라고도 하며, 호주에 처음 도착했을 때 집을 구하지 못한 경우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머무르게 된다. 물론 원하면 더 오래 지낼 수는 있지만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물품 분실 위험, 공동시설 이용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를 수 있어 장기 체류에 적합하지 않다.

백팩커스는 한국에서 미리 예약이 가능하다(www.hosteltimes.com/kr). 단,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한국에서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호주 공항에서 내려서 숙소를 구할 수 있다. 숙소와 관련된 자료는 공항 내 광고 게시판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 또 무료 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원하는 곳에 연락이 가능하다. 숙소에 따라서는 픽업이 지원되는 곳도 있으니 픽업하러 나올 수 있는지 물어보고 선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픽업 비용은 따로 청구되거나 3일 이상 지낼 경우 무료인 곳도 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백팩커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국인이 많기 때문에 처음 호주에 왔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이 외에도 전 세계에 있는 YHA호스텔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백팩커스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깨끗하고 편리하다. 한국에서 YHA 회원으로 가입하면 비회원보다 약간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YHA 시설을 인터넷으로 예약 가능하다.



백팩커스의 하루 숙박비는 보통 20~30A$ 정도다. 셰어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나 홈스테이를 하지 않는 경우 하루나 이틀 정도 이곳에 머무르면서 셰어를 구하는 것이 좋다. 요금은 하루 단위로도 지불이 가능하며 장기간 지낼 경우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통 한 방에 2~12명까지 들어가기도 하며, 간혹 남녀가 혼숙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도시별 백팩커스 사이트

도시	시 웹사이트 주소
캔버라	• **YHA Australia** : www.yha.com.au/hostels/nsw/canberra/canberra-city-backpackers-hostel/ • **Dickson Backpackers** : dickson-central.com.au/
시드니	• **Big Hostel** : www.bighostel.com • **Boardrider Backpackers** : www.boardrider.com.au • **Sydney Backpackers** : www.sydneybackpackers.com • **Maze Backpackers** : www.mazebackpackers.com
멜번	• **Discovery Melbourne** : www.discoverymelbourne.com • **Nomads Melbourne** : nomadsworld.com/hostels/australia/melbourne/nomads-melbourne • **Urban Central** : urbancentral.com.au/ • **Flinders Station Hostel** : www.flindersbp.com.au
브리즈번	• **Brisbane Backpackers** : www.brisbanebackpackers.com.au • **XBase Backpackers** : www.stayatbase.com • **Chill Backpackers** : www.chillbackpackers.com/ • **Banana Benders** : www.bananabenders.com/ • **BlueTonguw** : www.bluetonguebackpackers.com.au/
골드코스트	• **Gold Coast Backpackers** : www.goldcoast-backpackers.com.au/ • **Surf N Sun Beachside Backpackers** : www.surfnsunbackpackers.com/ • **Aquarius Backpackers** : www.aquariusbackpackers.com.au/ • **Budds in Surfers** : buddsinsurfers.com.au/
케언즈	• **Gilligaan's** : www.gilligans.com.au/ • **Topic Days** : tropicdays.com.au/ • **Calypso Inn** : www.calypsobackpackers.com.au/ • **Gecko's Backpackers** : www.geckosbackpackers.com.au/
호바트	• **Narrara** : www.narrarabackpackers.com • **Imperial Backpackers Hobart** :www.backpackersimperialhobart.com.au • **Tassie Backpackers** : tassiebackpackers.com
론세스톤	• **Launceston Backpackers** : www.launcestonbackpackers.com.au • **SJ Working Hostel** : www.sjworkinghostel.com

홈스테이(Homestay)

홈스테이는 일반적으로 어학연수생이나 유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국의 하숙집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알선해주는 홈스테이는 호주인 또는 호주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주인이다. 한국인 호스트를 원한다면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나 교민 잡지 등을 통해 구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홈스테이는 평일 2식(주말3식)이 포함되며 전화 비용을 제외한 기타 세금이 포함된다. 홈스테이는 셰어하우스 형태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홈스테이를 할 경우 입주 시 호스트에게 주의사항이나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홈스테이는 어학연수 중인 학생이 싱글 룸(Single Room)을 제공받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며 언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호주에 온 주목적이 영어 공부라면 홈스테이에서 2~3개월 지내면서 최대한 영어를 접할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

홈스테이는 셰어하우스나 여행자 숙소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약 2~3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영어로 불만을 말해야 하기에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그냥 포기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간혹 생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환불을 받기가 쉽지 않으니 신청 시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홈스테이 비용은 한 달에 900~1200A$ 정도로 셰어에 비해서는 꽤 높은 편이지만, 홈스테이 가족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로 대부분의 홈스테이는 어학원과 다소 거리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추가로 교통비가 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호주 홈스테이(www.homestaynetwork.org)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이 사이트는 다양한 호스트들의 정보를 공유하며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곳, 아침과 저녁 식사만 제공하는 곳, 식사는 포함되지 않고 잠만 잘 수 있는 곳으로 분류해 정보를 제공한다.

체크포인트-홈스테이 신청 시 주의사항

1. 홈스테이는 배정을 받아 진행되므로 때로는 좋은 호스트를 만날 수도 있지만, 성격이 까다롭거나 자신과 맞지 않는 주인을 만날 수도 있으니 4주 정도 신청한 후 상황에 따라 연장하거나 집을 이동하는 것이 좋다.
2. 홈스테이는 본인이 원하는 형태에 맞추어(젊은 부부, 노부부, 어린아이 유무, 애완견 유무, 지역 등) 학교나 에이전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소개비용이 든다.
3. 각 홈스테이 가정마다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이나 샤워 시간 등 여러 명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해놓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홈스테이 호스트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따르도록 노력한다.
4. 홈스테이를 중간에 옮길 계획이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2주 전에 반드시 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야 주인이 다음 학생을 미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일주일 전에 이사할 예정임을 알린다면 일주일 홈스테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셰어하우스(Share House)

우리나라의 자취와 비슷한 개념의 셰어는 홈스테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집을 구하기 쉬워 워킹홀리데이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거형태다. 아파트나 일반 하우스의 방, 거실, 주방, 욕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보통 한 집에 6~8명 정도가 함께 지낸다. 가격은 방 인원, 집의 구성원, 위치, 빌(Bill) 포함 여부 등에 따라서 주당 150~350A$까지 다양하며 보통 주단위로 지불한다. 셰어는 일반적으로 한국인 셰어와 외국인 셰어로 나뉜다.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한국인 셰어를 원할 경우 각 지역별 한인 커뮤니티를 이용하

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외국인 셰어를 원할 경우 호주 셰어 사이트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셰어하우스 웹사이트

웹사이트명	웹사이트 주소
호주나라	http://www.hojunara.com
멜버른 하늘	http://cafe.daum.net/melbsky
선브리즈번	http://www.sunbrisbane.com/korean
퍼스 참을 수 없는 그리움	http://cafe.daum.net/aushome
애들레이드 포커스	http://www.adelaidefocus.com
검트리	http://www.gumtree.com.au
리얼에스테이트	http://www.realesate.com.au
플랫메이트	http://www.flatmate.com.au

셰어하우스 기본용어

마스터 룸(Master Room)	우리나라 안방을 의미. 화장실이 딸려있어 다른 방에 비해 비싼 편이고 보통 2~4명까지 들어간다.
세컨드 룸(Second Room)	우리나라의 작은방을 의미, 2~3명 정도 들어간다.
리빙 룸(Living Room)	거실에서 파티션을 치고 생활하는 것을 의미. 가격이 저렴하지만, 거실에서 생활하는 만큼 불편함이 많다.
선 룸(Sun Room)	베란다를 의미. 베란다여서 저렴할 것 같지만 독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의외로 가격이 비싸다.
본드 피(Bond Fee)	우리나라의 월세 보증금을 의미. 호주는 주당 방비를 내기 때문에 처음 들어갈 때 4주 정도의 본드 피를 내고 나올 때 돌려받는다.
풀리 퍼니시드(Fully Furnished)	침대, 책상, 옷장 등의 가구가 갖춰진 방. 우리나라로 치면 풀 옵션(Full Option)이다.
어드밴스드 렌트(Advanced Rent)	방값을 선불로 내는 것을 말한다.

체크포인트 - 셰어 구할 때 주의사항

1. 셰어를 내놓은 사람이 어떤지, 또 같이 살아야 할 사람들이 어떤지에 대해 잘 파악하자.
2. 셰어는 모든 세금이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입주 시 호스트에게 반드시 확인해라.
3. 보통 한국인 셰어는 쌀과 빌(Bill)이 포함되지만 외국인 셰어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반드시 계약하기 전에 빌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4. 호주는 정액제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곳과 패킷 당 사용료를 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돈을 인터넷 요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가 없도록 인터넷 요금제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자.

렌트(Rent)

일반적으로 렌트는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워킹 홀리데이 학생의 경우 한 곳에 오래 머무를 계획이거나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자 할 때 집을 렌트하면 좋다. 렌트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며 목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그리고 시티에서는 렌트를 잘 내주지 않아 시골이나 외곽 지역에 가서 렌트 기록을 쌓은 후 다시 시티에서 렌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

렌트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은 렌트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는 동안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입주한 집에 전기나 가스, 혹은 수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부동산에 연락하면 입주자 과실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집주인이 고쳐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만큼 부동산 선정이 중요한데 가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계약서를 쓸 때는 얼마나 지내게 될지 생각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 보통은 6개월을 기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정이 생겨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우선 부동산에 연락해 사정을 말해야 한다. 그러면 보통은 4주 후에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가 있고, 그 이전에 집을 나올 경우 계약 파기로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니 세부사항은 꼭 해당 부동산에 잘 알아본 후 대처하는 것이 좋다.

끝으로 계약이 끝나 나올 경우에도 2주일 전에 부동산에 알려야 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사를 할 경우 대부분 2주일분의 집세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한다. 본드 피는 부동산에서 이사가 끝나고 집을 꼼꼼히 살펴본 후 돌려준다. 청소 상태, 기물 파손 여부, 카펫이나 욕실을 꼼꼼히 점검한 후 일반적으로 청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준다. 청소비는 부동산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니 해당 부동산에 확인해봐야 한다. 또 본드 피를 다 돌려받지 못한 경우, 어떠한 명목으로 공제가 되었는지 해당 부동산에 꼼꼼히 체크해 부당하게 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케러밴파크(Caravan Park)

캐러밴 파크는 주로 농장에서 일하거나 여행을 할 때 지내는 곳이다. 주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며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곳도 있다. 농장 시즌 때는 캐러밴파크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 미리 연락을 하고 가는 게 좋다.

팜 스테이(Farm Stay)

농장 측에서 일하는 학생을 위해 제공하는 숙소다. 농장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대규모의 사람이 필요한 농장에서 만들어놓은 숙소인데 캐러밴 파크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내다보니 불편한 점도 많다.

02. 교통편

대중교통

호주는 버스, 전철 등의 대중 교통편이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초행길일 경우 자칫해 목적지에 정확히 내리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약속 시간을 놓치기 쉽다. 때문에 시드니 지리에 밝지 못한 워홀러들에게는 장거리가 아닌 경우, 택시 이용이 권장된다. 요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장거리인 경우에는 전철을 이용해 목적지 근처에서 하차한 후 다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시드니 기준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지하철($4 / 1구간), 시내버스($2.10), 택시($3.40)이다.

교통카드

오팔카드(Opal Card)를 사용할 시 현금으로 결재할 때 보다 더 저렴하게 버스와 전철을 이용할 수 있다. 오팔카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에 총 8번 사용 시 그 다음부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호주 전철로 출퇴근 시 4일간 4번 왕복하면서 오팔카드를 총 8회 사용하게 되며, 그럴 경우 나머지 금, 토, 일 3일 동안 오팔카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8회 미만 사용 시에도 일요일엔 2.50호주달러 이상은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또한 오팔카드는 1일에 15호주 달러, 1주일에 60호주달러 도달 시 그 이상의 요금이 소요되지 않는다.

NSW주의 오팔카드

시내버스의 경우, 다양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10분에서 15분 간격 정도로 빈번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빈도 수가 줄어들어 약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시드니 지역은 Night Ride가 버스 운행 마감 시간 이후 운행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전철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버스 요금은 현금으로 지불할 시 거리에 따라 차등이 있기 때문에 탑승할 때 행선지를 말하고 이에 합당하는 요금을 내야 한다. 간혹 장거리를 가면서 단거리 행선지를 말하는 부정승차 행위가 있으나 손님이 많은 경우에도 버스기사가 상당히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어 하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항상 정당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Opal Card 버스 요금

구간	성인요금	노인요금	학생요금	어린이요금
버스1(0-3km)	$2.10	$1.05	$1.05	$1.05
버스2(3-8km)	$3.50	$1.75	$1.75	$1.75
버스3(8km이상)	$4.50	$2.25	$2.25	$2.25

자료원 : NSW 주정부

시드니 전철

전철의 경우, 노선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용을 권장하며, 초행길일 경우에는 시간의 여유를 많이 두고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금은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편도 요금에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왕복권을 살 수가 있다. 간혹 전철 구내 방송을 기관사가 직접 하는 경우가 허다해 역 명을 알아듣기에 어려울 수가 있으므로, 지나치는 역 명을 확인해야 한다. 전철의 경우에도 승차장에 과금 게이트가 없는 역이 많아 이용자 스스로 카드를 접촉해 납부해야 한다. 검사하는 사람이나 장비가 없다고 무임승차할 경우 적지 않은 빈도로 역무원에게 발각돼 많은 벌금을 내게 되니 정확하게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Opal Card 전철 요금

구간	성인요금	노인요금	학생요금	어린이요금
0-3km(Peak)	$3.38	$1.69	$1.69	$1.69
Off-Peak	$2.36	$1.18	$1.18	$1.18
10-20km(Peak)	$4.20	$2.10	$2.10	$2.10
Off-Peak	$2.94	$1.47	$1.47	$1.47
20-35km(Peak)	$4.82	$2.41	$2.41	$2.41
Off-Peak	$3.37	$1.68	$1.68	$1.68
35-65km(Peak)	$6.46	$2.50	$3.23	$3.23
Off-Peak	$4.52	$2.26	$2.26	$2.26
65km이상(Peak)	$8.30	$2.50	$4.15	$4.15
Off-Peak	$5.81	$2.50	$2.90	$2.90

주 : Peak: 7am-9am, 4pm-6:30pm / Off-Peak: 7am-9am, 4pm-6:30pm 이외의 시간대
자료원: NSW 주정부

택시이용

호주의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이 약 3.30호주달러이나, 탑승과 동시에 시간, 거리 병산제가 적용된다. 1km마다 AUD 1.99달러가 부가되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AUD 1.99달러의 20%가 더 부가된다. 그리고 도심 지역에서의 26킬로미터 미만으로 정체된 도로를 지나가는 경우에는 1분당 85.8센트가 부가된다. 그 외에도 시내 외산재해 있는 유료도로 공항특별요금 등 각종 추가요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호주에서 택시를 이용하면 굉장히 비싸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도심 지역이나 모든 전철역에는 택시들이 많아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변두리 지역에서 택시를 잡아야 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콜택시를 부르면 10분 안에 주변에 머물던 택시가 픽업을 하러 오나, 영어에 문제가 있거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호주의 공항에는 여행자 편의를 위해 시내 관광 안내 책자가 공항 안 여러 곳에 비치돼 있으며,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는 도중 요소요소에 비치된 안내 책자는 무료이기 때문에 한 권쯤 가져 올 필요가 있다. 이 책자는 주요 지역별 지도, 전철 노선도, 기타 가볼 만한 곳, 쿠폰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시내교통

호주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한국과 다른 운전자석의 위치가 주된 이유이지만 시드니 도심의 경우 일방 통행로가 많고 멜버른의 경우 도심의 도로 가운데 트램(Tram)을 운행하고 있어서 우회전과 좌회전의 방법이 한국과 완전히 다르다. 또한 아침부터 저녁 7시 또는 8시까지는 길가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드물며, 주차장의 경우 가격이 많이 비싸다. 호주는 영국식 교통 체계를 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교통 시스템을 갖고 있다. 신호체계 및 호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로터리(Round About)에서 한국과 반대인 우측 차량에 진입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또한 도심의 경우 도로가 좁고 일방 통행로가 많으며 특정 도로에서는 우회전 및 좌회전이 안되는 곳이 많아 한 번 길을 잃으면 목적지까지 길게 돌아서 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도심 외곽 지역이라면 자가 운전도 가능하다. 호주 내에서의 자가 운전에 자신이 있고 목적지까지 택시 요금이 비싸다면 렌터카를 이용해 자가 운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단, 국제 면허증이나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한국과 달리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자가 운전 시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 주소를 알아야 한다. 대게 렌터카 회사에서 네비게이션(GPS라고 표현해야 한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Navi라는 것은 Navigation의 줄임 말로 올바른 영문식 표현이 아니다) 장치를 대여해준다. 가격은 회사마다 다르다. 참고로 호주는 동일한 도로명이 많이 존재한다.

즉, 지역 명을 모르고 도로명만 알고는 제대로 된 목적지로 찾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시드니에는 Albert Street가 54개나 존재하고, Albert Road는 5개, Albert Avenue는 4개나 존재한다. 이와 같이 동일 명칭 Albert로 시작되는 도로의 형식이 다수 존재하므로 정확한 지역/구역 명을 모르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주소를 건네받을 때는 지역 명을 꼭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과 달리 호주에서는 Google Map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어플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길 안내와 실시간 교통상황에 따라 빠른 길을 찾아주는 방식이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호주에 처음 운전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Photo ID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이 없는 호주는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이 사용된다. 호주를 방문하거나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운전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대신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분실의 위험도 있고 여권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주별 교통 관리국(NSW주의 경우 RTA)에서 발급하는 Photo ID 카드를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Photo ID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여권과 거주지에 대한 증명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거주지에 대한 증명은 해당 주소와 신청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고지서 등을 의미한다. 이 같은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호주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Photo ID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음)의 확인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Photo ID 카드는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전환

25세 이상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해 '운전경력자인정(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 제도를 시행하여 한국 운전 면허증을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준다. 이 제도는 4.5톤 이하트럭, 12인승 이하 승합차 면허에 해당하는 보통 면허이며, 임시체류자의 경우 한국운전 면허증 원본과 영문번역본(대사관/총영사관 공증 필요)이 있으면, 비자기간 내 또는 운전면허 만료일까지 운전이 가능하므로, 교환할 필요는 없다.
교환 발급 시, 한국 운전면허증은 반납 및 천공처리 되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각 주별 운전면허 발급신청서**
- **한국 운전 면허증 원본 및 영문번역본**
  (영문번역본은 NATTI 번역인증, 대사관/총영사관 번역문 인증을 인정하나, 국제운전면허증도 영문번역본으로 인정함)
- **신분증명서** (여권, Medicare 카드)
- **각주 관할 지역 내 거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름과 주소가 명기된 임대계약서, 전기, 전화 등 기타 유틸리티 납부통지서 등)
- **수수료** (A$157)

본격적으로 호주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주행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필기시험은 한국어로도 응시할 수가 있고, 기출 문제가 교통 관리국 홈페이지에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합격에 큰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주행 시험의 경우 통상 몇 주 정도 개인 강사에게 수강을 받은 후 응시하게 된다. 최근 초보운전면허(P면허) 소지자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옴에 따라, 실기 시험에 대한 평가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편이다.
NSW주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시험 응시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6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운전을 하여야 한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된 한국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관련 기관: http://www.rta.nsw.gov.au)

01. 물가정보

호주 물가정보

구분	항목	가격(AUD)
식품류	쌀 1kg	2.00
	계란 12개	5.00
	쇠고기 등심 1kg	22.50
	돼지고기 등심 1kg	18.00
	우유 500ml	2.00
	식용유 1L	7.10
	생수 1L	3.00
	맥주 (하이네켄 330ml, 6팩)	55.64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21.00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5.30
	김치찌개 1인분	16.0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 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4588.8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55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ㅇ, 몸살감기 내과조친)	-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35,000.00
	무연휘발유 1L	1.00
	자동차 등록비	63.00

자료원 : RBA, 각 유통사 방문조사

02. 은행 통장 개설

은행 선택

호주의 은행은 NAB(National Australia Bank), Commonwealth Bank, Westpac, ANZ 등 이 있으며, 은행에 여권을 가지고 가면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서 은행카드(Keycard)가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인터넷 뱅킹, 수표책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계좌 신청

은행계좌 개설 시 반드시 거주지 주소를 요구하는데 호텔 주소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한국 주소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나 차후 계좌 내역서(Bank statements) 송부, 수표책 송부 시 여러모로 번거로울 수가 있다.

호주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행은 Commonwealth Bank 와 Westpac 이며, 가장 많은 지점과 ATM기계를 보유하고 있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호주는 EFTPOS라는 전자 결제 시스템이 비교적 생활화 되어있어 굳이 ATM을 사용하지 않아도 매장에서 직접 결제는 물론 돈을 찾을 수가 있다. EFTPOS가 좋은 이유는 ATM과는 다르게 수수료가 전혀 없다.

호주 10대 기업 순위 안에 호주의 주요 은행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호주는 선진적인 금융 감독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으며 대형 광산 투자 및 인프라 투자 수요가 많아 전문 금융기관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수수료가 없는 일반 계좌들이 주요 은행들로부터 다수 출시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해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계좌(NAB: iSaver, CBA: NetbankSaver 등)들이 비교적 높은 이자율을 마케팅 전략으로 삼아,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집세 납부는 본인 은행 계좌로부터 자동 이체하는 방법도 있으며 부동산에서 발행한 Deposit book을 매월 작성 현금 혹은 수표로 해당 은행에 직접 내거나, 혹은 최초 소개 받은 부동산에 가서 현금 혹은 수표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다.

호주의 주요 은행

03. 휴대폰 개통

호주의 휴대전화는 요금제에 따라 크게 플랜(plan)요금제와 프리페이드(pre-paid) 방식이 있다. 플랜 요금제는 한국에서처럼 매달 기본요금 얼마에 정해진 통화량만큼 무료로 이용하고, 그 이상을 사용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프리페이드는 말 그대로 일정 요금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제 요금 방식이다. 충전한 금액을 다 사용하면 편의점에 가서 또 충전해서 쓰면 된다. 플랜 요금제는 약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로 현지인이나 장기 유학생이 사용하고, 워킹홀리데이나 관광 비자로 온 사람은 거의 약정 기간이 없는 프리페이드 폰을 많이 사용한다.

호주의 주 통신사로는 옵터스(Optus), 텔스트라(Telstra), 보다폰(Vodafone) 등이 있는데, 각 통신사별로 약정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 다르므로 잘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텔스트라의 경우 수신율이 제일 좋은 반면, 통화료가 비싼 편이고, 옵터스와 보다폰은 제공되는 혜택은 텔스트라보다 나을지 모르나 수신율은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매월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24개월 약정을 계약하면 이에 따른 핸드폰을 무료로 제공받거나 할부로 핸드폰을 구입할 수가 있다.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는 여권, 호주 현지 주소와 돈을 가지고 휴대전화 대리점에 가서 기기와 심카드(SIM card)를 구입하면 개통시켜 주고, 만약 개통이 제대로 안됐을 때는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심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체크포인트 - 국내 스마트폰 호주에서 사용하기

1. 한국에서 쓰던 스마트폰은 기기와 통신사에 따라 컨트리락(country lock)이 걸릴 경우가 있다. 사용하던 통신사에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컨트리락이 걸려 있는 기기는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다.
2. 한국에서 쓰던 휴대전화 요금제는 해지하거나 정지시켜 둔다. 호주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선택하자.
3. 호주에서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심카드를 구입해서 스마트폰에 끼우고 사용하면 된다. (아이폰은 한국에서 쓰던 KT, SK 등 통신사에 따라 기계 설정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심카드를 끼우고 아이튠즈 동기화를 해야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다.)
4. 호주에서 인터넷이나 문자 사용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APN 설정을 바꿔야 한다. 해당 통신사에 문의해서 APN 설정을 바꾸도록 하자.

04. 각종 유틸리티 개설

전화 신청

일반 전화 라인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텔스트라 또는 옵터스에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가 있다. 텔스트라에 비해 옵터스는 서비스 가능지역이 한계가 있으나, 텔스트라에 비해 기본요금과 통화료가 저렴한 편이다. 신청 시에는 거주지 확인을 위하여 주택 임차 계약서를 통해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 보통 신청 시 새로운 전화번호를 받게 되지만, 실제 개통까지는 1-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힘들 경우에는 한국인 통역을 바꿔달라고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http://www.telstra.com.au 또는 http:// www.optus.com.au). 시드니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통신서비스 회사가 다수 있으니, 이들의 도움을 얻어 전화 신청은 물론 인터넷 연결(ADSL)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

인터넷의 경우 텔스트라와 옵터스 외에 좀더 저렴한 TPG가 있다. TPG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서비스가 텔스트라나 옵터스에 비해 조금 아쉽다. 그리고 텔스트라와 옵터스로부터 라인을 할당 받은 중소 ISP 업체들이 대형통신사와 경쟁하기 위해 보다 좋은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중소ISP는 TPG와 iiNet, Exetel 등이 있다. 기본 사양은 전화라인을 이용한 ADSL2+ 상품으로 월 60달러 선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각 업체들은 통상 최소 1년에서 2년의 계약기간을 요구하는데 선불(Prepaid) 방식의 무선인터넷(3G)을 이용하면 원하는 기간만큼만 사용하고 장비는 재판매가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업체는 Telstra, Optus, Vodafone, TPG, Virgin mobile, Unwired 등이다.

호주의 주요 통신사 ADSL 인터넷 월 사용료 비교

자료원 : Telstra, Optus, TPG

통신사	월 요금 / 데이터 용량
TELSTRA	$72 / 100GB $95 / 500GB
OPTUS yes	$80 / 200GB $100 / 무제한
TPG	$49.99 / 500GB $59.99 / 무제한

가스 신청

시드니의 경우 가스는 AGL Energy(전화: 13 12 45)를 통하여 연결을 요청하고, 구좌를 개설 하면 된다. 이들을 접촉할 경우 전화와 마찬가지로 집 주소, 집 전화번호 및 인적 사항 등을 물어 오므로 주택 임차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 물론, 가스, 전기, 수도가 이미 연결되어 있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세입자가 바뀌면 새로운 세입자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해당 사항은 아래의 전기, 수도 연결 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전기 신청

전기는 Energy Australia(전화: 13 15 35), Integral(전화: 13 10 02), 또는 AGL(전화: 13 12 45)를 통하여 연결하고 구좌를 개설하면 된다. 주/지역별로 각각 주 에너지 공급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호주의 대부분 지역의 집들은 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전기 히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생각보다 히터를 사용하는 것이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 너무 많이 사용할 경우 비싼 전기세 요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EnergyAustralia

호주의 대표적인 전기 및 가스 공급 업체 Energy Australia

수도 신청

수도의 경우, UNIT(연립주택), 아파트는 집주인이 요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 후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나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관련 수도국에 연락하여 신규 입주 사실을 알려야 한다.

05. 병원 이용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병을 키우지 말고 병원에 바로 바로 가는 것이 좋다. 호주는 수준 높은 의료 시설과 의료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일단 주거지 인근의 일반의(GP: General Practitioner)를 찾아 진단을 받고, GP의 진단에 따라 처방을 받거나 다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응급 환자가 있을 경우 공립 병원(Public hospital)의 응급실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000번을 눌러 앰뷸런스를 부를 수 있다. 앰뷸런스는 한국과는 달리 약 백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니 사소한 일로 호출을 할 경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영주권자 내지 시민권자의 경우 메디케어(Medicare)라 불리는 일종의 국민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아 대부분의 진료 및 치료는 무상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공립병원의 경우 대기인원이 많은 편이고 무상의료는 질병이나 부상의 경중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적이지 않은 질병이나 부상은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민간 보험에 가입하여 대기시간 없이 사립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영주권이 없는 단기 체류자는 민간 보험을 이용하게 되는데 보험료는 통상 월 300~400 호주달러(가족 기준)이며 안과, 치과 등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대표 보험사: BUPA(구: MBF) / www.bupa.com.au).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병원을 다녀온 뒤 영수증과 진단서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병원에서 받는 처방전이 있다면 약값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조제약이 아닌 가벼운 판매용 약은 약국이나 슈퍼마켓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는다.

medicare

호주의 의료보험 Medicare

06. 우편

호주에서 우편을 보낼 때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은 한글로 적고, 마지막에 'SOUTH KOREA Air Mail'이라고 적으면 된다. 호주 국내는 엽서, 편지 모두 약 60센트 정도이고, 한국으로 보내는 요금은 엽서, 편지 모두 약 1.65A$ 이다. 요금은 중량이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우표는 우체국이나 호텔 프런트에서 살 수 있다.

짐이 많다면 소포(Percel Post)나 국제 특급 우편(EMS)으로 보내면 편하다. 국제 택배편의 경우 중량은 1개당 최대 20kg까지 가능하다. 3~4일 정도면 도착한다.

07. 긴급상황시 연락처

외교부 영사콜센터

- 24시간 해외 사건 사고에 대한 상담 및 대응
- 통역 서비스 : 긴급 상황 시 호주 경찰, 소방관, 의사 등과의 통역 지원
- 신속 해외 송금 지원제도 접수 (소지품 도난, 분실 등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 미화 3천불 한도 내에서 국내 가족이 외교부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면 해외 체류중인 본인에게 현지 통화로 전달해 주는 제도)
- 전화 : +800 2100 0404

대사관

- 관할지역 : 캔버라(ACT), 애들레이드(SA), 호바트(TAS), 퍼스(WA)
- 주소 :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 전화 : 02 6270 4100
- 긴급전화 : 0408 815 922
- 이메일 : australia@mofa.go.kr

시드니 총영사관

- 관할지역 : 시드니(NSW), 다윈(NT), 브리즈번(QLD)
- 주소 : Level 13, 111 Elizabeth St, Sydney NSW 2000
- 전화 : 02 9210 0200

- 긴급전화 : 0421 525 446
- 이메일 : sydney@mofa.go.kr
-

멜번 분관

- 관할지역 : 멜번(VIC)
- 주소 : Level 10, 636 St Kilda Rd, Melbourne VIC 3004
- 전화 : 03 9533 3800
- 긴급전화 : 0417 965 910
- 이메일 : conmel@mofa.go.kr

hello워홀

- 전화 : 02 6270 4149
- 이메일 : hello-wh@hotmail.com
- 카페 : cafe.naver.com/hellowh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whmsupport
- 카카오톡 : WhmSupport

Emergency Numbers in Australia

- 소방서/ 긴급엠뷸런스 : 000
- 경찰서 : 000 , 131 444(Victoria주 : 03 9247 6666)
- 통역서비스 : 13 14 50 (통역 요청 시, “Korean please”라고 얘기하면 한국어 통역원이 연결되며, 본인이 통화하고 싶은 호주 기관과 3자 통화 가능)

주별 한인회

- 캔버라한인회(ACT) : 02 6241 1111, homepy.korean.net/~actkorean/www/
- 시드니한인회(NSW) : 02 9798 8800, www.koreanet.org.au
- 남호주한인회(SA) : 08 8212 8345
- 서부호주한인회(WA) : 08 9358 6077, homepy.korean.net/~wakorean/www/
- 퀸즐랜드한인회(QLD) : 0424 724 624, www.qldkorean.com
- 빅토리아주한인회(VIC) : 03 9543 4076, www.korean.org.au

07. 유용한 앱

길찾기, 대중교통

트립뷰는 시드니와 멜버른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버스의 경우 정확한 정류장이 어디인지 모르면 트립뷰를 이용하기 애매할 때가 있어서 구글맵과 함께 사용하면 편리하다.

google map　　trip view

은행

commonwealth bank는 한국인 스탭이 있어 한국 워홀러 및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 중에 하나이다. 특히 해당 어플은 그림 위주로 사용하기 편리하게 잘 정돈되어 있다.

commonwealth　　westpack

셰어하우스 및 일자리 정보

검트리는 쉐어 및 오지잡, 모임 정보 등 수많은 구인구직 정보와 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로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제공되고 있다.

gumtree

먹거리

헝그리잭스는 어플로 매일 버거 무료 쿠폰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메뉴로그는 음식 배달앱이다.

hungry jacks　　menulog

01. 비즈니스 에티켓

약속잡기

면담이나 협상은 반드시 사전 약속(최소2주 이상)을 통해 하되 주중 저녁 시간, 금요일 오후, 주말(토, 일요일)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적인 업무 처리는 근무 시간 중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호주 사람들은 무척 가정적이다. 그래서 퇴근하면 대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다. 금요일 밤을 제외하고 오후 8시 정도가 되면 지하철과 도로는 한산하다. 이미 퇴근 시간대의 러시아워가 지난 후이기 때문이다.

선물 고르기

호주에서 일반적으로 선물은 마음의 표현 이상 및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식 관습으로 고가의 선물이나 유가증권(상품권 및 현금 등)을 주고받는 경우는 없다.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백화점 상품권이나 고가의 양주 및 고급 만년필 등의 선물은 받는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 향후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도 받을 수 있어 피하는 게 좋다. 그러나 가벼운 선물 등은 쉽게 주고받는 경우가 많으며 실용적인 품목들이 인기가 많다. 물론 매번 만남 시 마다 선물을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보통 준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주로 수첩, 명함지갑, USB, 초콜릿, 와인 등을 선물한다.

회식문화

호주는 개인주의 사회이다. 비즈니스에서도 이러한 개인주의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진다. 모든 업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반적인 근무 시간에 이뤄지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후 5시가 되면 어김없이 퇴근한다. 누구도 타인의 자유 시간을 침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끝난 후 밖에서 회식 자리를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직장 또는 사무실 근처 펍(Pub)에서 간단하게 맥주나 와인을 한잔씩 들고 담소하는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회식시간을 당겨서 금요일 오후 2~3시 정도가 되면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맥주를 동료들과 마시거나 근처 펍에서 마시고 퇴근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근무 시간이 끝난 후 술집에서 거래처를 따로 접대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일도 거의 없다. 이렇듯 호주 사람들은 타인의 개인 생활을 존중하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개인생활을 보호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와 의무로 생각한다.

회식에서도 우리와는 달리 호주는 개인적인 질문을 일체 하지 않으며 수년간 같이 근무한 직장 동료 간에도 나이가 정확히 몇 살 인지 결혼을 했는지 등 스스로 얘기하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초면에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실례가 될 수 있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02. 생활 에티켓

Eye contact

우리나라는 손윗사람을 빤히 쳐다보면 버릇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호주에서는 반대이다. 사람이 말하는데 눈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상당히 불쾌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호주인과 영어로 대화 시 잘 듣기 위해 긴장한 표정이나 찡그린 표정 또한 예의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얇은 미소를 띠고 눈을 마주치는 것이 좋다.

지나칠 때 몸을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기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지나칠 때 부딪히지 않게 최대한 조심을 해야 하며 지나가거나 살짝 부딪히게 된다면 Excuse me 라고 상대방에게 꼭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호주인과 친해진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스킨십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호주에는 '퍼스널 스페이스(나만의 공간)' 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나와의 친밀도에 따라 그 공간이 좁아지겠지만 상대방의 공간을 이해해주고 지켜준 후, 친해질수록 그 공간을 좁혀가는 것이 좋다. 불쑥 친해지고 싶어 처음부터 스킨십을 하는 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공간이 더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남의 아이 함부로 만지지 않기

호주 아기가 귀엽다고 얼굴을 쓰다듬는 행위나 만지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부모의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며, 그렇지 않고 좋은 의도에서라도 아이를 터치 한다면 부모는 굉장히 불쾌해한다. 한국에선 부모들이 귀엽다고 쓰다듬는다면 그냥 참는 경우가 많지만 호주에선 잘못했다간 신고당할 수도 있다.

구급차나 경찰자 등이 사이렌을 울린다면 비켜주기

뒤에서 구급차, 경찰차나 소방차 등이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온다면 즉시 우측이나 좌측으로 비켜서 긴급 구조차량들에게 'give way' 해 주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신호를 받았더라도 똑같이 길을 내주어서 지나갈 때까지 정지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 있다.

03. 통화와 환전

통화 단위는 Australian Dollar(A$)이며, A$ 1 = 100 Cents이다. 원래는 파운드화를 사용했으나, 1966년부터 달러화 제도를 도입했다. 지폐의 종류는 A$ 100, A$ 50, A$ 10, A$ 5 (2종) 등 6종이며, 동전의 경우에는 A$ 2, A$ 1, 50 Cents, 20 Cents, 10 Cents, 5 Cents 등 6종이 있다.

호주에서는 원화를 환전할 수 없으므로 국내 은행에서 미리 해가는 것이 좋다. 귀국한 뒤 동전은 재환전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호주 체류 중에 다 쓰는 것이 좋다. 환전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므로 사용할 만큼 돈을 잘 계산해 한 번에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호주의 화폐

04. 유용한 현지어 표현

호주 영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 영어와 조금 차이가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호주 영어는 미국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파벳 a의 발음을 대부분 '아'로 발음한다. 가령, 'I can't'의 경우 미국식으로는 '아이 캔트'가 되지만 호주에서는 '아이 칸트'로 발음한다. 그 밖에 알아두면 호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Shout는 한잔 사기

동료들과의 술자리나 저녁식사 자리에서 어느 한 사람이 함께 자리한 동료들에게 한턱낸다는 뜻으로 "That's my shout"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이 표현은 상당히 친근감이 있는 표현으로 호주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mateship 이미지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B.Y.O

B.Y.O는 Bring Your Own의 약자이다. 이것은 주류 판매 허가를 받기 힘든 호주의 식당들이 손님에게 마실 술을 직접 가지고 올 수 있게 배려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레스토랑을 예약하기 전에 B.Y.O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Licensed'라고 쓰여 있는 음식점은 주류 판매 허가를 얻은 곳으로서, B.Y.O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Aussie와 Mateship

호주에서는 Aussie(오지)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 이 말은 순수 토박이 호주인을 일컫는 것으로 상당히 친밀감이 있는 단어이다. 영국 및 아일랜드계의 이민자의 자손들은 스스로를 Aussie라고 칭하면서 호주 개척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진다. 'Mate'은 호주 남성들이 자주 쓰는 말로 친근하게 상대방을 부르는 표현이다.

G'day mate!

호주 발음으로 '그대이 마이트'라고 읽히며, 친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가벼운 인사로 쓰이는 말이다. 영국식 인사 Good Day에서 줄여져 사용되고 있다.

Ta

'타'라는 말은'Thank you'를 슬랭 형식으로 짧게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말이다. 이 외에도 Cheers 역시 Thank you 대신 사용되는 말이다.

Barbie

Barbie 는 Barbeque 의 줄임말로써 B.B.Q 로도 표현한다. 호주의 현지어 표현 중에서는 이처럼 끝이 –ie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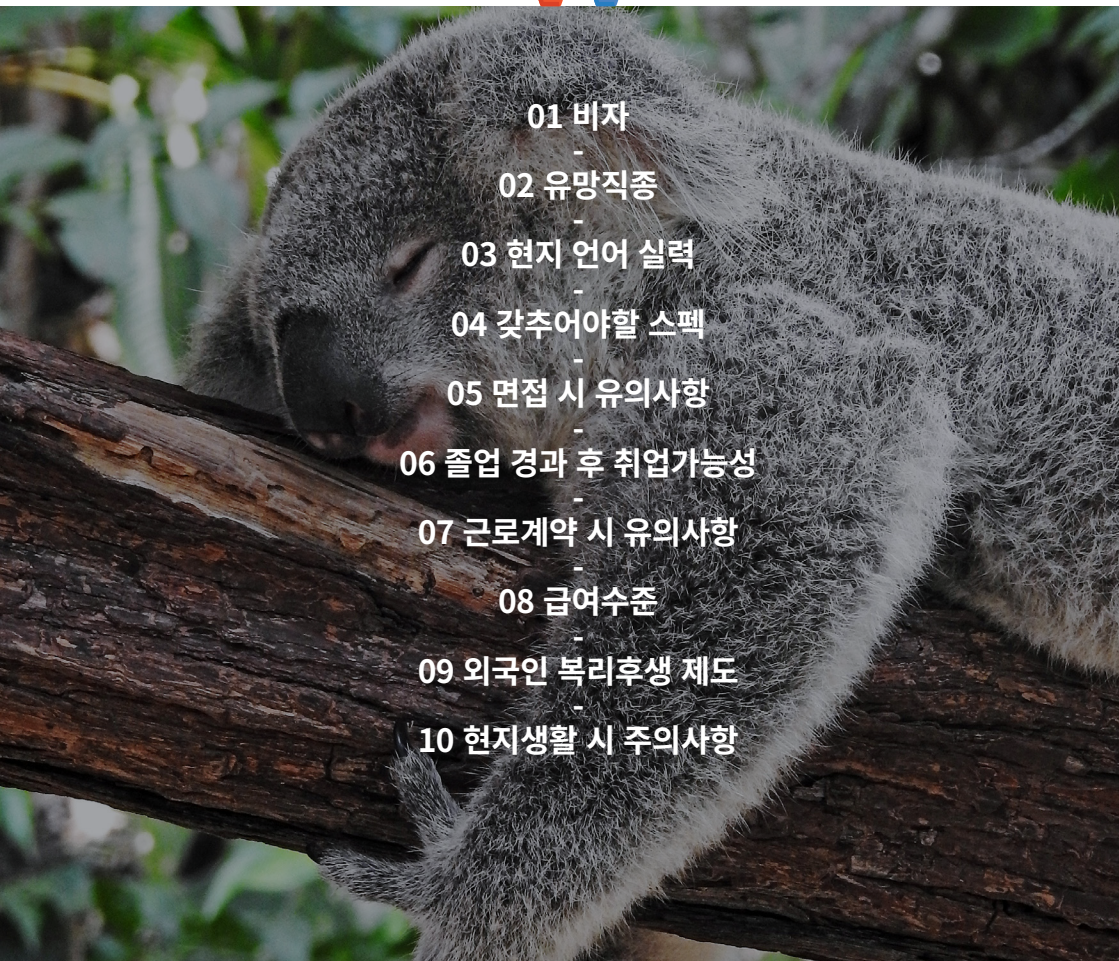
Brekkie, Chokkie

Brekki는 breakfast 의 줄임말로써 아침식사를 의미하는 현지어다. 또한, Chokkie는 Chocolate 의 줄임말로써 초콜렛을 의미한다.

PART

07

해외취업 Q&A



01 비자

-

02 유망직종

-

03 현지 언어 실력

-

04 갖추어야할 스펙

-

05 면접 시 유의사항

-

06 졸업 경과 후 취업가능성

-

07 근로계약 시 유의사항

-

08 급여수준

-

09 외국인 복리후생 제도

-

10 현지생활 시 주의사항

01. 비자

Q.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신체검사를 받고 난 뒤 2~4주 이내에 결과를 받게 된다. 간혹 늦는 일이 생기므로 예상 출국 시간보다 여유 있게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비자를 받더라도 바로 출국할 필요는 없으며 승인일 1년 이내에만 출국하면 된다. 단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또는 신체검사에서 문제가 있어 재검을 요청받는 경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항공권을 결제하는 것이 좋다.

Q.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호주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나이제한은 없나요?

A.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호주 내, 한국 및 제3국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졌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기간 내 호주의 특정지역(세컨 신청 요건 지역)에서, 특히 1차 산업 관련 업종(도살장, 육류 가공업체, 농장 등)에서 3개월 이상 88일간 일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증명서는 이민성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어 있는 1263 폼을 이용하면 되고 고용주에게 써달라고 하면 일한 날짜, 기간, ABN 넘버 등을 적어 준다. 다만 워킹홀리데이는 세컨 비자라도 만 30세 이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기 바란다.

02. 유망직종

Q. 호주의 취업현황과 유망직종은 무엇인가요?

A. K-Move를 통한 호주 진출현황에 따르면 2013~2015년 총 557명이 호주로 진출하였는데, 그 중 82%(458명)가 K-Move스쿨의 유아보육교사, 조리사과정, 미용분야 등 certificate III 자격과정에 주로 참여하였다. 호주는 비교적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요리사, 미용사, 건설관련 기술자 등 한국인이 많이 진출한 기술기능직 분야 직업군에 대해 꾸준한 수요를 보여 왔으며, 경제성장 동력을 위해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향후에는 Tourism 2020 정책 등 호주 정부의 관광산업 진흥사업으로 관광·요식업 분야의 취업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03. 현지 언어 실력

Q. 영어를 어느정도 공부하고 가는게 좋을까요?

A. 영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대부분의 워홀러 및 해외취업자 등의 가장 큰 장애물은 '영어'이다. 따라서 '외국인을 만나고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늘겠지.' 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떠나서는 안 된다. 보통 영어를 사용하는 일을 구하고 싶어 하지만, 영어를 못하면 제대로 된 일조차 구하기 힘들다. 현지인들과 경쟁하여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여야 한다. 떠나기 전에 꾸준히 영어를 준비해야 한다.

04. 갖추어야할 스펙

Q. 해외취업 시,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스펙이 될 수 있을까요?

A. 워킹홀리데이는 더 이상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자신에게는 인생의 단 한번뿐인 기회지만 워킹홀리데이를 다녀 온 후 면접관 앞에 선다면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다. 면접관은 이미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한 수많은 학생을 만났을 것이다. 만약 자신의 경험담이 떳떳한 스펙으로서 역할을 다 하길 원한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취업하려는 분야와 관련된 일을 찾아 호주 회사에 직접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다. 또는 인턴십의 경험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몇 차례 문을 두드리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분명 남들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한 경험을 통해 특별한 스펙을 쌓자.

05. 면접 시 유의사항

Q. 면접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한국인 워홀러가 현지인과 경쟁하여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게 얻은 면접기회인 만큼 반드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약속시간은 꼭 지킨다. 위치를 잘 몰라서 혹은 버스를 잘못 타서 늦었다는 핑계는 일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첫인상이 중요하다. 일에 적합한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한다. 너무 긴장된다고 면접 전에 담배를 피우거나 면접 중에 껌을 씹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신감을 갖는다. 자신감은 말투나 표정에서 그대로 배어나오니 편안한 자세로 어깨를 꼿꼿이 펴고 가능한 한 일에 대한 경험을 어필한다. 넷째. 예상 질문을 뽑아서 반복적으로 연습한다. 자기소개, 일에 대한 경험, 일을 하려는 이유, 성격 등 자주 묻는 질문과 답을 미리 연습한다. 다섯째, 지원하는 곳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인다. 규모가 크다면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 미리 정보를 파악한다. 규모가 작은 곳은 직접 방문하여 분위기나 하는 일, 주변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질문한다. 여섯째. 인터뷰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좋다. 설령 인터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반드시 감사표현을 한다. 좋은 인상을 남긴다면 나중에라도 기회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어를 잘 못할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 내용을 유창하게 함으로써 면접관으로 하여금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자기소개뿐만 아니라 지원동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함으로써 질문을 받기보다는 답변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06. 졸업 경과 후 취업가능성

Q. 한국에서 졸업 후, 호주에서 취업하기가 어렵나요?

A. 호주 정부는 자국민 고용을 우선시하며 기술이민 쿼터 축소 및 부족직업군 개편 등을 반영한 정책들을 내놓는 등 외국인 취업 장벽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호주에 취업하기 위해 무작정 달려드는 것보다는 변경된 취업비자 제도 및 취업유망 분야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맞는 취업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호주는 요리사, 미용사, 건설관련 기술자 등 기술인력 구인난 심화가 계속됨에 따라 해당분야 외국인 채용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에서 전공 및 해외취업 연수를 신청할 때 이와 관련된 과정에 참여하여 자격과 경력을 쌓는 것이 좋다. 또한 매년 회계연도에 발표되는 호주 부족직업군 리스트의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파악함으로써 자신이 속해 있는 직업군이 이에 속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고용주 스폰서 비자 등 장기 취업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심사 등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부족직업군이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하여 비선호 지역에서 경력을 쌓거나 구인처로부터 스폰서십을 받는 등의 대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07. 근로계약 시 유의사항

Q. 호주에서 근로계약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큰 회사나 호주인 고용주 아래에서 일하면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기본 시급의 1.5배~2배를 받기 때문에 평균 시급이 $15~20 정도 된다. 물론 여기에서 세금을 공제하게 되고, 그 중 일부는 나중에 세금 환급을 신청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인이나 다른 외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에서 일할 경우 대부분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공제 없이 그냥 현금으로 $10~12정도의 시급을 받게 된다.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해도 시급은 똑같다. 한국인 고용주들은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그만둘 경우를 대비해 첫 일주일 또는 이주일의 급여를 묶어 놓고 그만두면 나중에 주는 곳이 많다. 어떤 곳은 초기 며칠 트레이닝 기간은 급여 없이 일해야 한다는 곳도 있다. 이 모두 법에 어긋난 것이며 업주들의 악행이다. 따라서 근로계약 시에는 일할 시간과 시급,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고, 고용형태에 따라 '호주 고용기준(NES)'도 체크하여 피고용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8. 급여수준

Q. 호주의 최저임금 및 급여수준은 어떤가요?

A. 호주의 최저임금은 2021년 7월 기준 시간당 20.33 호주달러(주급 기준 772.60호주달러)로 이는 한국의 최저임금(2022년 9,160원)에 비해 약 두배를 넘는 수준이다. 영어 사용권이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해외취업을 꿈꾸는 준비생이라면 호주 취업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아래의 표에서는 호주의 통상적인 급여(주단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1,300 ~ 1,800 호주달러 수준의 주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100 ~140만원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호주 표준 임금수준 (주급 기준, 2021)

근로 유형	주급 (호주달러)
풀타임 성인 Full-time 정규 근무	1,737
풀타임 성인 총 근무	1,798
모든 근로자	1,305

출처 : ABS, 2021

09. 외국인 복리후생 제도

Q. 일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호주의 영리사업자는 피고용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워홀러의 경우에도 아래 조건에 충족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상해가 발생했을 당시, 신청인이 피고용인이었는가?
- 만일 그렇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해가 존재하는가?
- 신청인의 상해가 고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가?

각 주마다 WorkCover 혹은 WorkSafe라는 주정부 산업재해 보험사가 있어 근무 중 피고용인에게 발생한 상해 사건에 대한 보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사고가 피고용인의

과실로 발생한 상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 보험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지 않으며 위의 3가지 조건만 충족하게 된다면 산업재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 현지생활 시 주의사항

Q. 현지생활 시 주의사항은?

환전사기

호주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및 유학생을 대상으로 환전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 수표를 이용하여 입금할 때, 수표와 연결된 통장에 돈이 없어도 상대방(피해자) 계좌에 최초 입금 표시는 되지만 며칠 뒤 실제로는 입금이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범죄이다. 은행보다 좋은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한 뒤, 상대방(피해자)의 호주 계좌에 개인수표를 이용하여 입금하고, 상대방(피해자)이 자신(가해자)의 한국 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송금, 환전 등은 가급적 은행을 통해 진행하고 개인수표를 이용한 거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수표 이용 시 실제 은행 계좌에 입금이 완료되는 시점이 계좌 표시 후 2~3일 이상 소요됨을 감안해야 한다.

강력 범죄

외국인 배낭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도 종종 발생하니 처음 본 남성이 제안하는 자동차 여행이나 과도한 친절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017년 1월 초 처음 본 남성이 제안한 자동차 여행을 수락했다가 3개월 동안 인질이 되어 성폭행을 당하고 끌려 다닌 영국 여성 배낭여행객(22세) 피해사례가 있다.

온라인 사기

숙소(Share)나 일자리를 구할 때 먼저 돈을 구좌에 송금하라고 하면 특히 주의해야 하며 당사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호주 국내법상 소액의 사기사건은 경찰이 개입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의 제공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및 유학생 대상, 명의제공 행위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범죄행위에 연루된 명의제공 행위는 호주에서 최고 5년형의 중범죄로 취급된다. 개인 정보는 타인에게 절대 제공해선 안 되며, 다른 사람의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거나 공동 명의의 통장 개설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민부 직원 사칭

이민부 직원을 사칭해 이민자에게 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추방당할 수 있다는 협박 전화로 돈을 갈취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2016년 3월 이래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 신고를 300건 접수했으며 피해자들이 평균 2,600달러를 잃었다고 밝혔다. 만약 누군가 이민부 직원을 사칭하는 것이 의심된다면 호주 이민부에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테러

세계 각지에서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IS는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 추종자들에게 오페라하우스, 본다이 비치, 멜번 크리켓 경기장 등 호주 명소를 특정해 흉기나 총기, 독극물, 차량 등을 이용해 공격하라고 선동한 바 있다. 호주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호주 내 테러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변에 수상한 움직임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장소를 벗어나고, 테러 사건 발생 시 현지 치안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현지 방송, 재외공관 홈페이지 및 SNS, 외교부가 발송하는 해외 로밍 SMS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운전

호주는 도로의 왼쪽으로 운전하는 등 한국과는 교통법규가 다르다. 호주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 호주 교통법규 등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라며, 특히 호주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

호주에서 술 구입은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술은 반드시 허가된 주류점(liquor shop)에서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공원, 버스정류소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통신 두절

호주는 광활한 국토 면적으로 인해 통신(특히 무선)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많다. 대도시에서 떨어진 대규모 농장 지역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가족들과 친구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미리 이동 사실을 알리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길 바란다.

유의해야 할 지역

여행자들을 표적으로 한 성범죄, 강절도 등의 범죄 가능성에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야간에 도심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다니는 것은 가급적 삼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니길 바란다.

※대도시 도심의 클럽 밀집지역, 카지노 부근, 도심 내 이면도로 지역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시드니에서는 Kings Cross, George Street China Town 주변, Newtown 주변, Central역, Parramatta역, Liverpool역, Blacktown역, Redfern역 부근을 유의바람.

일자리 찾아 세계로

해외취업 **완전정복** 호주

도서명	해외취업 완전정복 호주
발행인	어수봉
발행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일	제1판 1쇄 2017년 03월 24일
	제1판 2쇄 2018년 11월 22일
	제1판 3쇄 2022년 1월 10일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문의처	1577-9997
홈페이지	www.worldjob.or.kr
지은이	방호진, 윤동열
디자인	초아출판사
ISBN	979-11-5799-210-2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22

본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